

# 성도의 빛 1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영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호는 1987년 제157차 교회 반 언차 대회 보고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메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61권, 제24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88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연 제 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1KO

PRINTED IN KOREA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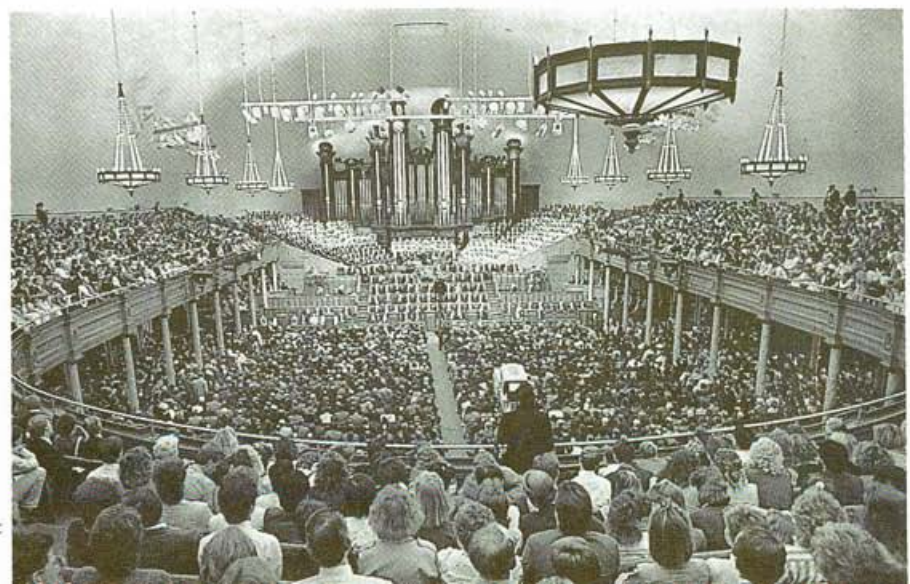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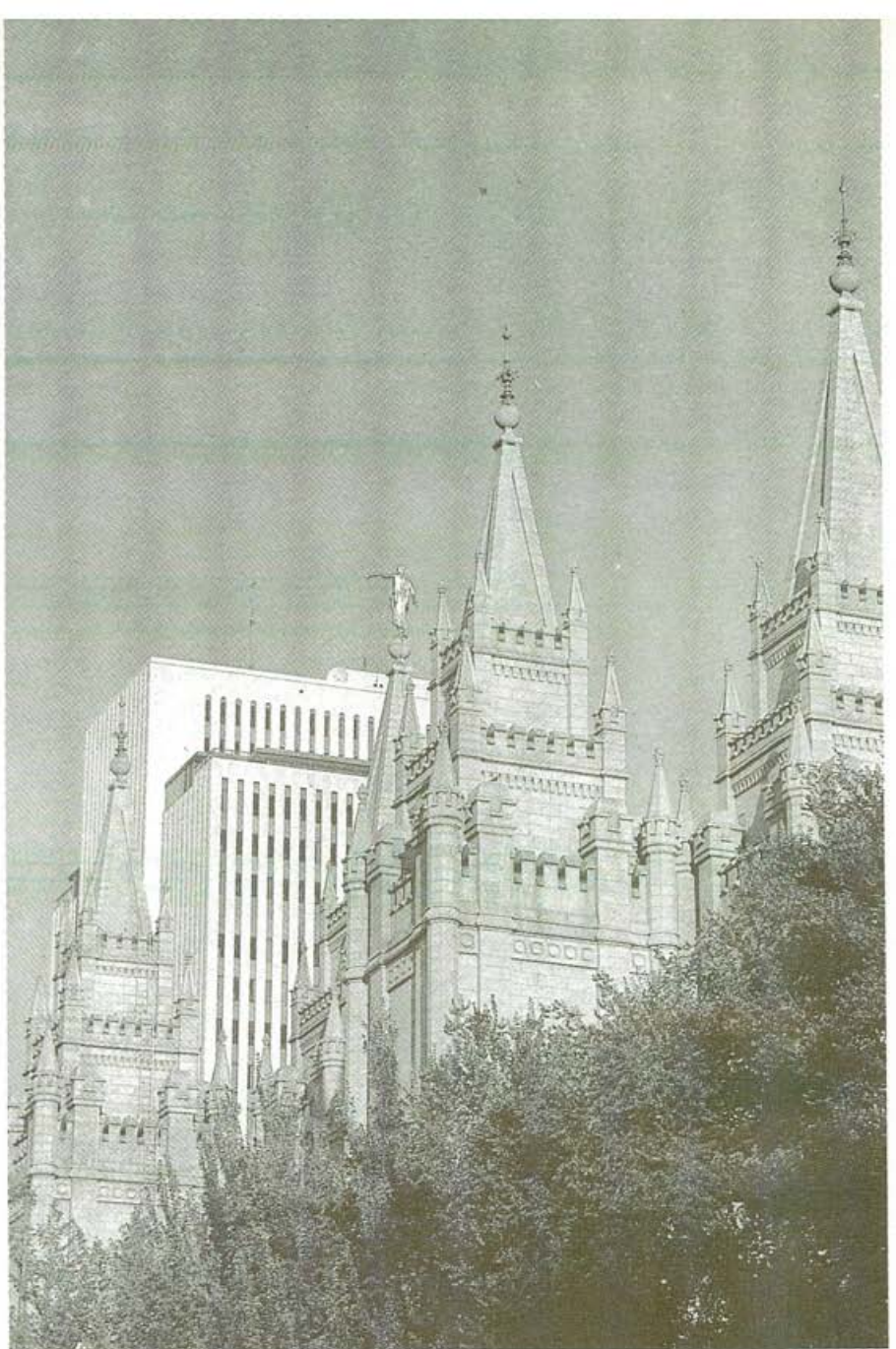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7차 반 연차 대회 보고

1987년 10월 3~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넌클에서 열린 대회 일정 및 말씀

“우 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론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물론경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얻고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10월 연차 대회를 마치는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거듭해서 물론경을 읽어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나아오며 그에게 각오를 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매일 역경에 처합니다. 이 세대가 안고 있는 과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못지 않으며 그것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하며 매일 그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벤슨 대관장이 말씀했다.

벤슨 대관장은 이틀간의 연차 대회를 감리했다. 대관장단 제일 보좌인 고든 비힝클리 부대관장과 제이 보좌인 토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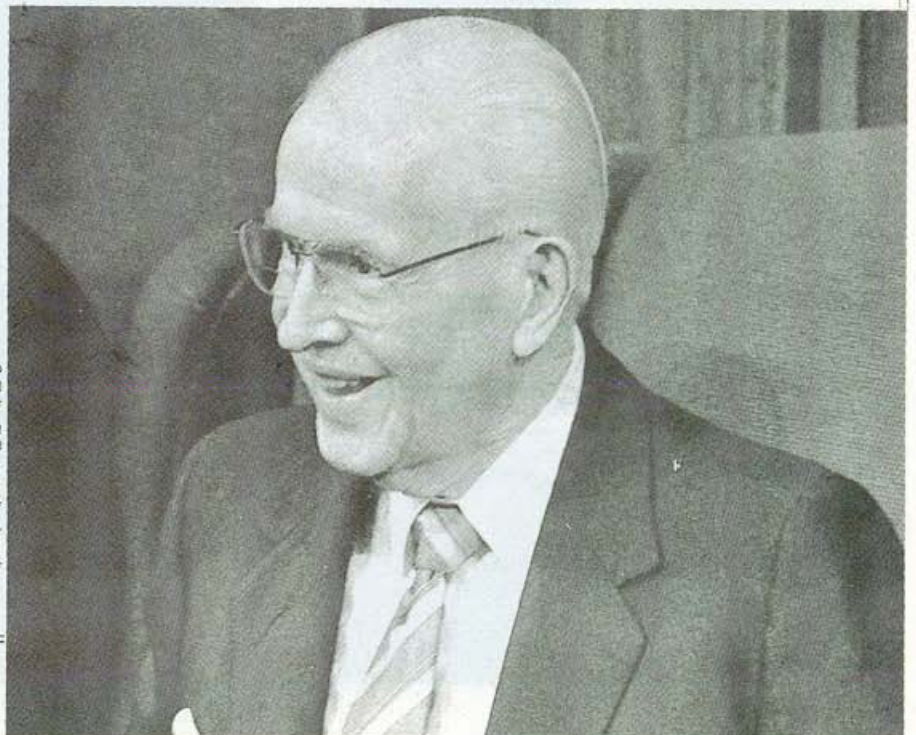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모임 사회를 진행했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매리온 지 롬니 회장,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장인 요시히코 기쿠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를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이 참석했다.

대회 진행 과정은 인공 위성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모인 여러

집회소에 방영되었다. 대회 광경의 비디오 테이프가 제작되어 전세계 지역의 회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다.

일반 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9월 26일에는 본부 여성 대회가 열렸으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인공 위성 수신 센터에 방영되었다. 그 모임에서 행해진 말씀들이 이번 호에 실려 있다.

—편집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색인

아래의 주제는 표시된 페이지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역경, 위스린 8; 패커 17; 헌터 62; 조이 이반스, 101  
아프리카, 모리슨 27  
속죄, 옥스 68; 바바라 윈더 104  
물문경, 백맨 65; 벤슨 89  
축하, 페리 74  
자녀, 벤슨 52  
교회 성장, 힝클리 59; 리차즈 88  
위로, 맥스웰 33  
미국 헌법, 벤슨 4  
이브, 넬슨 93  
신앙, 몬슨 45; 힝클리 48; 헌터 62; 조이 이반스 101  
가족, 넬슨 93; 조안 독시 98  
아버지, 벤슨 52  
용서, 패커 17  
정직, 헤이트 14  
예수 그리스도, 맥스웰 33; 옥스 68; 몬슨 71; 벤슨 89

기쁨, 바바라 윈더 104  
지도자, 포터 78  
사랑, 에쉬튼 22; 맥스웰 33; 몬슨 71  
결혼 생활, 벤슨 52; 넬슨 93  
선교 사업, 마틴 25; 모리슨 27; 몬슨 45; 힝클리 48; 백맨 65; 벨라드 84; 리차즈 88  
도덕, 헤이트 14; 조이 이반스 101  
모성애, 벤슨 52; 넬슨 93; 조안 독시 98  
순종, 포터 78; 벨라드 84; 넬슨 93  
참여성, 위스린 8  
기도, 에쉬튼 22; 넬슨 93  
신권, 넬슨 40; 벤슨 52; 넬슨 93  
신성 모독, 힝클리 48  
예언자, 포터 78  
회개, 패커 17; 조이 이반스 101  
책임, 넬슨 40; 벤슨 52  
희생, 브래드포드 80; 벨라드 84  
사탄, 파우스트 37

스카우팅, 페더스토운 29  
자급 자족, 벨라드 84  
봉사, 마틴 25; 모리슨 27; 브래드포드 80; 리차즈 88  
영적인 은사, 에쉬튼 22  
영성, 라슨 11; 백맨 65  
가르침, 넬슨 93; 조안 독시 98  
유혹, 파우스트 37; 페이스 43  
간증, 힝클리 48; 백맨 65; 소렌슨 82; 벤슨 89  
전통, 페리 74  
진리, 라슨 11  
여성, 넬슨 93; 조안 독시 98; 조이 이반스 101  
세상적인 것, 페이스 43; 브래드포드 80  
청소년, 페더스토운 29; 페이스 43; 힝클리 59

대관장단 왼쪽으로부터: 제일 보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제이 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목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7차 반 연차 대회 보고 ..... 1  
 색인 ..... 2

## 토요일 오전 모임

성스러운 헌법 ..... 4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포기하지 마십시오 ..... 8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정도를 지나쳐” ..... 11  
 딘 엘 라슨 장로  
 윤리학과 정직 ..... 1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길르앗의 유향 ..... 17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토요일 오후 모임

교회 역원 지지 ..... 21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여러 가지 은사” ..... 22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주님께 봉사함 ..... 25  
 더글라스 제이 마틴 장로  
 아프리카에 새 날이 동틀 ..... 27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청소년의 참피온 ..... 29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 33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능숙한 모방자” ..... 37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 신권 모임

신권의 열쇠 ..... 40  
 러셀 엠 넬슨 장로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군요” ..... 43  
 글렌 엘 페이스 감독  
 선교사의 추억 ..... 45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48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 52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일요일 오전 모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 59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 62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 68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 71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일요일 오후 모임

“뜻깊은 축하 행사” ..... 74  
 엘 톰 페리 장로  
 총관리 역원을 따르십시오 ..... 78  
 엘 앨런 포터 장로  
 헌신적인 봉사 ..... 82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회생과 자급 자족 ..... 84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봉사의 기회” ..... 88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 89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여성 대회 1987년 9월 26일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 93  
 러셀 엠 넬슨 장로  
 가족을 강화함 ..... 98  
 조안 비 독시  
 인생의 여정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극복함 ..... 101  
 조이 에프 이반스  
 생활에서 기쁨을 찾음 ..... 104  
 바바라 비 윈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 ..... 56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07  
 교회 및 지역 소식 ..... 108

# 성스러운 헌법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판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회복에 필요한 위대한 서막으로서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정부 형태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금 성대한 연차 대회를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매우 가깝게 와 닿아 있고 전세계적인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 헌법 서명 이백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인준과 그것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출범과 헌법 개정 10개조의 작성과 인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건 중 첫번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 년 동안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하나씩 기념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평화롭게 오늘 만날 수 있음은 이러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것”(교성 98 : 5)이요, “공정하며 신성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교성 101 : 77)이라 하신 우리의 신성한 헌법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많은 나라에 본보기가 되어 왔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입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교성 101 : 80)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주님은 미국이 말일에 스스로 자신의 베일을 벗길 권리를 가질 때까지 주님의 손 안에 미국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리하이는 말했습니다 “보라 지혜로 이 땅을 지키사 다른 나라에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보라 많은 나라가 이 땅으로 물려 들어 왔던들 이 상속의 땅이 남지 아니하였으리라.”(니파이서 1 : 8)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의 영이 콜롬부스와 필그림들인 청교도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니파이일서 13 : 12~13 참조) 물론경은 그들이 “주 앞에서 겸손함애, 주님의 권세가 저들과 함께”(니파이일서 13 : 16)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회복에 필요한 위대한 서막으로서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정부 형태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이천 년 전에 이 약속된 땅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세로 자유의 백성이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성취되리니, 이는 아버지의 지혜라.”(니파이삼서 21 : 4) 자유의 나라인, 미국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를 위해 주께서 말일에 쓰시는 전진 기지가 되기로 되었습니다.

독립 선언문은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함을 믿으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에게서 무한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교성 134 : 2)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류의 세 가지 큰 권리입니다.

독립 선언문의 끝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 선언문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성스러운 명예를 바칠 것을 맹세한다.” 이 선언문은 서명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희생을 요구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서명자는 반역자로 잡혀 죽기 전까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열 두 사람은 그들의 집이 약탈당하고 소실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독립 전쟁으로 아들을 잃었으며, 두 아들이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홉 사람은 전쟁의 상처와 부상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주님은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축하였느니라.”(교성 101 : 80)고 말했습니다. 니파이는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이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  
나나라.”(니파이일서 13:19)고  
기록했습니다.

제헌 의회가 발족되기 바로 전 해에는  
새로이 획득한 평화에 실망과 위협이  
가득 했습니다. 워싱턴은 왕이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니파이는 수백 년 전에  
“이 땅이 이방인들의 자유의 땅이 되며,  
이 땅에는 이방인을 다스릴 왕이  
없으리다.”(니파이일서 10:11)라고  
예언했습니다.

1783년과 1787년 사이의 중대한 시기에  
미국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외자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른 심삼 주가 결코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십이 주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메디슨은 대표자들이  
“시행되기만 하면 공화국 정부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게 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1787년 6월 26일,  
연방 회의 기록; 1911년, 1:423)

니파이는 말했습니다. “주는  
태초로부터 모든 일을 아시었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길을 마련해  
두셨나니”(니파이일서 9:6)

몇 달 후에, 회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글래드스톤이  
말했듯이, 그것은 “주어진 시간에  
인간의 머리와 결의에 의하여 써어진  
가장 훌륭한 작품”(윌리엄 글래드스톤,  
북아메리카 총판, 1878년 9~10월,  
185~86페이지)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표준이며...하늘의 깃발”(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2페이지)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자들은 하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흔히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운,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혁명의 위급한 단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것처럼 자주 너무나도  
분명히 내미신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페드럴리스트, 헨리 캐봇  
롯데 편, 뉴욕:지. 피. 푸트남스 슨스,  
1983년, 제37호, 222페이지)

페드럴리스트 신문의 창시자요 신 한  
개의 수필 저자로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톤은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한, 나는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것처럼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되어  
합의될 수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한다.”(폴 엘 포트, 미국 헌법에  
대한 수상록, 1892년, 251~52페이지)

헌법 회의에서 매우 적극적인  
참가자였으며, 핑크니안의 발의자인  
찰스 핑크니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다 되어 발행되었을 때, 나는  
놀라움에 질려 있었다. 전능자의  
관리하시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전시에도 우리에게 것처럼 기적적으로  
전달되어...완벽하게, 흠없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헌법에 대한 수상록,  
412페이지)

십 개월 후에, 헌법은 아홉 개 주에  
의하여 승인되어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1789년에 첫번째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미국  
백성들보다 더욱 많이 인식하고  
찬양해야 할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 국가의 성격으로 진전시켜  
온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첫  
취임 연설, 1789년 4월 30일)

헌법 제6조를 준수하여, 의회에서  
통과되어, 1789년 6월 1일에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한 첫번째 조치는 각 행정  
관리들에게 헌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교리와 성약에  
수속된,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에도  
이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훌륭하고 장하게 수호한 원칙들  
곧 우리 나라의 헌법을 영원토록 확립케  
하옵소서.”(교성 109:54)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교회의  
대관장이 된 직후에, 그는 나에게  
세인트 조지 성전의 지하 보관소에 가서



초기의 기록을 살펴 보도록 지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던 중,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세인트 조지  
성전 방문에 관해 알게 된 후부터 내가  
꿈꾸어 왔던 것이 성취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을  
필두로, 이 위대한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을 위해 베풀어진 사업의  
기록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건국지도자들, 그 위대한 분들이 그  
성스러운 벽의 내부에 나타났으며,  
그들을 위해 대리 사업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인트  
조지를 떠나기에 앞서, 고인이 된  
분들의 영이 내 주위에 모여, 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사용해 왔소.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향유하는 정부의  
기초를 놓았으며, 배도를 한 적도 없고,  
언제나 진실했으며 하나님께  
충실했소.’”(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160페이지)

교회의 대관장이 되고 난 후, 윌포드



속하는 네 형제들을 정당한 줄로 인정하느니라.”(교성 98 : 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헌법에 가장 우호적이 될 수 있고, 자유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로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아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는 전혀 합당치 못한 것이다.”(존 아담스의 전집, 시 에프 아담스, 보스톤 : 리틀, 브라운사, 1851년, 4 : 31) 헌법이 지속성을 지니려면, 이 미국 국가, 특히 말일성도는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경은 이 자유로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속박된다고 하면 이는 저들의 완악함이니, 완악한 것이 일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의인은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리라.”(니파이이서 1 : 7)

모로나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독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독하신 진노가 임하리라.”(이더서 2 : 9)

위대한 미래록의 두 기독교 문명국인 야렛인과 니파이인들은 “이 땅의 하나님...예수 그리스도를 섬” (이더서 2 : 12) 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명 사회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전통에 들어 있는 헌법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페드럴리스트 신문을 읽어 보았습니까? 우리는 헌법을 읽고 그에

우드럽 대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기초를 놓은 그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영들입니다. 주님의 영감을 받은 분들입니다.”(대회 보고, 1898년 4월, 89페이지)

불행히도, 우리 국민은 영감받은 건국 지도자들에 의하여 선언된 상이한 헌법 원리로부터 여러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한 그 순간으로 빠르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조차도 산산히 부숴져 땅에 흩어질 때가 될 것이나, 헌법은 땅가지고, 이 백성은 나라가 의지할 지팡이가 될 것이며, 그들은 헌법을 파멸로부터 수호할 것입니다.”(1840년 7월 19일, 마다 제인 놀튼 코리 기록; 교회 역사 사무실,

솔트레이크시티)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자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세기 동안 고통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것처럼 많은 희생을 기꺼이 치렀을진대, 우리도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를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기꺼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된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헌법과 그 결과로 인한 자유스런 환경하에서만, 회복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유가 영속되어 교회가 장차 보다 쉽게 변영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는 입헌 국가의 법률인 그 법의 편을 드는 너와 나의 교회에





대관장단 왼쪽으로부터: 제일 보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제이 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관해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자들이 헌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으며 어떻게 경고하였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무지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결코 그렇지 못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찰스 앤서 대령에게 보내는 서한, 1816년 1월 6일)

셋째, 우리는 우리가 합당한 대표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시민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교성 134:1) 지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너희는 정직하며 현명한 자를

힘써 찾아 구하라. 선한 자와 현명한 자를 받들지어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느니라.”(교성 98:10)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자질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하고, 현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투표와 편지와 가르침과 권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씀했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것은 인기있게 만들고 불건전한 것은 인기없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급후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교회 정사, 5:286)

요셉 스미스의 예언대로 나는 헌법이 수호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의 의로운 시민에 의하여 수호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식견있는 회원들과 그 밖에 헌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헌법을 성문법으로 존중합니다. 내게 있어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가장 훌륭한 영들에게 이 정부의 기초를 놓게 하셨으며, 이제는 다른 선택된 영들을 보내 그것을 수호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익을 누리고 축복받은 우리는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이더서 2:10)인 미국에서 어려운 시절을 당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산과 성스러운 명예를 맹세한 이들 애국자들이 보여 준 신앙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셉 비 위스틴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인내는...필수적인 것이며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보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뒤를 이어 말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내 친구이자 지도자로  
사랑합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요, 계시자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나의 말씀에서, 인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장애나 반대 또는  
기타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또는 목적에 이를 때까지 주어진  
과정에서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를 저지하거나 전환시킬  
장애물이나 반대 세력은 무엇입니까?

교회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과정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창조의 뜻을

이루고, 승영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과 반대  
세력이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주님의  
사업과 영광을 부식뜨리기를 피하는  
사람의 유혹과 꾀임입니다.

인내란 긍정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태한 것이 아니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은 포기하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 외에는 조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  
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내기 어려운 일을  
받으면, 그 일을 옆으로 쳐쳐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기를 포기합니다.  
인내의 필요성은 다음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재는 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실패와 성공 사이의  
간격은 너무 좁아서 우리는 언제  
지나치는지 거의 알아채지 못하며, 또한  
그 선 위에 있을 때도 많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인내할진대 성공을 거두었을  
시기에 두 손을 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노력하였을 때, 아무런 희망없이 보이던  
것이 영광스런 성공으로 변할 수도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는  
실패는 없으며, 목적 그 자체에 본연의  
나약함이 있지 않는 한 물리칠 수 없는  
장애물은 실재하지 않는다.”(저자 미상,  
제이 백과 사전, 제이콥 엠 브랜드 편,

잉글우드 클리프스, 프렌피스 홀,  
1957년, 152페이지)

우리는 경전과 세상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수없이  
많은 인내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구약의  
예는 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 이야기는 어느 의인에게  
닥친 역경에 대한 것으로서 그러한  
역경에 처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왜 욥이나 어떤 사람이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적인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듯이, 역경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의 표적은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경전은  
역경은 형벌로 오는 것은 아닐지언정,  
경험과 단련과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성경 사전, 홈즈역본  
말일성도 편, “욥” 참조)

나는 교회 회원들이 욥보다 더 많은  
확신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피한 의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고통당하게 하신 후에,  
그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잃고, 가족과  
재물을 잃고, 심한 질병까지 얻는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받는 중에도,  
주님께 계속 충실한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역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믿나이다.”라는  
의미임)...그가...나의 구원이

되리라...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3:15~16; 19:25~26)

욥의 인내의 결과는 이야기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족과  
건강과 많은 재산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무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계속 나아가 결국 주님을  
보았습니다.(욥기 42:5 참조)

물론경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물론의 아들인 모로나이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은 위대한 백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생활은 인내를 가르치는 데 있어 특히 교훈적입니다. 그가 겪은 장애물은 우리에게도 가히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니파이인의 온 나라가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무서운 전쟁의 창검에 멸망됨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친과 그의 모든 친족과 친구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야만적인 레이맨인을 피해서 숨어 다니며 이십 여년 동안을 혼자 지냈습니다. (몰몬서 8:2~7 참조) 그러나 그는 부친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기록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인내와 의로움의 결과로, 그는 구세주께서 그의 재림시까지 머무르도록 허락하신 세 사람의 니파이인에게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몰몬서 8:11 참조) 말일에 모로나이는 회복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셉 스미스를 가르치고 몰몬경 기록을 그에게 전해 주는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결심과 인내심도 또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구절을 읽고 난 요셉은 야고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압혹과 혼란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무릎꿇고 기도한 순간부터, 그는 거대한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힘, 곧 악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때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6~17) 예언자의 지상의 성역이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그의



십이사도 평의회의 앨 톰 페리 장로의 부축을 받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대회 모임에 도착하고 있다. 왼쪽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가 있다.

생애의 한 본보기를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적대자들에게서 모욕적인 격한 공격을 받았으며, 믿어 왔던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반당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분리되었고, 거짓 재판으로 심판받고 투옥되었으며, 결국은 폭도의 손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들어서기 위해 자신이 받은 책임을 충실히 행하고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외에도, 일생 동안 천사들과 다른 하늘의 존재로부터 가르침과 충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역시 인내심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대영 제국의 지도자로서 결단력을 보여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학교를 찾아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에 앞서, 교장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이 학교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빠짐없이 노트를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이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노 정치가가 와서 학생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안경은 평상시대로 코끝에 내려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전에 의회에서 했던 불멸의 웅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앉았습니다. 그것이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필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시기입니다” 전시의 연설, 찰즈 에어더, 보스턴: 리틀, 부라운사, 1942년, 286~88페이지) 그의 메시지는 참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소년들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유혹과 절망과 실망이나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인내란 영적이거나 세속적인 것, 크거나 작은 것, 공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부름이나 학업이나



직장,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또는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뜻깊은 성취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개 인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몇 가지 유산은 이 원리의 적용에 의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존 밀튼은 실락원을 썼을 때 장님이었습니다. 루트비히 폰 베토벤은 가장 위대한 몇몇 음악의 작곡을 마쳤을 때 귀머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약점을 지닌 심검고, 못난 시골 소년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언변이 유창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수없이 많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구하는 데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세상에 영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보여 준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으나, 그들은 끈기있게 그들의 재능을 스스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인내의 으뜸되는 본보기는 우리의 주님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는 인내에서 온전하셨으며 그와 그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2 : 48 참조)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의 회의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야요, 복천년의 통치를 통해서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시며, 온전하게 인내하셨으며 또한 인내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 : 2) 계획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 : 1)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의 갈등은 오늘날 세상에서 지속되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나 사탄은 그들을 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으로 태어난 예수는 지상의 성역을 베푸는 동안, 다시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성역이 시작되던 때에, 우리는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의 기록에서 그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그는 교활한 사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완전하게 극복했습니다. (마태복음 4 : 1~11 참조) 예수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기적적인 내면의 힘을 모아, 유대 광야에서 권세를 지닌 적대자와 싸우러 오셨습니다. 첫째, 사탄은 그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명하여 기본적인 굶주림의 욕망에 호소하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다음에는 구세주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마태복음 4 : 7)고 말하며, 그의 거룩한 권세를 남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복시키고야 말 육구 즉 큰 재물을 얻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호소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의 왕국을 그에게 보여 주고 예수에게 그를

예배한다면 그것을 모두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태복음 4 : 1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피하려 한다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인내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는 그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감정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마태복음 21 : 9)라는 외침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마가복음 15 : 13) 하고 외치는 소리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로마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모욕과 신체적인 학대를 참아 내셨습니다. 그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그는 모든 인류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인내로 내게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중에서 내가 말씀드린 위대한 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반대와 장애물을 겪게 될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올바른 길을 지켜 나가고자 할 때 극복해 내야 할 문제점과 시련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가장 중요한 시련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몰래 당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복음 원리를 배우고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보를 보장해 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 교회를 관리하십니다. 나는 그를 섬기는 일을 하며 그의 신성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 말일에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들은 그의 감동적인 권고의 말씀에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정도를 지나쳐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영원한 결과를 미칠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학생 시절에, 나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 활동에 즐겨 참여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하는 데 결코 전문가가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관심이나 운동에 참가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니다. 나는 특히 육상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장애물 경기와 투포환과 원반 던지기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뒤의 두 경기는 참가자가 경기장에 그려진 원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 던져야 했습니다. 출전자가 원반이나 투포환을 던질 때 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시험에서 측정되는 거리로 그의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발이 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노력은 반칙으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기에는 세

번의 예비 시도가 허용되었으며, 다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져 최종 기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서는 선수가 시도할 때마다 반칙을 하게 되면, 그는 시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은 정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나는 최근에 물몬경의 야곱서 4장을 읽으면서 학생 시절의 이러한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기록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간결한 말씀을 경멸하고 예언자들을 죽이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저들이 이렇게 행함에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진지라, 멸망당함이나 땅땅하니니”(야곱서 4:14)

일반적으로, 야곱이 이 구절에서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인 — “정도를 지나쳐” — 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일반적이고 낮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언어권이나 문화권이나 이와 비슷한 관용적 표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야곱이 고대 이스라엘에 흔히 있었던 멸망을 묘사하면서 “정도를 지나쳐”라고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야곱의 표현은 정도(원)를 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것처럼 중요했던 운동 경기에 참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돌이켜 보게 했습니다.

경기자가 경기장 안에서 혼신의 힘과 기술과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그가 원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의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된 백성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매혹되어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간결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온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그들에게 전해 준 궤변과 속물 근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중함의 정도에서 멀리 지나쳐 있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복음 진리의 원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근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가로막은 공론적이며 이론적인 것에 깊이 빠져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열이 빠지게 되자, 참된 메시아의 구속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혼동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야곱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정도를 지나”치게 되는 문제점에 당면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그와 준 사람들에 관해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울림에 대한 다름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디도서 3:9)고 권고했습니다.

디모테에게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테후서 4:2~4)

그보다 앞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롭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디모데전서 1:4)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데서 현재의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몇 가지 사항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도 생활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전에 대하여 쓴 비평과 비판에 대하여 보다는, 경전 자체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그 일에서 나는 내가 이러한 것은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에 합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으려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룰대로 이야기하나니, 우리들 영육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야곱서 4:13)

나는 제이라해플라 도시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보다 레이맨인 사뮤엘이 그 도시의 성벽에서서 사악한 니파이인들에게 회개하기를 외쳐 권고한 말을 이해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첫번 시현에 대하여 처음 말씀하신 중에 나타나신 기록하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과 예언자로서 행한 그의 노력의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성임받은 하나님의 신권 직분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 기록한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난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을 덜 갖겠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그의 생애에서 보여 주신 인간 권세의 완전한 본보기에 대해 계속하여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는 모범을 본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자신의 선입견을 발표하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는, 해결될 수 없는 사상과 의문으로 그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나는 학문에 대한 건전한 욕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수준에 이르려고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왼쪽)이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을 영접하고 있다.





하는 건전한 욕구를 억누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이제까지 쌓아 올린 확고한 신앙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신앙을 계속 키워 나갈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투포환을 더 멀리 던지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는 연습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때로는 특별한 기술을 연습하다가 원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새로운 기술도 내가 정작 시합에 나가서 정도를 지나치지 않고 원 안에 완전하게 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대체로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것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못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간단한 실례와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유용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지나치는 수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도 비록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신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정과 지위와 권능을 얻기 위한 현세적인 욕망에 우리의

관심과 정력을 너무나 많이 집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영적인 복지와 훌륭한 가족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과제의 제한된 속성에 너무 깊이 빠져 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영향력에 감사하는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부여받은 은사와 재능을 향상시키는 데서 오는 충족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주님을 알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양한 요구와 우리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영원한 결과를 미칠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어 정도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윤리학과 정직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탐욕과 허욕으로 인해 이 나라의 헌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윤리적 및 도덕적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와 영적인 구원을 다 같이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과 기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구해 왔습니다.

제임즈 피터 푸갈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대부분을 아이다호의 구릉지에서 자신의 양과 다른 사람의 양을 모는 데 보냈습니다.

혹심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은 그 습성대로 울타리 모퉁이에서 떼를 지어 있었으며,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주변의 목장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날씨 탓으로 그날 밤에 많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은 것이 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임즈 푸갈은 책임을

느끼고 양 주인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 후 여러 해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개척 시대의 경전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척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도덕적 명예와 책임감에 관한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를 소망한 것은, 평원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의 초등학교 조직을 창설한, 오렐리아 로저스에게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의 도덕적 성품과 사회적 발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렐리아 로저스 이후로 초등학교 지도자들은 합당한 지도자들로 입증되었으며 선행과 덕성 및 서로 사랑함을 가르치는 한편 전통적인 가치관을 이해하고 생활하기를 소망할 것을 심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헤이트 자매와 나는 우리 집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워드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성찬을 듣고 난 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정직한 것을 믿는다”라는 주제로 된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근본 원리, 진리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해 주며, 신임받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 서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놀라왔습니다.

나는 겸허한 양치기인, 제임즈 푸갈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그로 하여금 것처럼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한

똑같은 가치관을 이 어린이들도 가르침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도덕적 영적인 가치관을 강조한 사려깊고 시의 적절한 초등학교 발표를 즐기는 동안,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합중국의 헌법의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으로서, 각기 상당한 면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외에도, 두 가지가 다 그 신성한 목적이 실현되려면, 정직하고 유덕한 구성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건국과 존립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화국을 설립한 사람들의 노고를 후회해 주셨습니다. 헌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 아침 벤슨 대판장이 언급한 제임즈 매디슨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경건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공화국의 설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헌법에 전능하신 분의 손길에 그처럼 자주 분명하게 미치셨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페드럴리스트, 제37호, 뉴욕, 모던 도서관, 231페이지)

둘째, 시민의 의로운 행위와 모범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군인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알렉산더 해밀톤이 가장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사회가 실제로 반성과 선택으로 훌륭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헌법을 사건이나 무력에 영원히 의존하는 운명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결정짓는 일은, 이 나라 백성들의 행위와 모범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페드럴리스트, 제1호, 3페이지)

이 새로운 국가가 참으로 독립된 공화국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중요한 인간의 속성은 모든 인간을 위한 정의의 사회에 살기를 희망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 준 백성들에 의해서 명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새로운



국가와 마찬가지로 회복된 복음도 그와 비슷한 품위와 행위를 지닌 인간들이 아니라면 견디어 내기 어려운 것임을 인식하셨습니다.

1842년 3월에 요셉 스미스는 시카고 신문 편집자인 존 웬트워드씨의 요청에 의하여, 신앙개조로 알려진 열 세 개의 간단한 성명서를 썼는데, 그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 몇 가지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에서, 예언자는 이처럼 영감적인 행위 규범을 썼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많은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훌륭한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인류와 함께 공정하게 거래해 나가기로 다짐한 백성을 얼마나 영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국가를 세워, 존속시켜 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백성의 형태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상의 국민에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자유 세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 위에 우리 사회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신앙과 성실성을 갖춘 온 세상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유와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만 정직과 성실성과 같은 가치관이 번성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도록 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신문 보도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도덕적 품위의 쇠퇴와 기본적인 윤리 행위의 부패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소한, 어린 아이것 같은 도적질이나 거짓말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의 거대한 사기 횡령 및 착복에 이르기까지의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에즈라 테프트 밴슨 대관장으로부터 대회 모임에서 따스한 영접을 받고 있다.

부정적의 부패한 영향력을 말해 줍니다.

헤드라인이나 특집 기사는 가족 관계, 사업상의 업무 및 정부 관리와 성직자들의 행위에서 정직과 성실성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잡지의 커버 스토리 제목으로 “미국내의 거짓말”(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87년 2월 23일) 및 “윤리학에 발생한 것”(타임스, 1987년 5월 25일) 등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지혜와 용기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대중적 덕행은 결코 거짓말할 줄 몰랐던 사람으로 우리가 즐겨 꼽는 조지 워싱턴과 “정직한 에이브”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지도자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정치 현장에서 더욱 큰 대중의 이익보다는...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부 관리들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헌법의 창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정한 한계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연방 관직에서 쫓겨나 감옥에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찰스 에이 페리, “미국 헌법에 묶인 종교적 가설,” 테저렛 뉴스, 1987년 9월 27일, A-19페이지)

도덕적 가치관이 쇠퇴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사회가 “상황 윤리”라고 하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믿을 수 없는 도덕적 행위 규범을 만들어 낸 데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과 악을 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너희는...도덕질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 : 15)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규범인 “말지니라”로 선언된 것에 직접 대치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갤럽 여론 조사는 미국인의 대다수가 학교 당국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와 생각하기,



쓰기와 센하기를 가르쳐 주고 일생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나갈 옹고 그림의 표준을 향상시키도록 도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옹고 그림의 문체를 피하고, 중립을 지키거나 또는 어린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관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무엇이 옹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결코 가르침받지 못한 수가 많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주님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확실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순결과...[도덕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대담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가정을 강화함,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73년 4, 7~8페이지)

공공 관리와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성인들도 역시 사치와 여가를 열망함으로써 미혹되어 왔습니다.

절도, 사기, 허위 진술, 어린이 학대, 성범죄 또는 기타 중한 범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황폐한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것처럼 큰 슬픔과 근심과 심지어 가정 파탄까지 생겨나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잡혀지만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는 그릇된 신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속이고도 잡히지 않고 벌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로 한다 해도, 죄를 짓고 형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법밖에 심판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악에 유일한 처방이 있으니...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마크 이 피터슨,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3년 12월호, 110페이지)

우리가 탐욕과 허욕으로 인해 이 나라의 헌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윤리적 및 도덕적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와 영적인 구원을 다 같이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개방된 자유로운 사회가 계속적으로 존립하는 것은 거룩한 영감을 받은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도덕적 행위에 의존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제도과 지도자들을 신임해야 합니다. 오늘날 크게 필요한 것은 공공 및 개인 생활에서 진실과 정직, 품위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대로, 정직은 가장 훌륭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정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는 구세주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기대하시는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시, 살인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주 저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원한을 품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음행을 행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를 행하는 자는 멸망당함이라.

"이 모든 간악한 것들은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는 인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라. 또한 주는...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니파이이서 26:32~33)

지금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이상과 가치관에 재헌납하고 우리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변화시키고 구세주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성역을 마치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옛 것에 비하여 새롭고 더 큰 표준을 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인 그들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만이 아니라, 그들의 몇몇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킬 영적 및 도덕적 규범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직, 진실, 인자, 유덕 그리고 선행을 믿습니까? 이 시험에 우리 사회와 우리 헌법 정부의 생존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길르앗의 유향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불필요한 너무 많은 고난이 있으며 벗어 버릴 수 있는 짐을 지고서 영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이 연단에 서서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날 두 건의 고소가 수습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나 쌍방이 모두 그들이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치르는 댓가에 못미친다는 것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대부분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에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나무의 수지로 만드는 치료제가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주요 교역 물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길르앗의 유향을 애급으로 운반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37 : 25 참조)

그것은 고통을 덜어 주고 고쳐 주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길르앗의 유향은

죄진 영혼을 고쳐 준다요

(오락 노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49년, 130페이지)

지난 번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평안하지 못한 분들에게, 실망과 적대감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 또는 실망감과 죄악감과 수치로 크게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너무 많은 고난이 있으며 벗어 버릴 수 있는 짐을 지고서 영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불운이나 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슬픈 일이나,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스스로 부과한 형벌은 이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자기 학대가 되어 버립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회개가 곧 길르앗의 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기 합리화로 치료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단지 증상을 덮어 버릴 뿐, 결코 원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돌판이 의사 약일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전상의 이익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유혹으로 오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 되어 나가면 — 치밀하게 사태를 관리해 나간다 해도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만 —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온전하게 해줄 “충분한 재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군가가 구약 시대의 희생 양과 같이 그들의 책임을 저 주기를 원합니다. 희생 양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채, 황야에 내버려져 떠돌아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일을 제사장처럼 기꺼이 대행해 줄 변호사를 힘도 들이지 않고 찾아 냅니다. 그들은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엄청난 비용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불케 하려는 의도로, 아무런 공적도 없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의나 보호받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전혀 불명예스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 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노고는 자기 잇속만 차리는 변호사들이 다른 소송의 죄인에게 그 자신의 서약은 명예롭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품위라는 말은 변호사나 소송 의뢰인에 의해 다같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금전으로 인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기나긴 증오의 연속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죄 양이 되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짐을 지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재산이나 금전의 손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벌로서 그것은, 영원한 계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빛의 이자처럼 불어 나옵니다.

나는 어디선가 황무지에 정착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땅을 개간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집안 일을 돌보았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왼쪽)가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과 에즈라 테프트 밴슨 대관장과 함께 있다.

때때로 암소가 뜰로 들어가서, 남편은 불평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필요한 물품을 사러 떠나는 길에 빈정대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당신이 암소를 지킬 수 있겠소?”  
아내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무서운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암소가 숲 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와 보니 빈 오막살이에 사과의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암소가 달아났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찾아 보았습니다. 둘 다 살아 있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말로 그 사건을 끝맺었습니다.

아이들이 흰 날개 달린 새의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은 다시 잡아 당길 수 있지만, 말은 거두어 들일 수 없습니다.

“불조심하라”는 훌륭한 권고입니다.  
“말조심하라”는 열 배나 더 좋은 권고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흔히 사라져 버리나,

일단 말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라도 없앨 수 없습니다.

(익명)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런 일인지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으니, 길르앗의 유힘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부조화와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슬픔 또는 수치심, 시기, 실망 또는 질투심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 비난이나 자기 정당화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 해 전에 어느 축복사가 나에게 가르쳐 준 이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기 드문 성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인 힘을 지닌 항상 평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자나 자기와 다른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나도 여러 차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한 선교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으며, 항상 귀환 선교사 모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늙어서 밤에 운전할 수 없을 때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귀환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평범한 행위가 수천 배로 내게 되돌려졌습니다.

한번은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체험으로 얻은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분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생애에 관한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갖고 교육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래성이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으며, 아내와 그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해산하려는 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단 한 분뿐인 의사는 외딴 곳의 병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시간 진통 끝에, 산모의 상태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상태가 위급함을 깨닫고 속히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곧 모든 일은 손조롭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출생하였고 위급했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젊은 어머니는 아기가 출생한 바로 그날 의사가 다른 가정에서 치료했던 환자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존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고 동시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슬픔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의사가 내 아내에게 병을 감염시켰어. 그가 조심했더라면 내 아내는 살 수 있었어.”

그는 그 밖의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비통해 하는 속에서, 험악해졌습니다. 오늘날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부당한 치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련한 처지에서 단 한 가지 요소인, 돈만을 생각할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와서, “아빠가 오시래요. 말씀할 게 있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란 스테이크 부장이었습니다. 슬픔에 싸여 상심한 젊은이는 그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영적인 목자는 그의 양떼를 지켜 보면서 그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명한 종으로부터 나온 권고의 말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내버려 둬시다. 무슨 일을 하든 아내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이 아무리 발버둥쳐야 일을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그대로 둬시다.”

나의 친구는 이것이 그의 시련이요, 예수님이 겪으신 겐세마네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무서운 잘못이 저질러졌으니 누군가가 그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제하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투쟁하였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그는 순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순종은 강력한 영적인 약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명한 영적 지도자의 권고에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나는 그 가난한 시골 의사가 괴로와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료품도 넉넉하지 못하고 병원 시설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에도

뛰어다니며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 생명을 살리려 애를 쓰던 분이었고 대부분 성공하였지요.

“두 사람의 생명이 저울대에 올려진 위급한 순간에 그는 조금도 지체없이 일을 하였던 것이지요.



“내가 늙은 후에야 결국 그것을 이해하였답니다. 하마터면 내 생애와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망칠 뻔하였지요.”

그분은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둬시다.”라고 권고해 준 현명한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수없이 많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런 원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랄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면, 이 성구를 읽어 보십시오.

“경전에 무엇이든 하셨나 보라. 이르셨으되, 사람을 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말지니, 심판도 나의 것이요 복수도 또한 나의 것인즉 내가 갓으리이다.”(골로새 3:20)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매님, 그대로 내버려 둬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기 위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다만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좋은 효능이 있는 영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것에 지시 사항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내 집 떠나 올 때  
기도했느냐?...

맘에 슬픔 가득할 때  
길르앗의 귀한 유랑  
빌려 왔느냐?

편히 쉬게 하는 기도  
밤도 낮 되게 하니  
어둠 근심 오면 기도  
잊지 말아라.

(찬송가, 121장)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좌절감을 견디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서있게 정돈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돈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서 헤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한 행위로 그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는 하찮은 것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고모님이 여러분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습니까? 성장해서 그러한 일쯤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속상해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정리하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좋은 효능이 있는 영적인 약입니다. 여러분을 노엽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 곧 고쳐 주는 유향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고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층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필요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님, 내버려 두십시오. 자매님,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 내고 달래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구름이 걷히고, 여러분의 눈에서 들보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갖들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5-18)

보혜사가 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심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가 교회의 영국-아프리카 지역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회장 직에서 해임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슬린드 장로님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매리온 디 행스, 윌리엄 그랜트 뱅거티, 로버트 엘 백맨, 휴 더블류 피녹크, 제임즈 엠 패러모어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과 함께 있는 심이사도 평의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이**제 나는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심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심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심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 “여러 가지 은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전시키고 나누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은 좀더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를 재능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혐오감을 느끼고 낙담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질, 지능, 학교 성적, 세물, 권력, 지위 또는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여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공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46편 11~12절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변명”, 플라톤의 대화, 벤자민 조우트 역, 시카고 : 브리태니카 대백과사전, 1952년, 210페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아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 이웃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물론경, 특히 니파이삼서 11장부터 26장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 많은 은사들이 참으로 실제적이며 가장 유용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항상 분명하고 값지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은사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사 중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이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심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재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는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중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 1. 깊이 생각하는 은사

경전을 연구해 보면서, 나는 물론경에 참으로 자주 사용되는 “깊이 생각하라”(ponder)라는 단어에 접하여 느낌을 받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깊이 생각하다”(ponder)라는 의미는 정신적으로 비중을 두어, 깊게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명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내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매 너희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라.” (니파이삼서 17:3)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끝맺으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모로나이서 10:3)

우리는 깊이 생각함으로써 영이 영감을 주고 인도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깊이 생각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우리 마음과 정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은사를 사용하면 이 영원한 진리를 취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벤슨 대관장의 권고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경을 읽고 있는데



처음 읽는 사람도 있고 규칙적인 습관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의 결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발전하는 정신 행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이해력과 통찰력 및 실질적인 응용력을 얻게 됩니다.

## 2. 하나님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은사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기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자주 “나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거나 들습니까?

우리가 단지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 곧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입니다. 힘과 위안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율법ियो,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진대 너희가 살 것일 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니파이삼서 15:9)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경전에 자주 주어진 훌륭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한다면 그의 자녀들에게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게 됩니까? 우리들 중에는 동료들의 약점을 찾고 지적하기를 더 좋아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사로서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위안이며 축복입니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능력은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 비례하여 증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좀더 가까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강요받지 않고도 봉사하며 생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 3. 작은 음성을 듣고 이용할 수 있는 은사

작고 고요한 하늘의 음성이 부드럽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서로 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요. 비록 작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 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니파이삼서 11:3)

흔히 희망과 용기와 가르침은 부드럽지만 마음속을 파고드는 음성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작은 음성은 가까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듣게 됩니다. 동료들과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귀중한 우정을 맺어 줍니다. 감명을 주고 확신시키려 할 때 음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쟁을 하며 소리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음성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듣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 작은 음성은 얼마나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요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하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요셉 스미스서 2:17 참조)

“잠잠히 있어...알라”(교성 101:16)고 말씀하는 작은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은사 중의 하나는 우리 생활을 인도하고 강한 간증을 갖게 해주는 성신의 작은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 4. 진정시키는 은사

다른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다투는 대신 진정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본분의 아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니파이삼서 11:29)

다툼은 악마의 도구입니다. 평화는 구세주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묘사할 때 점잖고 단정하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찬사입니까!

다툼은 발전을 막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다툼이 만연하면 단합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교성 136:23)

다툼과 논쟁은 조용한 토론, 연구, 경청 및 협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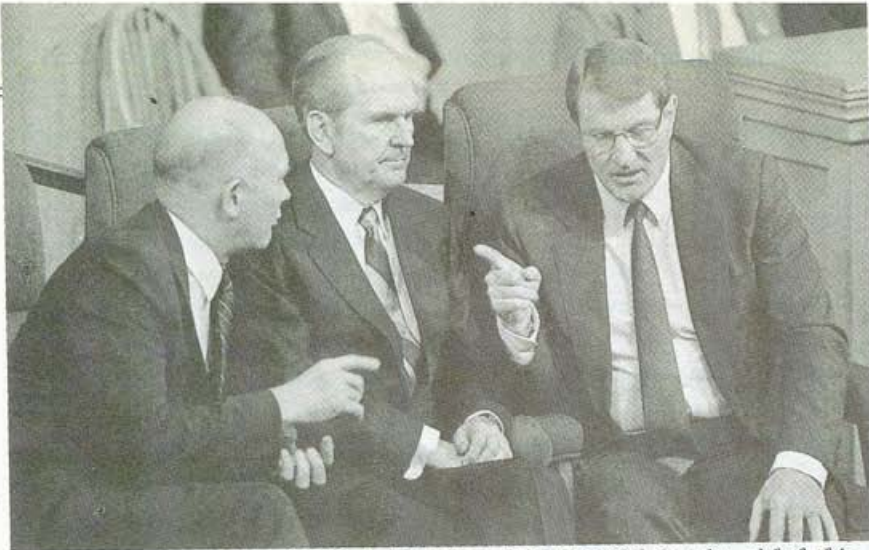
복음은 조화이며 단합이며 일치입니다. 복음은 조용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다툼이 일어나면 정연한 발전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며, 우리의 확신을 굳게 지키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신념있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만큼 중요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대해 교묘하게 본질을 부채질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용당해서는 안됩니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들구어 서로 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니삼 11:30)

“서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모사이야서 2:20) 진정시키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화평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십이사도 평의회의 세 사람. 왼쪽으로부터: 댈런 에이치 옥스 장로, 러셀 엠 넬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5. 돌보는 은사

우리는 돌보아 주는 가족, 친구 및 조직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생을 보다 편안하고 의미있게 해줍니다. 그들 또한 올바른 이유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돌보는 데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이든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돌보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야서 2:17)

우리 구세주는 그의 모든 양을 돌보십니다. 돌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쏟게 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보여 준 조용한 돌봄에 관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솔트레이크 벨리에서 있는 와드 25주년 기념 재회 모임에서 “가장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활동실에서 가진 특별한 저녁에는 식사와 훌륭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난 25년 동안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와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특별한 상을 시상하기 위해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약 190센티미터

정도의 키에 90킬로그램이 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와드에서 가장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참석한 사람들의 머리에는 과거의 소년단 지도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이 와드에는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상할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키가 크고 잘 생긴 이 청년은 왕년의 소년단 지도자들의 많은 이름을 언급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두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들입니다만 이분들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와드의 ‘가장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상은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소년단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소년들을 가르쳐 오신 어떤 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분은 소년단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실버 비버 상(Silver Beaver)과 소년단에 관해 교회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실버 비하이브 상(Silver Beehive)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상은 제니 벨 키퍼 자매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 환영과 박수 갈채가 끝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퍼 자매님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녀를 지켜 보던 모든 참석자들이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방 뒷편에서 이 반백의 자매님이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오는데 신장이 약 150센티미터 쯤 되어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컸습니다. 뜻밖에 상을 받은 자매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하면서도 감격적인 그리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한 지 채 40년이 안되며 37년간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키퍼 자매는 그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결코 나쁜 소년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시상할 맡은 사람이 키퍼 자매님에게 배웠거나 보살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단상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과 소년들이 청중들로부터 나와서 이 작은 자매님 뒤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 사람, 정장을 한 사람, 의사, 감독, 회사 사장, 남편, 아기를 안은 아버지, 귀환 선교사, 건축가, 컴퓨터 기술자, 치과 의사, 목사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년단원들은 와드 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인 이 숭고하고 위대한 한 자매님의 봉사와 보살핌에 영향을 받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돌보는 은사를 지녔으며 그녀의 수고의 결실이 여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하신 일로 인해 두고 두고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돌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은사를 지닌 것입니까!

“각 사람에게는…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교성 46:11) 이 말씀은 참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여러 은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발전시키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전시키고 나누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때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좀더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나의 간증과 개인적인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주님께 봉사함

더글라스 제이 마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부부 선교사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과 성취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년 전 연차 대회에서 김볼  
대관장님이 가족을 다 다양한  
사람들은 아영용 차를 팔고 손자  
손녀들을 남겨 두고 일년이나 이년 동안  
선교 지역에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는 자극을 받아 뉴질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볼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내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정보다 좀더 일찍 은퇴하여  
1987년 4월 내가 육십 세가 될 때 이  
일을 하도록 준비할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잠자코 듣더니  
우리가 원하는 일을 찬성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는 3~4년 후의 일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일러 두었습니다.

1987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간 꿈꿔 오던 많은 즐거운  
일들을 할 여러 달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말경 어느 날 나는  
전화 부름을 받았고 결국 4월에 예정된  
은퇴 일자보다 일찍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는 여러 나라에  
우리와 나이가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작고 조용한 소리...(니일  
17:45)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음성이 주어질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신  
다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을  
신뢰하라.”(교성 11:12)

이제 나와 내내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및 괌  
군도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우리는 봉사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 열 두 시간  
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갔으며  
뉴질랜드 양으로부터 라푸 라푸(lapu  
lapu)라고 불리는 예쁜 물고기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날씬하고 검은 머리의 필리핀인  
스테이크 부장을 만났는데 그는 조용히

“저는 마틴 장로님과 동갑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도착한 후 곧  
북쪽으로 약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첫번째 스테이크 회회를 갖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우리는 그  
많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가난한  
생활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도시에 있는 한 조그만 호텔에  
투숙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많은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우리의 영은 고양되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에 흠없는 드레스와 눈부시게 흰  
샤쓰를 입은 성도들이 손을 내밀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나 외인들이 아니었으며 이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었으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었습니다.(엡 2:19 참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의 경험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 늘어난 사람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수줍은 듯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팔을 잡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양 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소만 주고  
받고 지나쳤습니다. 내가 다시 이 젊은  
자매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지난 18개월 이내에 마닐라  
성전에서 결혼한 부부로서 말씀을 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말씀을  
할 때 나는 그녀가 손이 없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리 한 쪽도 의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이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생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단지 불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젊은 자매는 선교사 임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녀는 마닐라 성전에  
결혼하기 위해 간 것에 대해 아름다운  
말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씀에는 교회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려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의 여자 친구에게 선교사가 된 후 이게 월째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편지를 썼으며 그가 귀환했을 때 마닐라 성전에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얼마나 원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 결혼의 의미와 축복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 갔습니다.

그들이 대회를 마친 후 그들의 아기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젊은 남편과 아내가 이룬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누가복음 11 : 28)

그 이후로 우리는 필리핀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부부 선교사를 만나는 곳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서 온 존슨 부부는 멀리 떨어진 비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받은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비간에서는 물소와 삼룡차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존슨 부부는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부부 선교사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겸손함과 필리핀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해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그들 생애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손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덟 명이라는 우리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열 여섯입니다.” 또는 “스물 셋.” 또는 “스물 일곱 명입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대부분 또한 “아직 보지 못한 손자들이 두 명 있지요.”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손자들을 그리워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귀환해서 함께 모일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헌신적인 필리핀 성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모든 부부 선교사들은 그들 생애에서 새로운 목적과 성취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편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  
“보라, 발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3~4절)

나는 가족을 다 부양한 부부들이 준비하여 선교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영의 속삭임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로 인해 내 생애와 가족의 생활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왼쪽)와 평의회 일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아프리카에 새 날이 동틀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이 퍼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위대한 표명이며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며  
경전 또한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사 10:32)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산 자나 죽은  
자 모두—그리스도에게 나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도록”(모로나이사  
10:30) 권유하고 격려하며 도와 주는  
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너희의 죄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게 하라 하시니라.”(니파이삼서 30:2)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성스러운 목적으로

인해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그의 선택된  
사도들에게 성신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사도행전 1:8)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구절은 수주  
전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이신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을 모시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광대하고 푸른 땅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특권을 받고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쉬튼 장로님은  
거룩한 사도직의 권능으로써 서부  
아프리카의 두 나라인 리베리아와 상아  
해안과 중앙 아프리카의 한 곳인  
자이레를 주님의 사업과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했습니다. 그 지역 백성들도  
그리스도에게 데려 오는 위대한 사업이  
이미 시작된 소위 “검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확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새로운 날이 동트고  
신 기원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도였던 팔리 피 프렛은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지으면서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대한 영광스러운  
시현을 시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은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찬송가, 222장)

그 가사는 참으로 아프리카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참으로 분명하고 밝은  
섬광과 같이 그 고대의 대륙과  
백성들에게 장엄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며 죄의  
그림자를 쫓으며 이 “미지의 대륙”에  
오래 계속되어 온 미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다른 말로 표현된 엘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께서 영의 은혜를 온 땅에  
내리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음이라. … 저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어,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게 되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시었고,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나무  
가지처럼 주 저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엘마서  
16:16-17)

우리의 검은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은  
참으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갈망하며 이해가  
빠르고, 경청해 듣고 반응이 빠르며,  
영적으로 민감하며, 생수에 목말라  
있고,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위해 오래 준비해  
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대가로  
고통과 역경, 시련과 슬픔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 겸손한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은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매우 가난하고  
기근과 흑사병이 그들을 따라 다니며  
정기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고용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행복하고 관대하며 사랑스런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면 온 가족이  
먹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장 신분이 낮은 아프리카 농부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잊어버렸으니, 그것은 바로 어떤 사회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개척자들의 유산에 당연한 긍지를 갖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용기있는 개척자들로 큰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면서도, 교회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개척자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아프리카의 구석구석마다 충실한 외국인 교회 회원들 즉 그곳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말일성도로서 믿고 행동하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출신입니다.

나는 그들이 우연히 그곳에 있게 되지는 않았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방대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부"와 "유도"(니파이일서 21:23)로서 봉사하기 위해 교회의 개척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훌륭한 선교사들이 그들과 합세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에서 온 은퇴한 부부들로서 교회 경험이 풍부하고 대단한 모험심과 희생 정신으로 봉사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할 더 많은 부부 선교사의 필요성은 절실하며



십이사도 평의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왼쪽)와 델런 에이치 옥스 장로

그러한 봉사에 대한 대가는 숭고하고 영원합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이 퍼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위대한 표명이며 간증입니다. 니파이인 예언자 암몬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피 주심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께선 그의 백성을 낳ალი 헤아리시고, 그의 자비로우심은 온 세상에 임하시느도다."(앨마서 26:37)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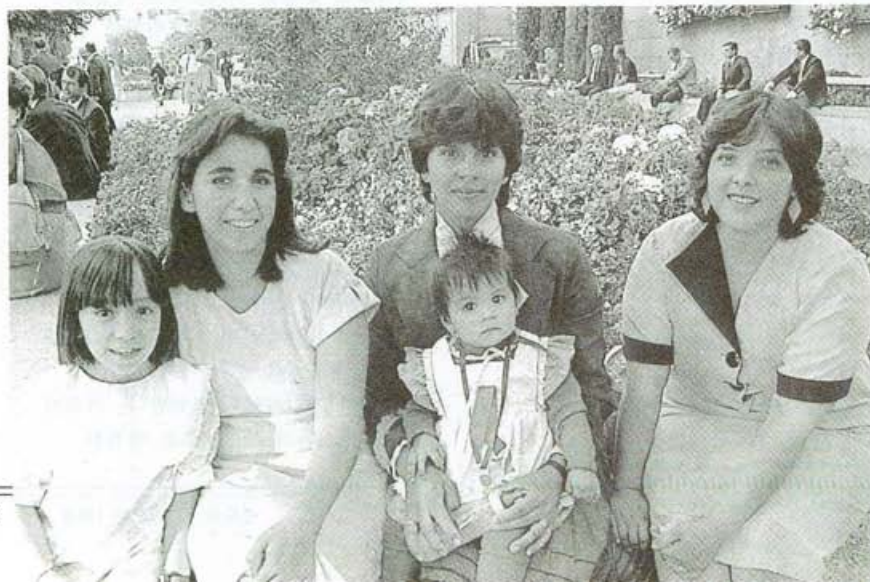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니파이는 "보라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보시나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나"(니파이일서 17:35) 이는 "주는 인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리라. 또한 주는 범사를 인간들에게 간결한 뜻으로 행하시며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니파이일서 26:33)"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는 주의 자녀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시며 주님의 양을 헤아리시리니 양들이 그를 아느니라. 한 우리가 있고 한 목자가 있으며 주께서 그의 양을 먹이실 것임에 주 안에서 초장을 찾으리로다."(니파이일서 22:25)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합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온 나라를 덮고 모든 귀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한 여호와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청소년의 참피온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기는 아론 신권 사업을 완수하고 달성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1968년 상호 향상회 6월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은 “지도자-청소년의 참피온”이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의 상호 향상회, 1968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은 이후로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참피온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방한화를 신는 것을 도와 주던 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납니다. 그 방한화는 학생이 신는 신발보다 작은 것 같았습니다. 교사는 무릎을 꿇고 신발 한쪽을 밀고 당기고 하여 마침내 신겨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애를 써서 결국

다른 한쪽도 신겨 주었습니다. 교사가 양쪽 다 신겨 주자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한화는 내 것이 아니에요.” 교사는 신발을 잡아 당기고 애를 써서 벗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동생 것인데 엄마가 나에게 그걸 신으라고 하셨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부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과 일하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핀란드에서 있는 소년단 야영에서 그들은 내가 사우나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나를 170도 내지 180도 되게 뜨겁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인 소년단원들과 함께 나를 가르쳐 주던 울리 로토 스테이크 부장은 자작 나무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자 그는 자작 나무잎 다발을 들어 내 등과 가슴 및 다리 등 온 몸을 두들겨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지요.” “그런 것 같군요.”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발트해로 뛰어내려가 물에 들어갔다 다시 사우나로 갔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과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고 말 안듣는 청소년들을 둔 부모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들을 완전히 잃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그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여러분의 보호에 맡기시기 오래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르고 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한 것에는 자비로우십니다. 온전히 알 때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가장 훌륭한 종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며 무한히 더 많은 사랑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좁고 한정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구원하는 권세에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페이지)

리 장로님은 그의 말씀에서 호레이스 만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는 소년들을 위한 규모가 큰 학교를 헌납하도록 부름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인 이 학교가 단 한 사람의 소년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비용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열이 다 식었군 그래. 단지 한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곳에 들인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 호레이스 만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친구. 만약 그 한 소년이 내 아들이라면 그러한 돈을 들이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닐 걸세.’”

그런 다음 리 장로님은 힘있게 그리고 감정을 넣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그 한 소년이 내 손자 중의 한 사람이라면 그 돈이 결코 너무 많은 것은 아니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들 중에는 고집이 세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장난을 좋아하며, 다루기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위험한 연령이었을 때 나를 도와 주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위험한 연령에서 그들이 비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지도자-청소년의 참피은, 3페이지)

오늘날의 청소년은 훌륭합니다. 유타 남부 지역 회장단의 엘 톰 페리 장로와 청녀 회장단은 최근에 솔트레이크 지역에 있는 모든 세미나리 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청소년들이 태버나클, 어셈블리 홀 그리고 솔트 팰러스 강당을 가득 채웠으며 4,000명의 젊은이들이 템플 스퀘어 마당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있는 메리오프 센터에 23,000명, 디사 대학교에는 3,200명, 스노우 대학에는 3,000명 이상이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 인원수는 등록된 5,000명의 세미나리 학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현대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진신 감주를 입고 진리를 위해 나아가며 훌륭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 부도덕과 마약과 방종에 대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오늘날 지상에 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복천년 통치 전의 마지막 왕국 사업을 위해 이 특별한 영들을 마련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이 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성취할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예복처럼 “영원하게 부풀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모세서 7:41) 이 세대는 그들의 선배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악마로 인한 고통과 유혹으로부터 잠시 휴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는 거의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만 주님을 믿는 그들의 위대한 신앙으로 필요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의 동년배 친구들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1898년에 있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의 사업에 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시길 부활할 때 대리



십이사도 평의회 의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왼쪽)와 엘 톰 페리 장로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사업을 행해 준 사람들의 발에 엎드려, 그들의 발에 입맞추며 무릎을 잡고 가장 극진한 감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세대를 구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사업으로 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이와 같은 느낌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한 약속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엘마서 26장의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폭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폭풍이 물러올 때 한 곳에 단합하여 저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리니, 원수들이 저들을 움직이려 하나 아무리 사나운 바람으로도 쫓아 내지 못하리라.

“보라 저들은 추수하시는 주의 손 안에 있어 이미 주의 것이라. 마지막 날에 주께서 저들을 들어



올리시리라.”(6~7절)

이 세대는 선택된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캐나다 앨버타의 레이몬드에 있었습니다. 데비라는 아름다운 십대 소녀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 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의 한 친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꼈으나 그녀 친구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도회가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그녀와 춤을 추었으며 그녀를 부추겨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잘 생기고 인기도 좋았으며 자신의 신앙대로 생활했습니다. 나는 그가 육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지혜의 말씀을 지켰으며 충실히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확고한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하는 대로 했으며 어디든지 그를 따라가려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지닌 사랑과 존경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여자 친구가 아니었지만 참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규적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며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바로 내 친오빠입니다.”

오늘이 서로 그런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교회에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1945년 4월에 해럴드 비 리 장로님은 군에 복무 중인 젊은이들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한 의사로부터 의학 잡지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대부분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결혼 가정 출신이거나 아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소년들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소녀들에 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대회 보고, 1945년 4월,

165페이지)

드웬 영 회장과 아데스 캡 회장과 같은 위대한 여성들을 불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위대한 참피온입니다.

이들은 비견과 이해력을 지닌 훌륭하고 고상하며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거룩하신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성품과 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청녀는 자비, 사랑 및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상스럽고 야비한 것은 그들의 본질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남을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녀는 신권 소유자들이 하는 것을 하도록 예민되지는 않았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역할이 있으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특성은 청남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거룩하게 지정된 역할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합니다. 끝이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젊은 여성은 하나님과 함께 출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생 또는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의 가슴에 아기를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온세상이 뒤라고 말하는 훌륭하고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신권 성임은 남자에게 축복이 됩니다. 어머니가 되는 특권과 신권을 오용하거나 소홀히 할 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청소년들의 참피온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인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청소년을 사랑하며 옹호하며 참피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최근에 교회의 청남과 청녀들에게 주신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말씀은 소책자로 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소책자,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에게, 1986년; 소책자, 교회의 청녀들에게, 1986년 참조)

고든 비 힐러리 부대관장님은 1985년 2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75회 소년단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년의 가슴에 ‘준비를 갖추십시오’라는 영감적인 진리를 심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까? 매듭 묶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듭 묶기는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살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일종의 매듭을 묶는 것으로 압력을 가하고 잡아당기더라도 묶인 채로 풀리지 않을 매듭을 묶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실패 즉 잡아야 할 때 풀린 매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직업, 사업, 결혼에서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올바른 이유와 올바른 경우에 올바른 매듭을 묶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은 준비를 갖추는 한 과정입니다.”(소년단 프로그램, 1985년 2월 10일)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전생애 동안 청소년들에 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는 미국 소년단 집행 위원회 위원입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말씀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뛰어나 소년이며 뛰어난’이라는 그의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참조)

내 훌륭한 친구인 도널드 다우들이 수십 년 전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의 젊은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이 막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스테이크의 나이 많은 축복사가 회중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마스 몬슨은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으로 몬슨 부대관장은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어 수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뛰어난 청소년의 참피온입니까?

그 위대한 미국인 철학자 요기 배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두수가 훌륭한 타자보다 더 나으며 반대로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느 장소에 가 있는지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나는 로드 베이든 포웰이 하늘로부터 젊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니도록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또 다른 참피온이었습니다. 그는 전세계의 소년단들에게 소위 고별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단 여러분:

“여러분이 ‘피터 팬’ 연극을 보셨다면 해적 두목이 죽게 될 때 그가 원하는 모든 말을 할 시간이 없을까봐 항상 자신의 유언을 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경우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지 않을지라도 며칠 내로 죽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이 즐거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부자가 됨으로 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방종으로부터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한 단계는 여러분이 소년일 때 자신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도록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행복하게 되는 참 방법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깨달은 것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차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조금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으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이 소년기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소년단 선서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인 베이든 포웰”

이제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그리고 오늘 행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의 아론 신권 소유자와 청년들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에 세상의 젊은이들을 인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최막대기는 아론 신권 사업을 완수하고 달성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군대를 거룩한 아론 신권의 집사, 교사, 제사로 정렬시킬 때 교회에서 이전에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숫자는 막강합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한 사업을 제외하고 이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바로 여러분이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초기 형제들이 세상에 나아갔던 담대함에 놀랍니다. 그들은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 그 이전에는 간과되었거나 무시되었던 복음을 전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품위있고 명예롭게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가슴엔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1974년 4월 4일,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

나의 충실한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용감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품위있고 명예롭게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가슴엔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암몬이 한 것과



같이 의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드리리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리니, 우리의 기쁨이 가득함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보라 누가 감히 주께 너무 영광드린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크신 권능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칭송할 수 있다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엘마서 26:16)

나는 더 영광스런 사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듯이 나는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사업을 사랑하며 내 생명보다 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청소년들의 참되고 충실한 참피온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할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청년들인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속죄해 주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와 병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 잘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도 참으실 수 있습니다.”



**요** 한과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와 무수한 세계에 관해 기록한 것을 회복된 복음은 “수없는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엄숙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서 1:33, 요한복음 1:3, 히브리서 1:2, 11:3, 교성 93:10 참조) 이러한 복음 진리는 조그만 은하계의 코트머리에 있는 작은 모래알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깊은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충분한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거대하고 목적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지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그 주민의 이야기만을 내게 들려주노라. 보라, 없어진 세계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도 많도다. 이들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로되 내게는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이들을 알고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서 1:35)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계시받은 예녹은 하나님의 방대한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라고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모세서 7:30; 예레미야 10:12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확신은 우리 생활의 어떤 경우, 어떤 때든지 우리 모두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개개인의 모든 경험에 관여하고 계시니다. 그분이 지배하시는 방대한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세서 1:35; 요한복음 10:14 참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외에 공의와 자비에 관한 그의 완전한 성품을 포함하여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거역하며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세에 관한 믿음은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할 자유 즉

실수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때 더 쉽게 갖게 됩니다. 그의 계획에는 실제적인 시험과 고통과 참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서 6:31 참조) 예녹은 또한 인간이 처할 상황을 보고 눈물흘렸지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어 즐거워 하며 바라보라.” (모세서 7:44) 만약 예녹이 보지 않고 영적으로 가르침받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이 처할 상태를 위대한 진리와의 동떨어지게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녹의 “왜?”라는 의문은 응답받지 못한 절망의 외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녹은 처음에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서 7:44)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절정의 시기에 메시야가 오심과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예녹은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서 7:31)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의미 심장하게 예녹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애정도 없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서 7:33)

우리 또한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게 되는 비참함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그릇되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는 예녹과 같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의 성품 및 계획에 관한 진리를 바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그 자신과 그의 계획에 관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 대신에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사야 28:10) 주실 때 더 많은 것을 당장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주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주셨던 것과 같이 경전의 말씀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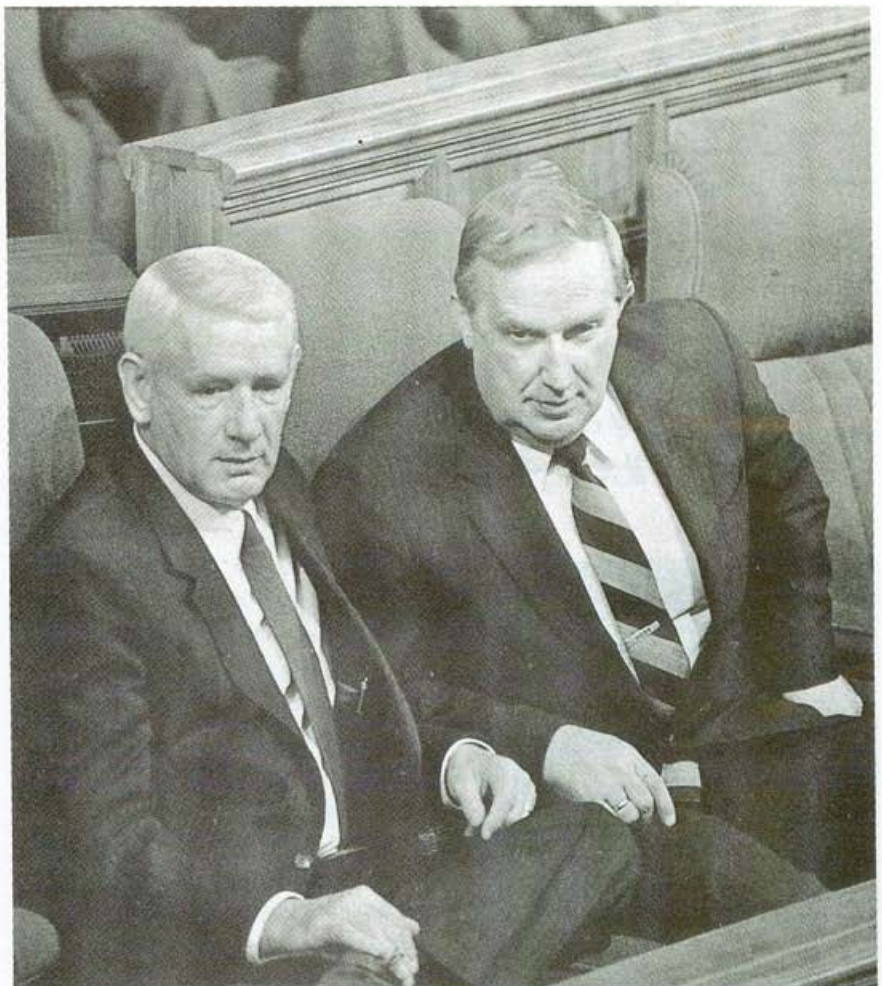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시고 손을 펴시며) 보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시고 손을 내 눈에 대시니, 주께서 친히 만드신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은 내 눈 앞에서 불어나 드디어 그 끝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아브라함서 3:12)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위엄과 권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교성 88:47 참조)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든, 혹은 들에 핀 백합이 솔로몬의 화려한 의상보다 더 낫다는 묘사를 하든, 그러한 하늘에 관한 묘사와 화려한 의상과 꽃과의 비교를 하는 데 있어 창조주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마태복음 6:28~29 참조)

예수가 사실상 메시아였음을 직접 알게 된 첫번째 사람은 의로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고 놀라와 했습니다.(요한복음 4:29)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녀의 삶 속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특정한 물고기 떼를 걷어 올리기 위해 어디로 그물을 내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1:6~8 참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며 사무엘, 막달라 마리아, 사울 및 요셉 스미스를 부르셨습니다.(사무엘상 3:4; 요한복음 20:16; 사도행전 9:4; 요셉 스미스서 2:17 참조)

그는 그러한 조용한 방법으로 위대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의 존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다소 거친 방법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진리가 “마음 한 복판을 찌”르는 경우로(니파이일서 16:2) 이는 영적인



침실인 제일 정원의 회장단의 두 사람, 왼쪽으로부터, 딘 엘 라슨 및 리처드 시 스코트 장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교만이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또한 참되기도 어려운 말씀이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닫혀 있는 마음을 열 때도 그곳에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로는 한 개념을 숙고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한 생각에 얽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만이 저희 목걸이”가 되는 경우입니다.(시편 73:6)

주님은 참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포함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곳에도 계십니다. 야렛의 동생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이더서 2:14 참조)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꾸짖지 않으시면 부주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꾸짖음을 받은 야렛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이더서 3:13~16 참조)

하나님은 이 지구의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말일에 싸움을 하리라 하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내다보지 못하고 겪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 되십니다.(이사야 14:26) 그는 또한 귀중한 상층토의 불필요한 침수 작용으로 인한 모든 가공할 기근도 예견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도 예견하셨습니다. 그는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여러 대륙의 이동으로 인해 말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지진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셨습니다. “악인은...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이사야



57:20)고 유추해 내신 그는 또한 말일에 어디서 그리고 언제 이 바다의 해일이 "경계를 넘어"(교성 88:90) 그들을 거칠게 몰아붙일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및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목적은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보라 주의 사업은 놀라움과 위대하시며, 주님의 오묘하신 뜻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인간은 도무지 주님의 행하시는 바 만 가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지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보지 말지니라."(야곱서 4:8)

인간들의 궁극적인 의문은 사물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목적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통합되고 질서 정연한 진리로서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를 대로" 이야기해 줍니다.(야곱서 4:13)

마땅히 우리는 "날로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데(엘마서 34:38) 이는 "...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들의 움직임과 그밖에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많은 별들도 절대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엘마서 30:44)

계다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니라."(니파이서 11:4)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적당한 공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베냐민 왕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21)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보존"해 주십니다.(21절) 그가 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익한 중"(21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익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계속 그곳에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봉사는 전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의 계획을 제시하셨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자발적이며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그리고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길 원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루시퍼에게 자신의 위치를 찾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으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아브라함서 3:27; 이사야 6:8 참조)

이 구절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은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 주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한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대명사는 대개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는 예수님이 비유로 교만한 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눅 18:9 참조)

오래 전에 "택한 자들이 내[하나님] 앞에서 간청(모세서 7:39)하였을 때 노아 시대의 사악한 자들을 포함하여 "영육"(교성 138:8 참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예상하신 분 또한 은유하며 사랑이 많으시며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모세서 7:39)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며 목자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도록 높은 산꼭대기에 있거나 거룩한 숲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방법으로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곳에도 계십니다.

양심은 초기에 경고를 하거나 마지막 경고를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게 해주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양심은 우리가 거역함으로써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세상에 너무 관여하지 않도록 경고해 줍니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능이 간증했듯이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때를

포함하여 항상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누가복음 22:45)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마태복음 26:40) 없을 때 밤의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임종이 임박해지면 그러한 밤에 병원 복도의 정적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로 정해지”거나 않았거나 이러한 충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성 42:48) 그들은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파루나 홀아비로 지낸 사람들은 회회해져 가는 추억들이 위안이 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때를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8) 그제야 그들은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라고 진정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배우자의 불충실로 인하여 생활이 파괴된 남편과 아내를 버림받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마태복음 11:28)는 예수님의 권유에 응답함으로써 “당신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릇없는 십대를 고쳐 바로잡으려고 애쓰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실망이 끝나게 될 때 “아직도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라는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고통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모범으로 간증해 주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을 위안하고자 하는 데 서투른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위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도 기댈 수 있도록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불안 가운데 오는 특별한 형태의 편안함입니다. 다른 만물이 동요할



때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성 45:26, 32 참조)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일에 그곳에 계시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자니, 말일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의 팔을 폈느니라.”(교성 136:22)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데, 이는 겐세마네와 갈보리에서의 힘든 사건 등을 통해 속죄해 주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와 병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7; 니파이서 9:21; 엘마서 7:11~12 참조) 그는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 잘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도 참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팔을 펴는” 것이지만 그의 구속하는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6:6; 시편 136:6 참조)

그곳에 계시는 그분은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9; 이사야 64:4 참조)

회복이란 그와 같은 하나님, 인생, 우주 및 우리에게 대한 충만한 확신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경이로 가득 찬 대지의 회복에 대해 알아볼 때 첫인상이 별로 확실하지 못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회복의 임무를 마치 전부로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기쁨의 표현을 하다가 무심코 과장하는

일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은 마치 소나무 뉘새를 말으며 큰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돌맹이와 솔방울로 불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에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번 또는 몇 번으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좀더 잘 알게 되면 놀라움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이롭다는 말로 회복을 표현해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더 알게 되면 좀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데, 이는 언젠가 충실한 자는 그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르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장차 세상의 끝날까지의 모든 일이 인간들에게 전하여질 것”입니다. (니파이서 27:11)

모세와 같이 니파이는 “심히 높은 산에” 올라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니파이서 4:25)

예녹과 같이 니파이는 수없는 세상 가운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니파이서 9:10)

“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도다!”(니파이서 9:19)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냐.”(니파이서 9:13)

이러한 훌륭한 예찬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단호하게 나의 간증의 작은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덧붙입니다. 아멘.

# “능숙한 모방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력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이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능숙한 모방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좀더 강해짐에 따라 사탄의 권세가 늘어나는 증거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탄이 더욱 힘을 뻗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반대는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 교활하고 교묘해지겠지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인식하기 위해 더 큰 영성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업에 대한 실망과 방해는 잠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성 65 : 2 참조)

사탄과 그의 비밀에 흥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데서는 어떠한 좋은 일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불에 데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은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339페이지)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사탄과 그의 어떠한 사악한 활동이나 못된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마 숭배의 행위, 마법, 요술, 원시 종교, 마술 및 다른 모든 귀신 숭배의 형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악을...연구하고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8년, 256~57페이지) 사탄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 뒤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마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라.” (엘마서 5 : 40)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 : 11) 고 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세상의 그럴 듯한 가설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유혹과 기만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탄의 방법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나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그의 영향력과 행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사탄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했으며 가능하다면 주님의 사업에서 쓸모가 없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5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 유혹이 얼마나 정당하게 보였는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듣지 않고 느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음성은 자주 매우 합리적이며 그 메시지는 아주 정당화하기 쉽게 들립니다. 그것은 달콤한 음성으로 유혹하며 흥미를 줍니다. 딱딱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칠거나 인짱게 들린다면 아무도 사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의 음성이 불쾌하다면 사람들이 듣도록 유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들의 왕자는 신사다” (리어왕, 3막 4장, 143행) “악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구를 인용할 수도 있지.” (베니스의 상인, 1막 3장, 95행) 루시퍼는 능란한 사기꾼으로 기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여 여러분은 주일학교 반에 참석한 분망하고 소란한 소년들에게 화가 난 교사가 왜 주일학교에 참석하여 괴롭게 하는가라고 물어 본 이야기에 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 중 좀더 뻔뻔스러운 소년이 “우리는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사는 천천히 그 소년에게 다가가 위협하듯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쫓아 낸다.”

몇 가지 이유로 나는 오늘 모든 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사탄이 교훈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고린도후서 11:14; 니파이서 9:9 참조)

사탄이 가장 그럴듯하게 꼬이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야.”, “그것에 관해 느낌이 괜찮다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유혹으로 인해 사탄은 능숙한 모방자, 능란한 사기꾼, 교활한 위조자 및 숙달된 모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부에 자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그릇된 길로 사탄을 너무 멀리 따라가기 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고요한 조그만 음성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자제 기능은 금이 가기 시작하며 멈추게 해주는 제도가 약해지고 무력해지게 됩니다.

어둠의 왕자는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끔 매우 훌륭한 친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욥기 2:1) 그의 영향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로 돌아 여기저기 다니 왔나이다”(욥기 2:2)

니파이는 우리에게 사탄이 작용하는 형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끄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끄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 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 뱀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참심인 제일 정원회 총관리 역원들

되리니.”(니파이서 28:21~22)

대관장단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의 방법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변장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모든 죄를 지으며, 모든 방탕함을 조장하며, 모든 역병을 보내며, 모든 마음을 아프게 하며, 모든 생명을 취하고, 모든 영혼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는 밤에 도적같이 오며 양의 털을 쓴 늑대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즈 알 클라크, 전6권,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5~75년, 6:79)

사탄은 세상에서 최고의 아침가로 웅변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으며(야곱서 7:4 참조) 항상 세상의 강한 세력의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과테말라시 성전의 어니스트 리로이 해치 성전장님이 “악마는 그가 악마이기 때문에 교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늑이기 때문에 교활한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이제 늑었지만, 항상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초에 천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한 천사”였습니다.(교성 76:25) 그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그의 제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고 힘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의 말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일지라도 차지하기 위해 반역을 행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은 힘으로 영광, 권세 및 지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모세서 4:3~4 참조) 그러나 “태초부터 선택된”(모세서 4:2)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2) 얼마나 대조적인 접근 방법입니까! 사탄은 그의 계획이 어긋나자 천군의 삼분지 일을 유혹하여 그를 따르도록 설득했습니다.(교성 29:36; 요한계시록 12:4 참조) 그는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모세서 5:13)라고 말하면서 능숙하게 기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사탄의 힘의 계획에 대한 위대한 대안입니다. 이 위대한 은사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며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움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는 반역으로 인해 쫓겨나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모세서 4:4)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였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권능을 지녔던 이 악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앞에서 내어 던짐을 받았습니다.(교성 76:25 참조) 이 일로 하늘은 크게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여러 하늘이 저를 위하여 울었음이라, 저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니라.”(교성 76:26) 이것은 자신들의 길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이 닫혀”진(모세서 6:49)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책임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길 잃은 영혼들이 다른 길을 찾도록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도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람직하지 못한 중대한 일을 행합니다. 니파이이서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2:11)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

논쟁에서 이기거나 또는 단지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서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열의가 너무 지나쳐서 분별력과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러한 일은 분쟁을 조장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하게 하며, 건방짐으로 인해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좋은 동기가 잘못 전달되어 우리는 친구를

잃게 되며 심지어는 악마의 영향력에 속하게 됩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비난은 당신이 바로 잡으려는 행실보다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우리에게 악마의 수단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편지에서 악마 선생 스크루테일은 좀더 노련한 악마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워우드라는 초년생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것이 너무 사소한 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필시 젊은 모든 악마들과 같이 대단한 사악한 일을 보고할 수 있기를 열망할 것이다. ... 저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면 축적된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은 조금씩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게 되어 무가치한 것에 빠지게 된다. ... 참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점차적인 길로서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편안하며, 갑자기 나타나는 모퉁이도 없고 이정표가 없는 길이다.”(스크루테일 서한, 뉴욕: 맥밀런, 1962년, 56페이지)

시 에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기록했다. “훌륭한 사람은 유혹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다. 유혹에 대항하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다. ...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바람을 맞고 걸으려고 애쓸 때 바람의 힘을 알게 된다.”(단순한 기독교 신앙, 뉴욕: 맥밀런, 1960년, 124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적대자의 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허버 시 킴볼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7년, 132페이지)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력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비겁하여 우리가 굳게 선다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고보 4:7)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지 않는 한 우리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파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함이라.”(니파이일서 22:26 참조)

우리는 코미디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행에 대해 “악마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유혹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지 않은 권능을 지니고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에 대항하는 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거역할 때 사탄이 그 자리에 파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페이지)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영은 그들의 영역, 한계 및 다스림을 받는 규칙이 있습니다.”(교회 정사, 4:576)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면에서 막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범법한 사람에게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쉽게 설득당하는 이 세대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그의 군대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분별의 영에 의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 계신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로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의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에게 "어두움이 없으"리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성 88:67) 사탄의 노력은 복음에 대한 성약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은 이웃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직하고 참되며, 주님의 집에 가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며 그들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따른다면 악마에 의해 속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상에 존재하는 기만, 비참함, 파괴, 혼란, 폭력, 무질서 및 계속 늘어나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힘은 영원한 원리, 성약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의식입니다. 이러한 원리, 성약 및 의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권세 및 권리와 연결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탄의 많은 힘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명령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며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러한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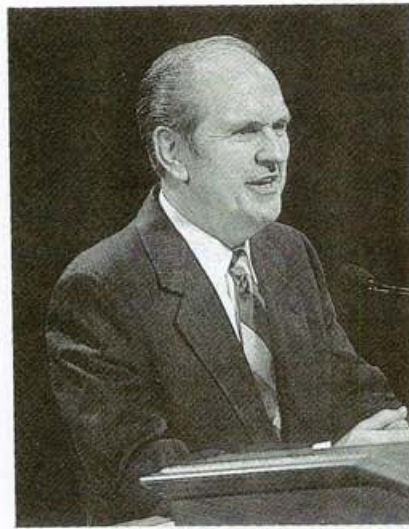
나는 의로움이 널리 퍼져서 파괴자의 악한 손이 멈춰지고 전세계에 비난이 용납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약점 및 많은 단점들을 간과해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받는 자에게 위안을,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 애통하는 마음을 지닌 자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신권 모임 1987년 10월 3일

#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의 잠재 능력이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열쇠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려는 열쇠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열쇠는 값지고 능력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잠거나 열 수 있습니다. 나는 신권의 열쇠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때로는 예비 신권이라고 불리는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 신권 봉사 및 열쇠는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봉사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 합당한 권능을 얻는 데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외과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박사 학위를 두 개 받았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전문 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동안의 준비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승인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주 정부 당국자와 내가 일하고자 했던 병원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합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면허를 내주고 허락을 하고 나면 나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신 나는 법에 순종하고 충실해야 하며 외과 의사의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준비 기간과, 승인 및 그에 따르는 책임은 다른 직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는 더욱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세의 근원과 그 권능을 다스리는 열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를 역사의 세 장 즉 고대, 주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 그리고 현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번째 장—고대

첫번째 장 고대 즉 창조 이전 시대에

있어서의 신권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된 지도자 가운데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서 3:23 참조) 경전에서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미리 아시는 지식에 따라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준비된 계사를 예입하셨다고 말해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신권에 부름을 받은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알려졌었습니다. (엘마서 13:1-5 참조)

우리는 아담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신권의 권세를 받았음을 압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 163~4페이지, 교리와 성약 78:16 참조)

신권의 잠재 능력이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가르침, 153페이지)

브리감 영 대판장은 신권이란 "세상이 존재하고 존재했으며 또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데 필요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1년, 130페이지)

신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사업을 지시하는 능력이 신권의 열쇠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1년 1월호, 230페이지)

첫번째 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둘째 장—주님의 지상 성역**

둘째 장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성역을 배부실 때의 신권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신권의 권세의 범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8; 교리와 성약 128:10 참조)

그러한 약속을 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한 지시에 따라 모세와 엘리야(일라이어스)에 의해 그들에게 신권의 열쇠가 부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1-5 참조)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도직의 부름에 대해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16; 교리와 성약 7:7 참조)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성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무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초대 사도들이 그들의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언된

바와 같이 신권의 권세가 남용되고, 거룩한 의식이 소홀히 취급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셋째 장—현대**

첫째 장과 둘째 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제 우리는 셋째 장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배도가 계속된 후에 신권의 열쇠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의 머리에 손이 얹히게 되었습니다.

성임이나 부름을 주거나 받는 사람들에게 관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자동차에 필요한 몇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트랙터든, 농기구든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구든 여러분의 생활에 사용되는 것에 필요한 어떤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열쇠를 줄 때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열쇠를 주는 나로서는 여러분이 일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즉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안전과 여러분이 사용할 값진 재산에 대한 안전 수칙 등을 적절히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는 자로서 여러분은 열쇠를 소유함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준수해야 할 법칙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구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열쇠를 받음과 동시에 순종과 충실함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원리를 신권의 열쇠에 적용시켜 봅시다. 스테이크 부장, 정원회 회장, 감독은 회장단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열쇠는 그들이 관리하는 단위 조직의 힘을 조정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부름을 주거나 해임을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며 교회의 사명이 달성되도록 하는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임이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순종하고 충실하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교성 84 : 44) 엄숙한 맹세와 성약을 맺게 됩니다.

충실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거나 해임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충실하게 대하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단합을 가져오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4 : 45~46 참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가 이르면 구원받을 것이요, 내가 준 열쇠로 인도되어”(교리와 성약 35 : 25)

신권의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험하게 사용한다면 부모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권의 권능을 남용한다면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 : 37)

신권의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일에 회복된 신권의 성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1820년 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29년에 침례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 27 : 8 ; 요셉 스미스서 2 : 69, 72 참조) 그후 얼마 안되어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27 : 11~12 참조)

후에 주님께서는 요셉과 올리버에게 특정한 신권의 열쇠가 위임된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이 열쇠들을 차례로 부여해 주었습니다.

모로나이 : 물몬계에 관한 열쇠(교리와 성약 27 : 5 참조)

모세 : 이스라엘의 집합과 열 지파를 인도하는 열쇠(교리와 성약 110 : 11 참조)

일라이어스 : 아브라함의 성약(교리와 성약 110 : 12 ;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3 : 109~110 참조)을 위시하여 만유를 회복하는 열쇠(교리와 성약 27 : 6 참조)

엘리야 : 인봉의 열쇠(교리와 성약 27 : 9 ; 110 : 13~16 ; 128 : 21 참조)

요셉 스미스는 모든 열쇠를 십이사도 전원에게 주었습니다. (스미스, 구원의 교리, 3 : 132~134 참조) 그러한 열쇠는 현대의 지도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어느 시대에든지 경륜의 시대를 위임받은 모든 자”(교리와 성약 112 : 31 ; 128 : 18 참조)에 의해 회복된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1984년 4월 12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그들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있었을 때 내 생애에서는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앞의 모든 다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권의 열쇠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각 회원들에게 있어

어떤 열쇠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거나 선임 사도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책임의 막중함과 영원한 신뢰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나는 그 열쇠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교리와 성약 112 : 30) 회복되었음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창세 이전부터 이 책임을 위해 예임되었습니다. (엘머서 13 : 1~5 참조)

감사의 표시로서,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으로 노래 가사를 적어 보았습니다. 역사의 세 단계의 각 장을 묘사한 글이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요약해 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가사는 웨일즈의 곡에 맞추어 쓴 것입니다. 제롤드 디 오틀리 형제의 협조와 남성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에 나는 열렬히 찬양하는 기도의 함성인 고대의 제목 “호산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산나

영원 불멸토록 거하시라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그의 거룩한 이름에 호산나

베들레헴의 그 거룩한 밤에

아들이 인간 가운데 나시었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끝없는 무덤에서 구원하시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그의 거룩한 이름에 호산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 축복하려

그의 신권 능력 회복되었네

그에게 드리는 기도의 노래

기쁨과 찬양을 외치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그의 거룩한 이름에 호산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신권과 함께 신권의 신성한 열쇠를 지닌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분이 맡기신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군요”

글렌 엘 페이스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별의 왕국의 즐거움을 해의 영광의 행복이나 기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제력의 부족을 자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저속하고 낮은 차원의 삶을 원하지 마십시오.”



**오** 늘 이 자리에 모인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러한 청소년 가운데서 억지로 이 모임에 왔거나, 아버지나 신권 지도자의 부드러운 꾸짖음이나 또는 조그마한 뇌물 때문이 아니었다면 오지 않았을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어렸을 때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갈 때면, 우리는 가끔 보우트를 끌고 가는 차를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잠잠해지면서 코를 유리창 문에 갖다 대고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오늘 교회에 가지 않고 수상 스키를 타러 갈 수가 없지요?”

그런 때 나는 약간 비겁하기는 하지만 쉽게 대답해 버리고는 했습니다. “그건 간단하지. 보우트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좀더 양심적이 된 때에는 가족의 축복사로서의 영성과 논리를 다 짜내어 우리 가족이 교회 활동으로 인해 얼마나 더 행복한가를 설명해 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어느 가족이 스노우 스키를 차에 실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이 보았을 때 나의 그러한 설명은 큰 설득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대의 한 아들이 뒷곳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군요. 호호, 아빠” 그 말은 우리 가족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다른 가족이 하는 것을 볼 때면 쓰는 가족의 우스개 말이 되었습니다. 심대의 소년이 멋지고 비싼 스포츠 카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불행한 아이가 또 한 사람 있구나.”

여러분 청소년들은 가장 어렵고 혼란한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해 금지되고 사회로부터 눈총을 받던 활동들이 지금은 바로 그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이러한 활동들을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행을 만들어 내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성향과 욕구에 또래의 압력까지 받고 있는 여러분은 폭발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생명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은 우리 세대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 시현에서 리하이는 세상의 교만과 유혹을 나타내는 크고 넓은 건물을 보았습니다.

“나도... 크고 넓은 건물... 을 보게 되니라.

“그 건물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로 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 차림은 값진 것이었더라. 저들은 마치...열매를 따 먹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형상이더라.”(니파이일서 8 : 26~27)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고 또한 옳은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 크고 넓은 건물로 이끌리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으로 나타난 모습에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귀청을 터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파티를 여는 것을 볼 때 내 아들이 했던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군요. 호호, 아빠”

그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와 보입니다. 그러나 별의 왕국의 즐거움을 해의 영광의 행복이나 기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제력의 부족을 자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억제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는 우리를 자신의 욕구의 노예로 만듭니다. 저속하고 낮은 차원의 삶을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더운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가서 따뜻한 곳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고양이를 밀어 내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곧 어머니가 학교에 갈 시간이라고 말해 줍니다. 밖에 매달린 고드름을 쳐다보면 학교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 따뜻한 자리에 다시 와 앉아 있는 고양이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고양이는 졸리운 눈을 하고 마치 다음과 같은 말이라도 하듯이 나를 쳐다 보았습니다. “글쎄, 학교에 가서 재미있게 지내. 난 인간이 아닌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고양이의 그런 태도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게 되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기쁘고 슬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집에 와서 그 게으른 고양이가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양이가 아닌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크고 넓은 건물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연적으로 슬픔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계명은 무자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누리시 못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열리는 파티에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적인 유모어가 주는 기쁨과 슬취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얼굴에 부끄러움의 홍조를 띠는 우리의 충실한 자매들과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채 스스로의 상실감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과 끌어내리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 방황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는 것과 그 크고 넓은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의 회원들은 지도자들에게 변화있는 회원들의 생활 방식에 맞도록 교리를 수정하도록 많은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은



왼쪽으로부터: 칠십일 세일 정원회의 존 케이 카맥, 러셀 시 테일러, 로버트 비 허버슨 및 디버어 해리스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교회에서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 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회가 원한다 하여 그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중의 지지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위라 하여 그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한 합리화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은 상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예지는 모욕당합니다.

모든 증거가 있는 쉽사리 단념치 않는 세상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청소년이 영적인 훈련을 받은 유치원 과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즉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엘마서 41 : 10)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이미 그의 예언자에게 알려 주신 것을 증명하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스릴과 모험과 감격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감격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한 것을 드리지요.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1000대 1의 숫자로 헤아려짐을 아십니까? 힐라맨의 아들들은 그런

숫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인기있는 의견의 풍조가 거세지고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로부터 조롱이 가증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신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리의 편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1000대 1의 승부에서 시온의 청년들이여,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결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왕국의 청년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자, 감격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의 어떤 스릴과 모험을 구세주께서 오실 때 직접 다스리실 왕국을 건설하는 스릴과 감격과 바꿀 것입니까?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체로 볼 때 성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낙오할지도 모르는 개개인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 선교사의 추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투쟁하였거나 패한 사람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 가운데 하나에 현혹되어 들어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덮여 좌절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린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죄를 통해 여러분이 그 무서운 곳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기적적으로 빠져 나와 인류의 구세주의 사랑과 위안으로 품어 주시는 팔에 안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항상 여러분에게 팔을 벌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없을 때라도 어머니가 여러분의 빈 의자를 결코 치워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의 영광의 행복과 해의 왕국의 행복의 차이를 분명히 알 것이며 이 생을 통해 그리고 영원을 통해 해의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고 맛볼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약속합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과 온 세상에 있는 예배당과 홀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영감을 느끼게 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여 드리하고자 하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1956년에 가졌던 신권 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뷰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이었던 퍼시 케이 팻저, 존 알 버트 그리고 나는 앉을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일찍 이 태버나클에 왔었습니다. 우리는 태버나클에 첫번째로 들어온 무리 중에 끼어 있었으며 모임이 시작하기까지 거의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팻저 부장은 버트 부장과 나에게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동반자와 함께 학교 건물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반대자들이 교회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일단의 사람들이 두 선교사에게 폭력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과부인 한 여인이 선교사와 화가 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나의 손님으로 내 집에 가는 길입니다. 길을 비켜 주세요.”

물려 있던 사람들이 비켜 나가 선교사들은 그들을 도와 준 여인과 함께 비내리는 밤길을 걸어 그녀가 사는 초라한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의 젖은 코우트를 식탁 의자에 걸어 놓고는 음식을 마련할 테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선교사들은 친절을 배운 여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인의 아들에게 테이블로 오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부엌 난로 뒤에 혼자 따뜻하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팻저 부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삼십삼 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쏟아지던 밤에 그녀가 보여 준 친절은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버나클에서 우리 앞에 앉아 있던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들의



왼쪽으로부터: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에드니 와이 고마즈, 진 알 쿡, 찰스 디데이 장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어느 비내리는 밤에 어머니가 폭도들에게서 구해낸 비에 흠뻑 젖은 선교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그들은 어머니에게 주님의 사업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토론을 들으라고 했지만, 나는 부끄럽고 두려워 난로 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대해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메시지는 물론 그 두 선교사들의 용기와 신앙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개종하게 된 동기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만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드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 한 선교사의 이름이 팻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버트 부장과 나는 팻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팻저 부장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앞에 앉아 방금 개종 이야기를 끝낸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팻저 형제입니다. 내가 그날 밤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 선교사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난로 뒤에 앉아 듣고 배우던 그 소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신권회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모임에 앞서 있었던 신앙으로 가득한 개종 이야기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적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적절합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의처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우리는 선교사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룩한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은 선교 사업의 기회라는 타작 마당에 있습니다. 물론경에 있는 훌륭한 선교사 엘마는 선교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됨이 나의 영광이 되니 이가 곧 나의 기쁨이라.”(엘마서 29:9)

나는 여기에 나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는 상품을 팔러 다니는 행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 전해야 할 간증과 가르쳐야 할 진리와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신성한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이 사업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이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쪽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너희는 두 사람씩 짝지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내 이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팔소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말을 선포하라.”(교리와 성약 42:6)

아버지들, 감독님들, 정원회 회장님들, 여러분에게는 이 선교사의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 즉 집사, 교사, 제사를 깨우쳐 주되, 봉사에 대한 책임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업을 통해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와 축복에 대한 것도 깨우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은 참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는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에서는 한가롭게 쉴 틈이 없습니다.

교회 본부에 매일 도착되는 선교사 추천서는 그 준비를 나타내 줍니다. 내가 선교사 위원회에서 봉사할 때 있었던 한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추천서에는 감독님께서 적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은 어머니와 무척 친합니다. 어머니는 존이 집 가까운 곳에 지명되어 인주일에 한번 쯤 전화도 하고 가끔 방문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선교사를 지명하는 일을 맡고 계시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에게 이 의견을 읽어 드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 젊은이를 캘리포니아 워싱턴 쪽으로 보내어 오래전에 있는 집 가까이에 있게 하십니까? 김볼



대관장님은 지명 양식에서 눈을 들어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로 보내십시오.”

다른 선교사 추천서에는 스테이크 부장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일 년 전 그의 양아버지를 교회에 입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나에게 제리가 매주 일요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는데, 도대체 무슨 교회의길래 어린 소년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생각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선교 사업은 가족의 부름입니다. 선교사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힘, 즉 영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편지들은 가정과 가족에게 전달되기 전에 하늘의 우체국을 거쳐 간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단어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버지는 궁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편지는 읽히고 또 읽히며 결코 내버리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가 가정과 천국을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신성한 선교사의 부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느낌과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 보낼 때 영감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리는 지 롬니 장로의 모친 장례식이 유타주 프로보에서 거행되었을 때 그녀의 사위인 존 케이 에드먼즈 형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롬니 형제와 자매는 결혼 초에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롬니 형제님은(벤슨 대관장님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도울 만한 방법이 없었지만 그는 선교사로 나갔으며 그의 아내도 그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우표를 살 돈이 없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드린 후 그 가을날 과수원 길을 거닐면서 발길에 닿는 낙엽을 밟으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땅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보니 그것은 몇 장의 우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편지는 우송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롬니 장로님과 벤슨 대관장님 가족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축복은 선교 사업에 대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조부인 벨스 몬슨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 칠 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선교사 일지 첫머리에 그는 그의 감사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리아 메이스는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되었다.” 삼일 후의 내용은 약간 침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나의 아내는 집에 남아 나를 도와 주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한 각오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떠나는 많은 부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가정의 안락함과 가족을 뒤에 두고 그들은 영원한 동반자로서 손에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신앙이 결여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걷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재산을 바치시는 많은 분들께 교회가 드리는 감사와 내 영혼이 드리는 느낌을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감사의 보답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팻저 형제님께 온 것처럼 삼십삼 년이 지나서 또 올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분명히 그것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가져 오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난 달 솔트레이크시티 신문은 프레드 서드베리의 사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그가 부인 필과 아들 크레이그에 의해 생명을 부지해 왔으며,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고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 기사는 프레드가 사망하기 전에 살아 온 영감에 찬 인생극을 적절히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크레이그 서드베리와 그의 모친은 그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선교부로 떠나기 전에 나의 사무실로 찾아 왔었습니다. 크레이그의 부친인 프레드 서드베리는 고의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이십오 년 전에 크레이그의 모친은 프레드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무관심했으며, 그는 교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나에게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의 부친이 어떻게 해서든 영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소망을 털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영감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영감은 곧 주어졌습니다. 나는 크레이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신성한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쓰되 형제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십시오.” 그는 내게 감사를 표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십팔 개월 간이나 크레이그의 모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이가 선교사로 떠난 지 근 이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우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처음으로 간중 모임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나는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 애가 선교사로 떠나고 나서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편지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훌륭한 가족에게 구원의 계획과 해의 왕국에서 받는 승영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그곳은

내게 해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 주세요.

“아버지의 선교사 아들  
“크레이그 울림

“결혼한 지 이십육 년 만에 나는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선교 사업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아내와 함께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가 주님의 복음  
선교사로서 침례를 주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들고 빛을  
보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과 함께 현대의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려는 그의 시도는 그가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장애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푸른 태평양을 건너 마음과  
마음으로 거룩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도 크레이그 서드베리가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의 부친이  
허리까지 차는 침례의 물에 들어서도록  
돕고 그 자신이 팔을 직각으로 들어  
“프레드 서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교성 20 : 73) 하는  
기도를 되풀이한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  
아들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 온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로마서 10 : 15)

나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봉사하는 데 훌륭한 선교사의  
추억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젊은이들이 갖기 쉬운 버릇, 즉 욕을 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죄이며, 말일성도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러한  
버릇이 없어야 합니다.”



**형** 제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태비내클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신권  
소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 세상  
여러 곳에 있는 교회 건물에 모여 있을  
수 많은 회원들을 생각할 때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과 주님  
사업에 대한 큰 헌신을 나타내 보여  
줍니다. 여러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을  
대신하여 주님께 상달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고도 신성한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그의 위대하신 대업에 동참한  
동료인 여러분에게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인 소년들, 아른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한 공무원이  
내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성 모독, 욕설, 지속적인 말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오래 전 내가 고등 학교에 다닐 때는  
한 학생이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와 사귀기를 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들은 바가  
정확하다면, 고등 학생들간에 그러한  
버릇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열여섯 살 난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속한 말들이 나오길래 나는  
텔레비전을 꺼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하지만 학교에서 늘 듣는

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장에 있는 청소년 몇 명을  
방문해 보았을 때도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자 아이들도  
남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올 게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저속한 언어를 널리 사용하는 일이  
학교에서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텔레비전의 영향과 우리  
사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나는 이  
문제를 시정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품위있는 언어의 중요성을 알도록 도와  
주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이 제언이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호딩 카터가 쓴 컬럼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중 가운데서 선원들의  
저속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면 현재는 그러한 말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1960년대에 미대륙에 끼쳤던  
불멸의 공헌은 공공 연설이나 행동에서  
저절화되고 말았다."

카터씨는 전직 선원과 그리고 신문사  
기자로서, 두 그룹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시인하고 그의 죄책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대도시나 양 해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빈민가의  
용어로 이름붙여졌던 말들은 물론  
빈민가에서 흔히 쓰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바드나 틀란, 아이오와의

데번포트, 플로리다의 데스틴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언어의  
문제 너머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명의 퇴보이다. ...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속어의  
사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그  
공격에 대항하려는 용기나 소명을 지닌  
자는 거의 없다. 나는 공공 장소에서  
나의 어머니를 당황케 하는 추잡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 거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나는 대부분의 여러분과 같이  
그저 몸을 움찔해 보고는 지나쳐  
버린다."(월 스트리트 저널, 1987년, 6월  
4일, 23페이지)

나는 학교의 교장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심지어는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신성을 모독하는  
버릇이나 추잡하고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악이 자라나고 있다는

대관장단(왼쪽)과 기타 총관리 역원이 신권 대회 모임에서 회중 찬송에 합세하고 있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권에 성립된 어떤 청소년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저 않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뒤 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가락이 돌판 위에 십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유대-기독교인의 법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 : 7)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죄를 중죄로 여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흥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끌어 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찌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레위기 24 : 11~16)

가장 중한 형벌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지만 죄의 심각한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대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47년 1월 14일 윈터 쿼터스에서 성도들이 서부에 있는 이 계곡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며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교리와 성약 136 : 21)

1887년 4월 8일, 지금으로부터 백 년 전 대관장단이 전체 교회에 보낸 서한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처럼 그때도 심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젊은이들이 갖기 쉬운 버릇, 즉 욕을 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죄이며, 말일성도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러한 버릇이 없어야 합니다.”(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찬, 6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5~75년, 3 : 112~13)

나는 한때 철도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자랑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교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전철수에게 지시 사항을 적은 것을 전해 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의 일은 지시된 대로 주의를 기울여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당시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명령서를 읽고 나서 그는 불끈 화를 냈습니다. 그는 오십대의 사람이었지만 마치 버릇없는 어린 아이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땅에 내 던지고는 그것을 짓밟으며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 놓기라도 하려는 듯 쓸데 없는 말을 줄줄이 내뱉었습니다. 두세 마디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어른이 어떻게 어린이에 같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불쾌한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결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일학년이었을 때 학교 생활이 무척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식탁 위에 던져 놓고는 주님의 이름이 포함된 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엄중하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입에서 절대로 그러한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잡고 나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선반에서 목욕용 수건을 꺼내어 물을 적신 뒤 비누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입을 닦아내야겠다.” 어머니가 내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나는 마치 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비누가 묻은 수건으로 나의 혀와 이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나는 땀뻘뻘하며 잔뜩 화가 나서 다시 욕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물로 입을 가서 냈지만 비누 냄새는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에서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은 가치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일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교훈에 감사합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태복음 15 : 11)

나는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믿습니다. 대관장단에서 보좌로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해 오신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상당히 우스운 것이므로 그런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어찌 감히 인간이 하려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금지된 일을 지상에서 가치있다고 논란을 벌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함으로써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소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악이 생겨 난다는 것을 우리는 소년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사악한 사회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창조자를 욕되게 하는 자는 다른 창조물을 깔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를 범하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직접 그리고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어기는 것입니다.”(청소년 인스트라터, 1873년 9월 27일, 156페이지)

형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천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속한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우선 변화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사용하려 할 때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잠잠히 있거나 말해야 할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자제하도록 노력한다면 쉬워질 것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곤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는 그 일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01년 4월, 63페이지 참조)

우리는 자기 수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가시면

내일은 참기 한결 쉽고

그 다음은 더욱 쉬워지는 법입니다.

대체 습관이란 천성을 바꾸어

마귀를 누르고 또 몰아내는 비상한

힘이 있으니까요.(햄릿, 제3막, 제4장, 165~70행)

여러분은 여러 고등 학교 교정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이 교회의 선교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주님의 사자로서의 부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청소년 여러분은 예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선교사가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역시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와 더불어 저속하고 더러운 말을 하려는 그 목소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의 목소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은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그가 “말에 본이 되라”고 한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름에 조잡하고 천박스러운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실(대화)에서”—그는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화란 파스한 사교 활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밋을 수 있습니다. 진지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상스럽거나 거칠거나 저속해서는 안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들이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비극이며 불필요한 일입니다. 소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권을 소유한 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게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퇴폐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써야만 하는 남자나

소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의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상당수가 이러한 습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말한 뜻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나 친구가 이 신권 모임에 함께 참석해 있거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면 서로 상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명예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자신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든 사람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유덕한 말을 할 때 기뻐하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시는 긍정적인 말과 고무적인 말 그리고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신성 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소위 추잡한 농담을 피하십시오. 저속하고 더러운 말이 섞인 대화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더욱 행복해지고, 그러한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모인 이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동안 주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곳에 모여 있거나 교회 전역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도 장차 교회내에서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름은 영원한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그 직분에서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내에서의 부름은 중요하지만 바로 그 중요함의 본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름을 받고 적절한 때에 해임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름은 영원한 것이며 그 중요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부름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다음과 같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가장)이 행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감독의 일, 기타 교회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가정을 강화함, 소책자, 1937년, 7페이지)

그렇다면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의 가장의 구체적인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가족에게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양해야 하는 역할과 의로운 후손을 길러 내야 하는 일에 관해 분명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회복된 교회 초기에 주님께서서는 남자들에게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32년 1월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 저는 결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라.”(교성 75:28) 삼개월 후에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성 83:2) 이것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동안 남편은 이러한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비를 벌입니다.

건강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남편은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직을 한 남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남편에게 그가 밖에 나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하도록 일하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가 구한 일자리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모자라더라도 남편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과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필요에서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갖는 일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 결혼한 학생들에게 준 권고를 기억합니다. “나는 결혼을 한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재정적인 것들이 달성될 때까지 자녀 갖는 일을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해 왔읍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부인들이 남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족을 버려 두고 돈을 벌라고 한 경전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학비를 벌며 가며 학업을 마쳤고 동시에 가족을 부양했습니다.”(“결혼은 영예로운 것”, 율해의 말씀, 1973년, 유타,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1974년, 263페이지)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나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고, 돌보며, 의의 원리를 가르치며, 훈련시키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회를 여행해 보면 대부분의 말일성도 어머니들이 진지하게 이 권고에 따르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남편의 격려와 권유로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수입이 있을 때 편리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아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남편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오래 전에 마련된 복지 원리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 년간의 식량, 의복, 연료 등을 비축해 두셨습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배에 타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복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일조를 내는 일에 있어서 주님에게 정직합니까? 이 신성한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 비상시를 위해 비축을 해야 할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들께, 여러분은 가족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야 할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발행한 소책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그래 왔으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의 권고와 격려를 받아 여러분은 가정을 다스립니다.”(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책자, 1973년, 4~5페이지)

그러나, 관리하는 일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조차, 가장이 된다는 것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으로 또한 가족에게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에베소서 5 : 23)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관리하는 역할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칠거나 불친절하게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무시하고 게으른 태도로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폭력이나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교화하고 고무하며 위로하고 높이 이끌어 주실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분은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하라”(에베소서 5 : 25)

주님께서 말일의 계시에서 이 책임에 관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연차 대회는 우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각 모임이 끝날 때마다 방문자들이 총관리 역원과 인사를 나누고자 앞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에,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가 대회 방문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말라.”(교리와 성약 42 : 22) 내가 알기로 경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즉 직장이나 오락이나 취미도 아내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영원하고 값진 배필이요 동반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말로써 나무라거나 침울한 행동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깝게 있고, 충실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녀의 감정과 필요 사항에

민감한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의를 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바랍니다. 아내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아내의 복지와 자존심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임과 가정의 여왕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며, 뛰어난 가정 주부는 어머니임을 즉,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훈련하는 가장 고귀한 부름을 받은 여인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가족이 할 일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가족의 예산을 짤 때, 진정한 파트너로서 권고해 주는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시간이나 돈에 있어 아내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지적, 정서적, 사교적,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랑은 작은 표시로써 나타나고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때에 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보아 주고, 저녁 준비를 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미뤄 놓고 가서 도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행위로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갖는 신권의 지도력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 똑같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축복사로서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용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모든 가족의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규칙과 훈련 계획을 세우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의 평안과 기쁨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가운데 아버지를, 특별히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의무도 가정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 다툼이나 논쟁, 불의한 행동이 있다면 이러한 행복은 없게 됩니다. 훈계와 훈련과 양육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의로운 아버지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자녀의 영적인 복지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1.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침례와 안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에게 신권을 성임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자녀의 삶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2. 가족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몸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녀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3.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 아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의 영적인 복지에 중요한 것입니다.
4. 자녀와 함께, 아빠와 딸이 하는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외출 등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야영이나 소풍, 운동 경기나 연주회, 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아빠가 함께 하면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5. 가족 휴가, 여행 및 야유회 등에 대한 전통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추억은 어린이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6.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참된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7.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합당한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선교 기금과 교육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자녀에게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8. 가정에서 좋은 음악, 미술, 문학에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예술과 아름다움의 정신이 있는 가정은 자녀의 삶을 영원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9. 가능하다면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성전 결혼과 성전 성약 그리고 영원한 가족 단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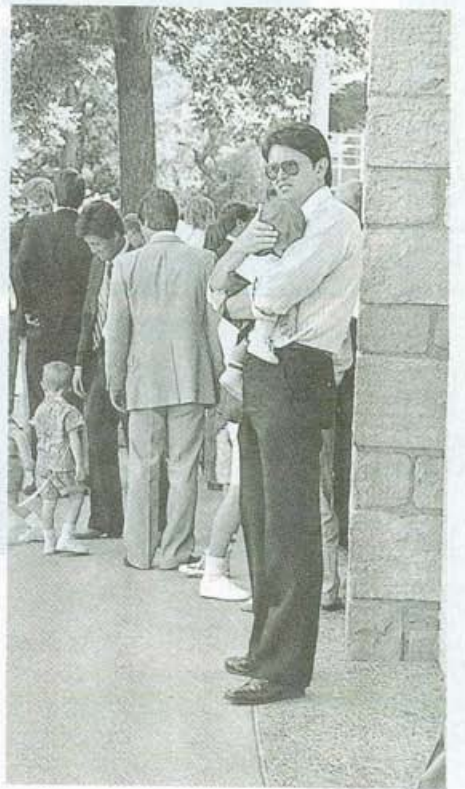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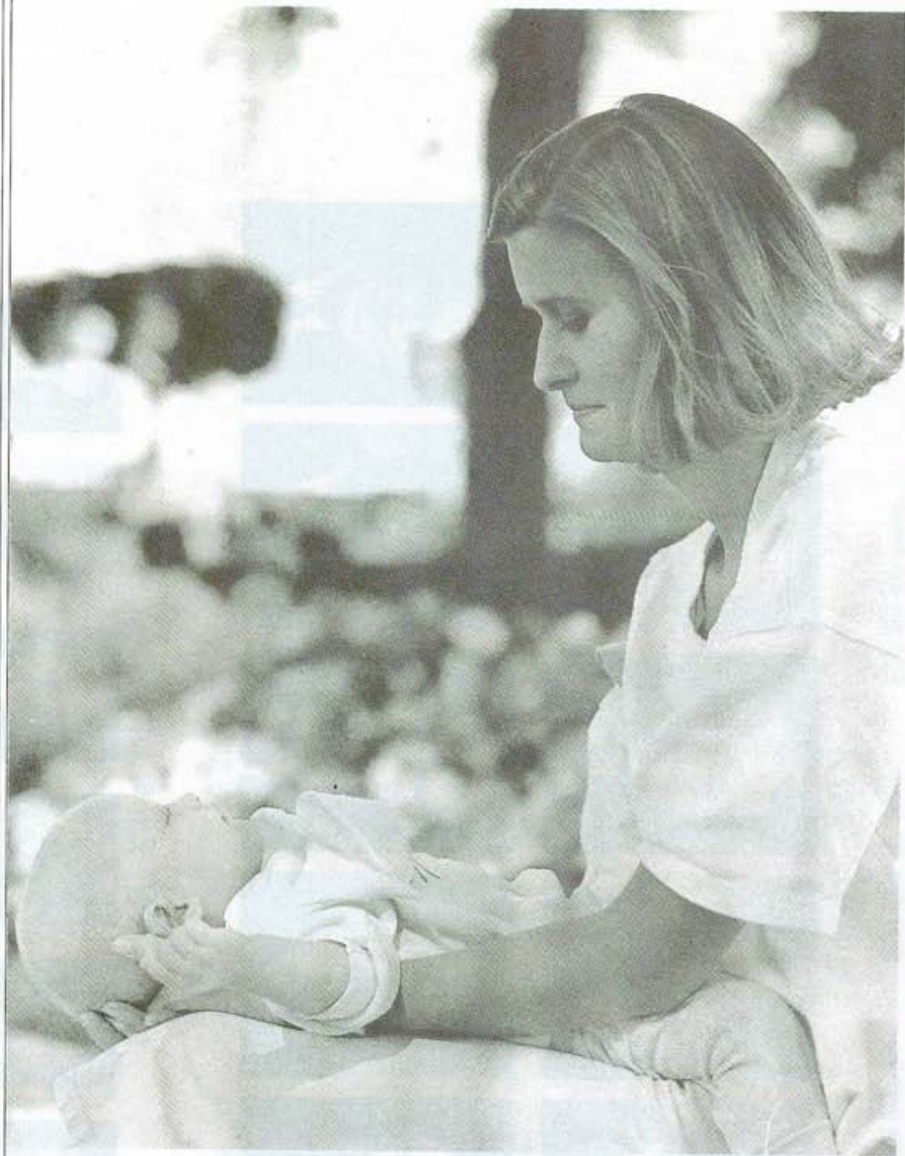
10.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왕국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신성한 부름인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름, 곧 결코 해임되지 않을 부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서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대관장단



고든 비 할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맴은 대관장



토마스 에스 맴은 부대관장

## 십이사도 정원회



메리온 지 폼니



하워드 더플루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에슨



엘 몸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넬 에이 맥스웰



리셀 엠 맴슨



맴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랜드



조셉 비 휘슬린

##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프레더릭 알 리처즈



다워드어 엠 베른



폴 에이치 이세



하트만 헥터 이세



로옌 시 던



로버트 엠 심슨



렉스 디 피체가



제이 토마스 파인스



에드나 와이 고마콘



진 알 콕



찰스 디테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할로즈 이 에시



존 에이치 그롬버그



아훤 디아가



본 케이 페디스톤



로이슨 지 대릭



로버트 이 웰스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가쿠찌



로남드 이 포윌렌



데릭 에이 커스버프



렉스 시 리프



에프 비른 하워드



테드 이 브루어



패 에이치 고슬린드



안셀 아브래야



존 케이 카역



러셀 시 태일러



로버트 비 하하슨



디비어 해리스



스펜서 에이체 오스본



윌림 터 순데그



존 소셈버그



에프 아더 케이



키드 디블류 윌콕스



비터 엠 브라운



에이체 비크 피터슨



케이 리처드 클라크



한스 비 앙기



왈도 피 볼



윌리오 알 카미고



에이치 민한 엔더슨



조지 아이 케인



프랜시스 엠 기먼즈



가드너 에이치 라셀



조지 알 힐 3세



존 알 라스터



다글러스 케이 마운



알빈산더 비 보리슨



멜 일론 포트



글렌 엠 러드



다글러스 에이체 스미스



민 에이 소텐슨

# 관리 감독단



윌터 비 아이어링



로버트 디 헤임즈



글렌 엠 페이스



웬드리드 저 스미스



스튜어팅 디블류 질



버나드 피 브룩뱅크



조셉 앤더슨



존 에이치 반덴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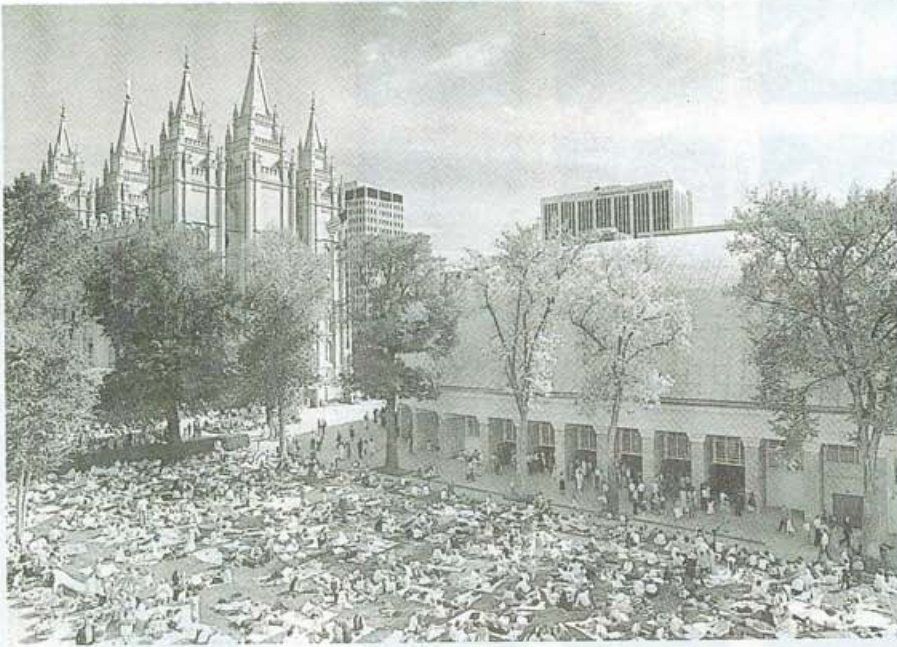
#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명예 회원



조셉 앤더슨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고든 비 핑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회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는 이제 참으로 세계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미 대륙 전역에 있는 회중과 동시에 대양 너머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에 감사드리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 전 어느 지역 회장 한 분과 함께 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민 수가 수백만이나 되는 곳이지만 교회 회원은 한 명도 없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교회에 관해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해 있었으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공 도서관에서 오래 전 백과사전을 펼쳐 본부를 솔트레이크시티에 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 냈습니다. 그는 문의 편지를 띄웠으며 책자와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책자도 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물문경을 여러 번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을 읽고 다른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는 열의를 가지고 그의 친구에게 찾아낸 보화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신권과 그 반차 그리고 직분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의식과 모임 절차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고 마지막이 되는 복음 진리의 경륜의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영광스러운 시현의 참됨을 확신했습니다.

신권이 모든 은사와 권능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며, 신권을 받아 합당한 권세로 가르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주고 떠나면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 나라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가르치거나 도와 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당신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도우실 것이며, 그분은 나의 친구며 지지자가 되실 것입니다.”

나도 그 훌륭한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에게 신앙의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성신권의 권세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으며, 성신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에게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픈 신권을 부여하고 제사 직분에 성임하여 성찬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간증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맡은 책임을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나는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을 받았으며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나는 그의 형편에 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의 가슴에는 신앙의 불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의 신앙도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그곳을 떠나 여행하는 동안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와 다른 사람 가운데서 널리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나에게 경전의 말씀을  
생각케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훈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드리는 나의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불확실과 의심의 간격을  
없애도록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4,  
5년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흥미있는  
사건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 수중에 두  
통의 편지가 입수되었는데 그것이 대중  
매체에 발표되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서로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교회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없고 부정적인 것을 쉽게 믿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 발표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기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는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통의

편지는 다른 서류와 함께 위조자에 의한  
사기와 두 사람의 살해로 막을 내린  
악행과 사악한 의도로 꾸며진  
것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위조자가 악행을 고백하고 난 뒤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신의 권능으로 오는  
지식에 기초를 둔 확고한 확신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며 봉사했음을 덧붙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살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이 참되며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생활할 때 행복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으며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초기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일이  
생겨 났습니다. 그것은 “옛 역사”로부터  
구분되어 교회의 “새로운 역사”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셉 스미스가 살던 당시에 있었던  
마술이나 신비로운 요소를 낫달이 뒤져  
내려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무엇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민속 마술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미신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소위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사무실  
건물에는 13층이라는 것을 없앱니다.  
이것은 그 건물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건축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스미스 당시  
사람들간에 미신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교회든 그것이 미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요셉 스미스도 몸소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간증이였으며,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가 있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대 기록에서  
물문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읽고 기도로 간구한 사람은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물문경의 기원과 신권의  
열쇠와 능력을 파헤쳐 보려는 현재의  
시도는 결국 물문을 반대하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반짝 유행했다가는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은 노력과 연구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신앙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온 교회를 대신하여 나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업을 약하게 하는  
비방자를 물리치고 일어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하신  
명에 따라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며  
온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나는 이 대업과 왕국이  
확장되는 기적을 보았으며 그에 대해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1960년, 불과 27년 전에 나는  
대관장단으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선교부장과 선교사와 성도들과 함께

일하라는 지명을 받았읍니다. 당시 그곳의 교회는 약하고 수도 적었읍니다. 군에 복무하는 충실한 말일성도들에 의해 일본, 대만, 한국 등지에 씨앗이 뿌려졌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었읍니다. 우리 소유의 건물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세넨 집에서 소수가 모여 모임을 가졌읍니다.

겨울에는 춥고 불편했읍니다. 개종자가 생겼읍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곧 떠났읍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경 저편을 바라보던 신앙이 강하고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이 남았읍니다. 그들은 시설이 아니라 메시지에서 힘을 얻었읍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그 수가 수천 수만이 되었읍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동경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읍니다. 커다란 홀이 가득 찼었읍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 모인 수만명 많은 사람이 모였었읍니다. 주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그 수많은 청중에게서 엿보였읍니다. 수도 얼마 안되고 연약하던 당시의 그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기적이 아닐 수 없었으며,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홍콩에서도 같은 것을 경험했읍니다. 그곳에는 네 개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서울에서 그 큰 도시에서 가장 큰 홀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의자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과 초청받은 손님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320명의 대합창단이 "오 사랑스런 아침"을 개회 찬송으로 불렀읍니다("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127장)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감동적인 표현이었읍니다.

나는 참혹한 전쟁을 겪은 한국이 처했던 빈곤과 재건의 날들을 압니다.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여섯 명의 선교사가 서울에 두 명이 부산에 있었읍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간장염을 앓았읍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번창해 나가는 네 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도 대개 600명 가량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신앙의 불빛으로 가슴이 불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또 선교 사업을 위해 학업을 잠시 중단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병역 문제로 인해 큰 제약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두세 개의 조그만 지부가 있었읍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150개의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극동 선교부 산하의 조그만 지방부였읍니다. 예배당도 없었읍니다. 오늘날에는 14개의 스테이크와 47개의 예배당이 건축되었거나 소유하고 있으며 52개의 전세 건물,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 주 전에 가졌던 그 모임에서 나는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았읍니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를 세우려 애쓰던 초기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들의 빈곤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지금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번영이 있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착하고 귀여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직적이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진취적입니다. 겸손하고 사려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나는 사도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현실적인 문제를 너머 미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전능하신 당신을 의지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역경의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치고 땅에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 신앙을 주옵소서. 병고에 시달릴 때 신권의 권능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야고보서 5:14~15)

내 뒤를 이어 말씀하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그러한 신앙의 빛나는 본보기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시련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로써 이 생의 시련기를 지나 더욱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 모든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며, 충실한 자가 승영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시대에 살았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작은 일에서 권고에 따를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하는 대관장께서는 그 책임에 부름받은 이래로 거듭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물문경을 읽으라고 권고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위대한 축복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앙의 보상이 달콤한 것임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선하고 위대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열왕기상 17:1-5)

아무런 논쟁도 없었습니다. 토론도 합리화도 엘리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시여,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영원하신 사업, 당신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 당신 뜻과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 일하는 우리 능력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쪽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늘 모든 입구와 출구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거나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웅용서하십시오. 휠체어에 앉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니 여러분 모두 앉아서 대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려 합니다.

서고 앉는 것과 관련하여 나는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오르내림의 기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슬픔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축복처럼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많은 축복을 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와 신앙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해진 것으로 가장 위대한 예언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왕의 말씀에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제이라헤틀라 백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여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할진대 스스로 저들 영혼의 저주의 잔을 마시리로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시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아서 3:18-19)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상황에 대해 잘 아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는 한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몰아내고 계속적인 안일과 무사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재난의 문들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의 훌륭한 친구와 은인들도 제외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고난은 그를 성도로 만듭니다.”(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98페이지)

그 말씀에서 김볼 대관장은 인생에서의 어떤 특정한 경험에 대하여 문을 닫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랜 세월 동안 위안이 되어 온 세르반테스의 고전 돈키호테 가운데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걸작에서 우리는 짧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은 정기적으로 닫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이 닫힐 때 커다란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이 닫힐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 소망과 축복을 동반하여 또 다른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우리 정원회의 사랑하는 매리온 지롭니 회장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못함을, 그의 재치있는 유우머를, 그의 경험과 지도력을 우리는 못내 아쉬워 합니다. 롬니 회장님에게는 성역의 사업에 있어서 조차 문이 닫힌 곳도 있습니다. 그는 커다란 고통과 절망을 알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전 바로 이 단상에서 가장 충실하고 신앙심이 강한 사람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나아오며 천국에 승영하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한다.”(교회사, 5: 556)고 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회 보고, 1969년 10월, 57페이지 참조)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로 되었을 때, 이곳에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재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의 자녀를 시험하는 [정화시키는] 아버지의 계획에서는



구세주 자신도 제외되지 않았읍니다. 그가 당하신 고통은 온 인류의 고통을 한데 합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떨며 피를 흘리고 쓴 잔을 물리치려 하셨던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 18~19)” (대회 보고, 1969년 10월, 57페이지)

우리 모두는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준비는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쳐야 할 준비,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렇듯 중요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 때로는 고통, 기대하지 않던 삶의 변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비에게 하듯 순종해야 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성한 준비를 마치고 승영의 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근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문을 여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를 그리워 합니다. 육신을 입은 자로서의 그의 준비는 그러한 여정을 위해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도 롬니 회장님처럼 이 단에서 모든 사람에게 탁월 역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역경이 자신에게 그토록 빨리 오리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이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불운, 고통, 질병 및 기타의 역경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때로 우리의 일은 힘들고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 때로는 불공평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 우리와 우리의 것을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견디어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역경을 모면하고 있는 반면 우리만이 이 고난을 위해 택해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사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대회 보고, 1967년 10월, 14~15페이지)

그리고 나서 터틀 장로는 로버트 브라우닝 헤밀턴의 “길을 따라서”라는 시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기쁨으로 한참 걸었네  
그녀는 줄곧 즐겁게 재잘거렸지  
그러나 그녀가 이야기한 것 외에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네  
나는 슬픔으로 한참 걸었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슬픔과 함께 길을 때  
나는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 있네!  
이제 터를 장로가 가야 할 육신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는 그 문을 닫고  
다른 것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천사들과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문들을  
닫고 열고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두  
형제님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도 역경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들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경의 위대한 축복사  
리하이는 고난과 적대 속에서 광야를  
여행할 때 낳은 아들 야곱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에게 마땅히 기대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상적인 인생의 여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역경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리하이는 그러한  
고난이 그의 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니파이서 2:2  
참조)

그런 다음 리하이는 고전이 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러운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니파이서 2:11)

나는 삶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  
해석으로 지난 몇 년간 위로를 받아  
왔습니다. 나는 더우기 하나님의 아들을  
위시하여 위대한 사람들이 그러한  
역경에 처하여 의와 악, 거룩함과  
비참함,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위안을 얻습니다. 어둡고 습기찬 리버티  
감옥 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환관과 시련을 헤쳐 나가도록  
부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경험을 얻게 되며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5~8  
참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쪽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 있는 예언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입구와  
출구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거나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떤  
복도와 난간이거나 특별한 카페트나

커텐이 있는 곳으로서 그 집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지나가도록 마련하신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올슨 에프 휘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견해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나 경험하는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인내, 신앙,  
강건, 겸손 등의 자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참아 내는  
일들, 특히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혼이  
성장케 하며, 더욱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더욱 합당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더욱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은 슬픔과 고통,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입니다.”(기적을  
남는 신앙, 98페이지에서 인용)

우리의 생애에서 여러 시기에 때로는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이사야 55:8)

빛나간 자녀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곤란과  
감정적인 긴장으로 가정과 행복이  
위협당한다면, 생명이나 건강을 잃어야  
하는 경우, 여러분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회하는 길과 절망은 즐겨  
부르는 찬송가와 같이 주님께 이르는  
곧고 좁은 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하지 못하리  
그 불길 통하여 신앙 굳게 하리  
순금만 주 앞에 나타내리라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16장,  
5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섬기라”

로버트 엘 백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는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하도록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왕같은 군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교적으로, 영적으로 준비시키기를 권고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금**년 여름에 우리의 첫째 손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위대한 모험을 준비하는 동안 줄곧 기대와 들뜬 마음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환송 모임을 갖고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기심 강한 십대 소년이 타인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밤 사이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훈련원에서 보내는 편지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변화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선교 사업에 몰두하는 것에서 새로운 대담성을 보았습니다. 그 대담성과 영은 선교 지역에서 그가 믿는 바를 가르치는 현재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그의 비회원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토론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토론은 참으로 훌륭한 것들이다. 결심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곧 해야 할 일이야 결심을 해라. 물론경을 읽어라. 나는 아흐레 동안 물론경을 읽었는데, 하루 한 시간 반씩 읽었을 뿐이다. 매주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심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침례를 받는데 필요하다. 기도하도록 결심해라. 내가 만일 물론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도록 결심해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며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네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리를 알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결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복음 안에서 미지근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특히 너에게!”

할아버지로서 나의 혈육이 그토록 잘 준비되어 주님 사업에 임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손자들도 만이와 마찬가지로 잘

준비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는 일에 관해 생각할 때 나는 교회의 모든 젊은 이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

그 한 구절이 구세주께서 성역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에 관해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의 제자로서 우리도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여 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생각하여 봅시다.

## 신체적 준비

선교사의 일은 막중합니다. 그것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 사업에는 훌륭한 건강과 활력과 힘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사에게는 많은 양의 노동이 요구됩니다. 먼 거리를 걸어야 하고 자전거로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며 동반자를 위해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요리를 하고 바느질과 다림질을 합니까? 누가 자리를 펴고 마루를 쓸니까? 설거지와 세탁은 누가 하고, 구두는 누가 닦습니까? 취침이나 기상 시간을 누가 알려 줍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나 누나 또는 와드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억지로 배우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에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일의 중요성과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준비의 일부로서 선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선교 기금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시작하기에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시장보는 방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른다면 언제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 정신적인 준비

변호사업을 하기 전에 나는 국민학교, 중, 고등 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연구와 교육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를 다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단순한 교회 참석과 조그만 노력으로 그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어느 성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돌아올 수 없듯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교육적인 준비는 어떻습니까? 배우는 일을 좋아합니까? 경청하는 방법을 좋아하십니까?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외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정규적으로 경전 읽기를 좋아하며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경전은 그것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매일 경전을 특히 물론경을 읽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물론경은 여러분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책이 줄 수 없는 영성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과 일생을 위해 준비하는 데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경을 알고 사랑하는 젊은이, 그것을 여러 번 읽어 본 젊은이, 그 진실성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갖고 있는 젊은이,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젊은이는 악마의 간계를 이겨 낼 수 있으며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힘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청년에게, 소책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6년, 3~4페이지)

하나님의 예언자가 주시는 얼마나 훌륭한 약속입니까?

선교사 훈련원에서 나의 손자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경을 읽어라. 그것은 내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며 이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분은 과연 토론 지식을 증대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실생활에 관련된 원리를 알기 위해 얼마나 경전을 참조하는가를 알게 되면 놀랄실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시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세미나리는 정신적으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교적인 준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선교 사업은 자신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며, 실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신뢰와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보다 생애에서 더 중요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규칙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선교부는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은 타인과의 거래에서 정직합니까?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다른 선교사와 함께 스물 네 시간을 생활하며 즐기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소우주 사회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훌륭한 형제애에 관한 교훈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봉사하던 한 선교사는 동반자와 어울리기를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나는 함께 지내기가 어려우니

이동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데리고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교사에게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로 하여금 선교사의 일을 사랑하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 갖는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려 가면서 그도 다른 전임자들과 같이 이동을 요청하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동반자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둘다 아프리카에는 기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애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친구를 만들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던 당시를 돌이켜 보고 그곳에서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내게 참으로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사업은 커다란 사랑의 향아리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나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십대 소녀가 자매 선교사와 동반자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들이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주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성령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생활은 행하는 모든 일로 영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생활을 정결케 하십시오. 생각이나 행동에서 그래야 합니다. 부도덕은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를 더욱 불행하고 슬프고 후회하게 하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발전에 치명적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2.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3.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간증을 향상시키십시오.

4. 믿는 바를 지지하십시오. 생활의 표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의 낮은 표준에 의해 동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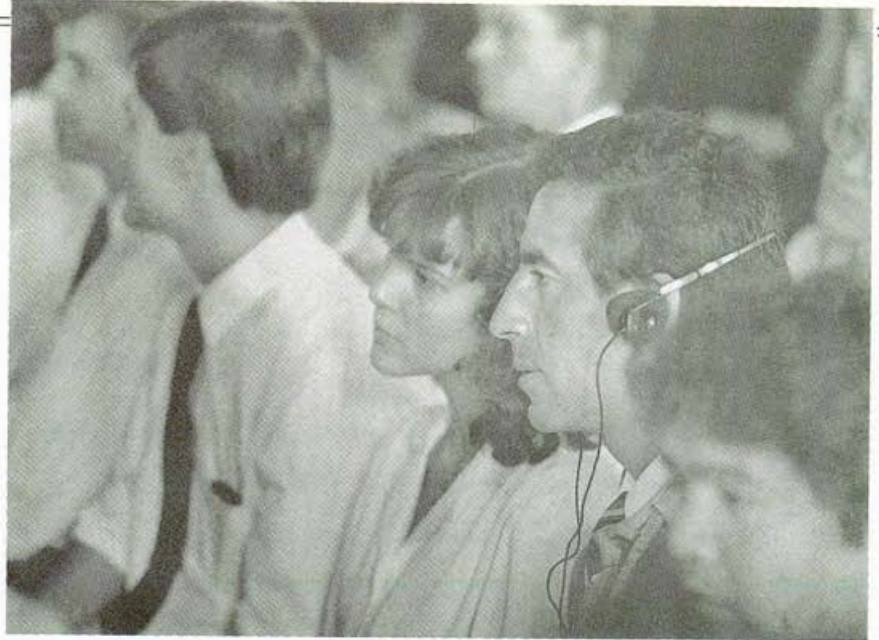
5.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왔으며 여러분이 그 권능을 존중하면 일생 동안 여러분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6.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사전에 행동할 과정을 결정하십시오. 가고자 하는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이것들은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7.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과 성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8.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영적인 경험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 선교사나 스테이크 선교사와 함께 친구에게 찾아가 복음을 가르치도록 돕고 간증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지 잘 알게 될 것이며,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영향력의 감미로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에게 수종드는 사람이 도시가 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깨닫게 되었듯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엘리사에게 달려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열왕기하 6:15-17)

여러분이 성령과 일치될 때 주님의 대표자로 무장하게 되며 가르치고 간증하게 되며, 영혼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 오게 됩니다.

지난 4월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도 준비가 있어야 힘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어릴 때 준비하도록 격려하면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와 어느 곳에 있던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각오를 하도록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왕같은 군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교적으로 영적으로 준비시키기를 권고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벤슨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성전 결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신권을 소유한 청년에게, 6페이지)

벤슨 대관장님과 더불어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결심을 나타내며 삼만 사천 명의 선교사가 부르는 노래소리에 연합하기를 권고합니다.

주 섬기라 영광 가득한 왕  
그 이름을 증거하여라  
온 세상에 말씀 전파하고  
예수 사랑 외치세  
주 섬기라 풍성한 주 축복  
넘치도록 응답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해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승리가 부르며  
면류관 향해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며(“주 섬기라”, 찬송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교회의 청소년들이여, 가서 이와 같이 봉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메시아요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의 이름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문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을 방문하신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는 흰 옷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서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 : 10~11)

그는 이 말씀을 현대 계시에서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 : 9 ; 39 : 2 ; 45 : 7참조) 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 즉 만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증한 요한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시라. 그 안에 사람의 생명과 빛이  
있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93 : 9~10)

##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는 그 빛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교리와  
성약 18 : 12)기 때문입니다. 그의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입니다. (교리와 성약 93 : 2 ; 교리와  
성약 84 : 46 참조) 경전에서는 이 빛을

“진리의 빛”(교리와 성약 88 : 6),  
“그리스도의 빛”(교리와 성약 88 : 7 ;  
모로나이서 7 : 18), “그리스도의  
열”(모로나이서 7 : 16)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우리의 이해력을 일으켜 줍니다.  
(교리와 성약 88 : 11참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빛”(모로나이서  
7 : 18)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였”(모로나이서  
7 : 16)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길을  
비춰 주는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사가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누가복음  
1 : 79)기 위해 오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 : 16) 후에 그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도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 대로  
행하라.”(니파이삼서 18 : 24)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삼서 27 : 21)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의 빛과 계명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니파이삼서 15 : 9)  
시편의 저자는 그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 : 105)

주님께서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땅에서  
너희의 빛이 되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의 길을 준비할  
것임이라.”(니파이일서 17 : 13)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의 빛이 더 밝게  
빛남을 보게 되며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약속이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이사야 58:11)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예언자 물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무엇이라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모로나이서 7:12~13) 물몬의 말씀은 후에 모로나이가 물몬경을 편찬할 때 주님께서 모로나이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른 바를 믿는 자(는)… 이것들이 참됨을 알지니, 이는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침이라.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나로 인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선이 비롯되지 아니함이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진리라.”(이더서 4:11~12; 또한 교리와 성약 11:12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해력을 일으켜 주는 빛의 근원이 되시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의 길을 비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심을 압니다.

### 세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경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니파이서 11:5)으로 불리는 그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묻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9~10)

후에 예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명을 주는

아들의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속죄의 능력과 모범을 통해 온 인류는 부활하게 됩니다.(니파이서 9:7, 12 참조) 우리의 지상 생활은 그의 창조의 행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불멸의 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면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골로새서 1:18)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주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히라맨서 14:16) 경전에서는 이러한 쫓겨남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히라맨서 14:16; 교리와 성약 29:41 참조)

우리 구세주의 속죄는 이러한 영적인 사망을 극복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조의 죄를 대속하였고”(모세서 6:54)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로마서 5:18) 이 속죄의 결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신앙개조 제2조)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죄로부터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로마서 3:23)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구세주입니다. 리하이는 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니파이서 2:7)

생명을 바쳐 영적인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현대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교리와 성약 19:16~17)

신앙개조 제3조는 구세주께 주신 조건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물몬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니파이삼서 23:5)

요약하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속죄를 통해 우리를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에서 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야곱은 이 생명의 은사를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옹호한 괴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 진정 저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내가 이를 육신의 죽음이요 영의 사망이라 부르는도다.”(니파이서 9:10)

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간증을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와 교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활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최근 내가 겪었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처음 방문한 한 친구가 나의 사무실에 찾아 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헌신적이고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쌍방이 그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회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사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그 친구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템플 스캐어로 가서 북쪽에 있는 방문자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물몬경의 사도와 예언자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이층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토발드센이 만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커다란 동상이 있었으며 그 동상은 광활한 우주를 나타내는 배경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굽어 보고 있었습니다.

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흔적을 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동상을 바라보는 동안 나의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서서 구세주에 대한 생각에 잠겨 경건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런 대화도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거룩한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투시화를 지나갔습니다.

템플 스캐어를 떠나며 헤어지면서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경시켜 줘서 고맙네. 전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네의 신앙에 대해 뭔가 이해하겠네.” 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하는 문제에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와 같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메시아요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의 이름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선교사와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언자 니파이가 물몬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서 25:26)

신앙개조 제1조에 있듯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며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분입니다.(모세서 1:31~33; 2:1~2; 교리와 성약 20:17~21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독생자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며 메시아요, “온 땅의 하나님”(니파이삼서 11:14)이십니다. 물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심이라”(모사이아서 3:18; 모세서 6:52, 59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심을 경전이 증거하고 우리가 엄숙히 확신합니다.

이 지식은 말일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성약을 맺음으로써 삶을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경전상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하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성신의 증거를 듣고 그에 유익할 수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26참조) 우리는 그의 복음의 원리를 연구해야 하며 그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라는 계명을 위시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마태복음 22:36~40 참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은 성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세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불멸의 은사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영생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아야 하며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결국 말일성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고 권고합니다. 물몬경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 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욘나이사서 1:26)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자이시며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항상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꺼이 도우려 하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것은 사랑이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 근 세계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범죤 사건들이 연합 통신을 통해 통신 매체에 연결이 되고 그것은 다시 각 대륙에 있는 가정에 보도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간략합니다. 그 제목들은 살인, 강간, 절도, 방해, 사기, 부정 등입니다. 그중 몇 가지 제목을 들어 봅니다.

“아내와 자녀를 죽인 뒤 자살한 남자”, “자녀가 치한으로 밝혀짐”, “수백만불의 사기 횡령이 폭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음” 이러한 것은 한없이 계속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정경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후서 3:2-4)

우리가 평지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야 하겠습니까?(창세기 13:12 참조) 노아 시대에 가르쳐진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에레미야 8:22) 이 세상의 눈에서 의로움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아가는 문이 있습니까? 주님의 개별적인 권유에 정직하게 응하는 사람에게는 늘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그 문에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 오는 촉매제입니다. 사랑은 영혼에 병고침을 가져 오는 유향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잡초처럼 자라거나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한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애뜻하고 감동적인 작별 모임에서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한복음 14:21) 특히 가르침은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어린 자녀들은 사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에 있는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에는 쉽게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존이 말했다.

그리고는 그가 할 일을 잊고

모자를 쓰고 밖으로 놀러 나갔다.

엄마는 물을 길고 나무를 날라야 했다.

“엄마 사랑해요” 에벤 벨이 말했다.

“말할 수 없이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는 반나절 동안이나 칭얼대며 뽀로통했다.

벨이 놀러 나가고 나서야 엄마는

기뻐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어린 팬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 줄게요. 학교에 안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아기를 달래 주어 잠재워 주었다.

그런 다음 조용히 걸어 나가 비를

듣고는

마루와 방을 쓸었다.

하루 종일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로 바쁘고 행복했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아이들은 모두

말했다.

세 아이가 잠자러 간다.

세 아이 중 누가 엄마를 가장 사랑했다고

엄마는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가?

(조이 앨리슨, 세계 애송시, 뉴욕 : 하퍼앤드 로우, 1955년, 243~44페이지)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과 예의와 공경이 사랑의 상징이며 의로운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가장은 아곱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앙을 잃었으며 저들의 호느낌이 하나님께 우리러 너희를 고발하니”(아곱서 2 : 35)

니파이삼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지 됄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 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니파이삼서 11 : 28~30)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교훈은 우리 생애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고전적인 음악 작품 카펠루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더왕, 랜슬릿, 구에네비어가 모인 곳에서, 아더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꿈을 해치게 해서는 안되오.”

그 작품에 보면 더 나은 세계를 본 뒤 아더왕이 말한 진리가 있습니다. “폭력은 힘이 아니며 동정은 약함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나 도움이 요구될 때, 구조를 희망할 때 다음과 같은 익숙한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나는 다음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동부 어느 도시에 사는 한 소년은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방랑자를 보고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베개를 가져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머리 밑에 베어 주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 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점의 말이 들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나는 사랑과 자선의 마음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집이 없는 자를 채우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짐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봉사에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열여섯 살에서 열일곱 살로”, 사운드 오브 뮤직,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성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메시아의 성역을 베푸시던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누가복음 7 : 11~15)

항상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꺼이 도우려 하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것은 사랑이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베로나의 두 신사, 1막 2장, 31행)

어느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철학과 함께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모든 학생이 성공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어느 정원회 지도자는—그는 은퇴한 관리자입니다.—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열두 사람에게 영구 직장을 갖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내 생애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키는 작지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리틀 에드”라고 부르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할 때 몹시 커 보였습니다. 그는 궁핍한 사람을 도움으로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거친 양계 도매상인 어떤 사람은 통닭구이용 닭 스킨 네 마리를 사 가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닭들이 과부되신 분들에게 가게 되겠지요? 값은 무료입니다.” 차 트렁크에 실으면서 그는 머뭇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계장에는 닭들이 더 있습니다.”

전 세대의 행정관이었던 로버트 우드럽은 사회 단체와 사업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미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하고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마디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I am proud of you)

가장 중요한 네 마디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What is your opinion?)

가장 중요한 세 마디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좋으시다면 (If you please)

가장 중요한 두 마디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드럽씨가 열거한 것에 나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한 마디 말은

사랑(love)입니다.”

몇 년 전에 축구 주 우승을 놓고 물간

고등 학교가 밀라드 고등 학교와 경기를

벌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물간팀의 코우치 잔 스미스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분 생애에서 무척 중요한

경기이다. 지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이고 이기면 평생 기억할 것이다.

동작 하나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하기 바란다.”

문 뒤에서는 그가 수석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경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난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 경기에 우승하기를 바라는

거야.” 물간 고등 학교는 경기에 이겨 주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또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만

아닙니다.

어느 겨울날 나는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열한

살이었습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회장

멜리사 자매님은 나이들고 머리가 흰

자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시간에 멜리사 자매님은 나에게 잠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텅빈 예배당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난 초등학교

개회 순서 때 안내자반 소년들을 도무지  
조용하게 하지 못할 것 같구나. 토미야,  
날 좀 도와 주겠니?”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멜리사 자매님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상하게도, 초등학교 내의 경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 즉

나를 찾아 왔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사랑이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십대가

되신 훌륭한 멜리사 자매님은

솔트레이크시티 서북부에 있는 양로원에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초등학교 회장을

방문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나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찬송가, 190장)를

들었습니다. 나는 오랜 옛날에 박사들이

방문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 왔습니다. 나는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선물만을 가져

갔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멜리사 자매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포크를 놀리며,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입도 그녀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자

친절하면서도 공허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포크를 들어 나는

멜리사 자매님에게 음식을 떠 드리면서

초등학교 역원으로 소년 소녀에게

봉사했던 것에 관해 졸곧 나 혼자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말은 더욱 없었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의아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말아요. 그

할머니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모르는

걸요. 이곳에 온 뒤로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나의 일방적인

대화도 끝났습니다. 나는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련한 손을

잡고 주름졌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리사 자매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지. 토미 몬슨이야.

내가 가르친 초등학교 아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구.” 그녀는 내

손에다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적셨습니다. 그날의

그 손들은 하늘에 의해 성결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토록 완전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6~27 참조)

밖에는 하늘이 몹시도 푸르렀습니다.

대기는 찻습니다. 깨어질듯이 찻습니다.

눈은 수정처럼 하얗게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음 가사가 메아리쳐

오는 듯했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 양을 지킬 때

주님의 사자 나타나

큰 소식 전하니

이 날에 나신 아기

만민의 구주라

그 아기 방금 다윗성

구유에 누웠네

(“오 베들레헴 작은골”, 찬송가,

124장)

놀라운 운사가 내려오고 하늘의

축복이 주어졌으니, 사랑이라는 관문을

통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엄숙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뜻깊은 축하 행사”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화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우리 시대를 위해 그것을 지켜 주신 우리 선조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영원한 본질을 지닌 전통을 세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여러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7월 24일에는 물론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14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영 제국에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도착한 것에 대한 150주년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미국 국민들은, 교회 회원과 비회원이 다 같이, 최근에 헌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같이 교회 역사에 뚜렷하고 영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여름에 있었던 많은 기념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역사로 돌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더듬어 볼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때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키케로는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어린 아이로 있는 것과 같다.

“과거의 노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세상은 항상 지식의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번 여름은 내게 우리의 유산과 역사에 관한 관심을 다시 불러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나타난 유사성에 깊이 빠졌으며, 특히 히브리 국가와 우리 교회 역사 사이의 유사성에 매혹되었습니다.

히브리 국가의 지도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분은 모세였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은 고대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구출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영원히 상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기와 사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념 행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같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칠의 배수가 되는 여러 시기에 해당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곱째 날은 휴식의 날인 안식일이며, 일곱째 달은 수확의 시기가 됩니다. 레위기 25장을 읽어 보면 제 칠년과 오십 년에 관한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 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 년에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 구 년이라

“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레위기 25 : 3-4, 8-10)

오십 년째마다, 땅은 원소유자나 그들의 후손에게 돌려 주어야 했으며, 빛 대신에 노예로 팔린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자유롭게 풀려 나게 되었으며, 제 칠 년 또는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안식년의 전통은 대학에서 영속되고 있는데, 바로 교수들에게 대개 칠 년째마다 안식하고 쉬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쥬빌레**라는 말은 “수양” 또는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년제 또는 오십 년제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 뿔을 말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기념하는 데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각기 우리가 기념하는 방법과 기념 행사에 부여하는 의미에 지침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통은 종교적인 신앙을 지켜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십 년제를 기념하는 데 함축된

메시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제 표준 성경 백과 사전에서 한 구절을 발췌해 봅니다. “제 오십 년은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시기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급의 속박에서 구해 내셨으며(레위기 25:42); 그들 중에 누구도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도 억압받지 않게 되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에서 시민들은 주인이나 종이 모두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것은 가장 크게 적용시켜 볼 때, 하나님께 충실함으로써만이 이스라엘 국민은 다른 주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독립되기를 희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회년의 두번째 특성은 모든 부동산의 반환에 있었다. 그 목적은 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법은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세습 재산을 원래 소유한 집안에 복귀시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땅을 구분하신 첫 배열의 재확립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 경제 이론이나... 사유 재산의 무한한 확대를 허용하는 자유 기업 체제를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재산 소유권을 확립했다.”(지오프리 더블류 브롬리, 4권,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 윌리엄 비어드먼스 출판사, 1968년 2 : 1142)

이러한 것은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입니까—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었으며,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만이 토지 소유권을 영원히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회년의 전통에 포함된,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계보와 주님께 그들이 빚진 자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연례 개척자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기념 행사, 상호부조회



창립 모임 등—이러한 모든 행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상기시켜 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더 크게 해줍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기념제와 전통은 정치적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었읍니다. 이 때는 더 가깝게 결합하도록 지파들을 단합시키는 시기였읍니다.

우리 조국에서의 중요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제는 우리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회 회원들이 참으로 열성적이고 합당하게 헌법 제정 200주년을 축하하는 데 감명을 받았읍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개조 제12조에서,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존중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정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세계의 열방에 봉사하는 교회는 현실적 및 영적인 면에서, 그 안에 포함된 개인 생활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교회와 국가에 관한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느낀 갈등에 대하여 구세주를 곤란케 하고자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태복음 22 : 17-21)

구세주의 성역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질서와 법을 지킬 것을 권고했읍니다.

디도인들에게 주는 서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현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디도서 3 : 1)

교회 회원인 우리는 수많은 서로 다른 국기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의 위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국가의 역사와 유산과 율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권리를 허용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진리와 권리와 자유의 원리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기념제와 전통에는 문화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와 절기는 재능과 업적을 서로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진보와 연관된 실제적인 지식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개척자 유산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문화 예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기 선조들은 평원을 횡단하는 길에서 실제로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곤경에 당면하여 그들의 영을 고양시켜 준 방법이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극장을 짓고, 악단과 합창단을 조직하고, 예술가들을 선교 지역으로 보내 그들의 재능을 충만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쌓게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아름다움과 문화를 우리가 기념하는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개척자 유산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손과 마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기념제와 전통에는 사회적으로 깊은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의 소속감을 키워 주는 시기였고, 모든 사람이 나는 형제 자매애를 재확인하는 절기였으며, 가족을 함께 결속시켜 주는 때였습니다.

1880년 연차 대회에서, 존 테일러 대관장은 교회의 회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교회 조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년을 기념하는 방법—성도들이 속한 지역 사회를 보다 밀접하게 끌어 들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빛에 짓눌려 있는 자를 풀어 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 주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짐을 벗겨 주어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회 보고, 1880년 4월, 61페이지)

테일러 대관장은 그런 다음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회원들이 영구 이민 기금에 진 빛의 반을 면제하고,

둘째, 가난한 자들도 그들이 내기로 한 이전의 십일조가 면제되며,

셋째, 교회에서 천여 마리의 젖소를 길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삼백 마리의 젖소를 내놓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교회의 스테이크로부터 모아 들일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상호부조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씨앗으로 사용하도록 꾸어 줄 밀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추수가 끝나고 나면, 꾸어 준 것을 다시 갖고, 그리하여 밀 씨앗의 상실 창고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테일러 대관장에게 밀은 이자 없이 꾸어 주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년입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61~64페이지)

테일러 대관장의 제안은 교회의 사회 조직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까! 현재의 필요 사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테일러 대관장은 회원들에게 참된 말일성도가 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전통으로 확립이 되지만 그것이 역사의 연구를 대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구를 촉진시킵니다. 우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역사의 연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념할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제정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조상이 행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 기념해 나가며, 항상 목적을 가지고 기념하는 전통을 재확인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기념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로운 교회의 회원으로서 풍부한 유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우리 앞서 간 위대한 신앙과 시현과 영을 지니신 분들의 어깨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많은 희생을 존중할 때, 그들이 성취한 것과 그들이 지켰던 원리와 가치관을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념 행사를 하는 장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우리 시대를 위해 그것을 지켜 주신 우리 선조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영원한 본질을 지닌 전통을 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특히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가치관을 항상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가족의 전통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것인 풍부한 유산을 살아 숨쉬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나는 그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총관리 역원을 따르십시오

엘 앨딘 포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경전을 읽고, 예언자의 요구대로 행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 부름이 주어진 직후에, 나는 루이지애나주의 배턴 루지로부터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느 젊은 사업가가 내 좌석으로 오더니 자기 자신을 말일성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내게 대회에 참석하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벤슨 대관장을 보실 겁니까?”  
“대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보시게 되면, 그분에게 우리가 한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깊은 사랑을 품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낮이 다 되어 빛이 어둑해질 때였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총관리 역원에게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정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밤새 여행해 갈 때, 나는 몇 년 전 이 태버내클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마지막으로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말씀했던 때로 생각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확실히 명백하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이든, 대관장단이든 또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가 한 음성으로 말하든지, 어느 경우든 성도들을 그릇되게 인도하거나 주님의 뜻과 마음과는 반대되는 권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엘사인, 1972년 7월호, 88페이지)

스미스 대관장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영이 그것이 참됨을 내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같은 영이 오늘도 새롭게 증거해 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어떤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들어 봅시다. “그는 남쪽 계곡으로 가라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부름에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요구할 수는 없소.’라고 말하며 거역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거역하여, 교회에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개척 프로그램을 거의 지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불만은 교회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가 없이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인 발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뚝을 뽑아 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신앙과 헌신으로 가족을 키워 나갔습니다.”(대회 보고, 1955년 4월, 94페이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전 특히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경전에 관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전을 가장 자주 읽는 사람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서든 그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2:14)

경전을 읽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영을 주님의 예언자의 말씀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경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언자의 요청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구세주의 말씀을 유의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5~17)

벤슨 대관장은 198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몰몬경은 우리 개인 학습이나,



가정에서 가르침과 전파하는 데나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자께서 요구하는 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의 머리 위에 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지지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해 주심을 아십시오. 게다가, 우리가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총관리 역원에게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을 사랑하는 데에는 안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안전이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마태복음과 니파이삼서에 기록된 대로 다음과 같이 산상수훈을 끝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일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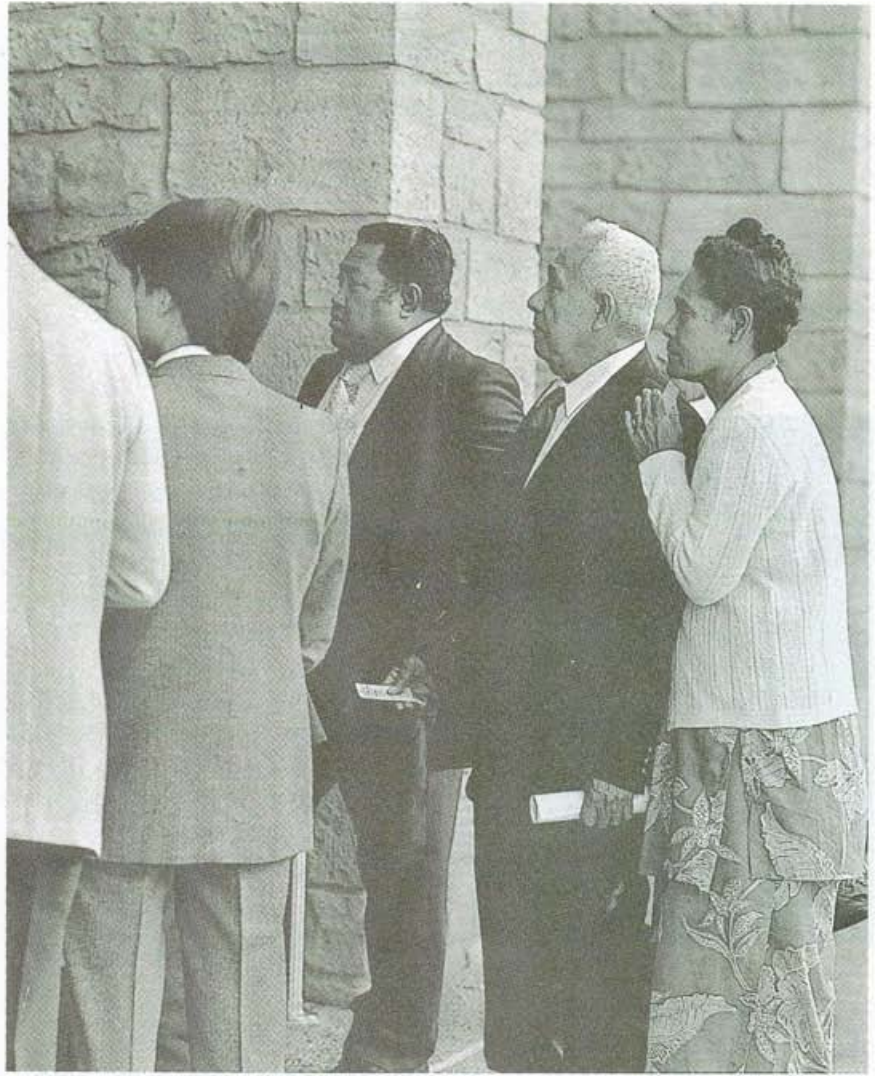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라.

“또한 이 말을 듣고 이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침에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로다.”(니파이삼서 14 : 24~27)

형제 자매 여러분, 두 집에 전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불운을 겪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남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물론은 예언자의 주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주의 계시를 기억하며 주께서 다시는 계시와 예언과 온사와 방언과 병고침과 성령의 권세로 일하시지 않는다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니파이삼서 29 : 6)

신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청지기 직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총관리 역원을 따르십시오.

납권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력에 더욱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총관리 역원을 따르십시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기꺼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기를 원하십니까? 총관리 역원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할 것을 이 대회에서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실 말씀은 모두 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총관리 역원을 사랑하며 그들을 따라 가리라는 것을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총관리 역원을 따르면서 행동으로 그 의미를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모세서 6 : 59)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계시니, 곧,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헌신적인 봉사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단지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와드의 젊은이들이 모험적인 여행을 하는 데 드는 많은 돈을 벌고자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감독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던 훌륭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문에 그 소식을 실어 관심을 갖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도와 줄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흥미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일도 있는 법이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번 기금으로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층 더 놀라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교회 업무상 그가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여러 나라에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겪는 시련과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가족이 충분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의복도 서로 바꿔 입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옷 모양은 아무래도 다 입을 수 있었으며 대개의 경우는 그것도 흔치 않았습니니다. 나는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모은 금액이라면 그 선교사들 여러 명의 선교 사업 기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험 여행의 가치를 선교 사업의 가치에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기금을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헌금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야 할 더 훌륭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해 봄으로써 균형을 취해야 하며,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후에, 그 감독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은 우리가 전에 나눈 대화의 의미와 정신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험 여행을 희생하고 모든 금액을 일반 선교사 기금에 기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가지고 와서, 기증할 때 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신문에 그들의 사진과

기사를 실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청소년들이 더 높은 표창의 법을 알도록 도와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높은 데서 오는 표창은 말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의깊게 소리없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고, 소리없고 헌신적인 봉사에서 주어지는 보화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간직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그와 같이 했으며, 지금은 그 보상으로 그들이 이제까지 해 온 것보다 더 훌륭하게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추억과 자부심을 각자 갖게 되었습니다.

필립핀의 배탄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나는 아름다운 한 자매 선교사가 어두운 마루 바닥에서 한 노파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노파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자매 선교사는 이 노파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얹게 하고 한 손으로 노파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고 다른 한 팔로 그녀를 감싸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노파가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버림 받고 숲속으로 쫓겨나 결국은 그 나라에서도 쫓겨 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그녀를 돌보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자매 선교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내가 이제까지 한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단지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봉사 활동이 비이기적인 봉사 활동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봉사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비이기적인 봉사 활동은 복음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회나 오락이나 게임을 토대로 한 일회적인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화되거나 통제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비이기적인 봉사 사업은 사람 대 사람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얼굴과 얼굴, 눈과 눈, 음성과 귀, 마음과 마음, 영과 영,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 이웃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회 제도 내에는, 항상 표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 한계 내에서 보존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는 어느 모임에서 자기 뒤에 앉았던 어느 여인이 쪽지를 건네 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쪽지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 나를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남의 시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속해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과 함께 한다는 느낌은 따스한 미소와 악수, 포옹을 통해서 그리고 웃음과 말하지 않은 사랑의 표시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조용하고 경건한 순간이나, 귀기울여 듣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기시키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서 옵니다.

사람들의 표창과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자신의 생의 목표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이 이기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표창과 칭찬이 가져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합니다. 그들이 한쪽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방면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자아를 간직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못한 삶을 연출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인기있기를 바라는 것, 동료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람은 상당히 그 힘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표창을 구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허영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세상의 칭송과 유익을 구하며 시온의 복지를 구하지 않는 자라.

"보라 주가 이러한 일을 금하셨고, 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명하신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 사람이 사랑을 품을진대 시온의 일꾼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시온의 일꾼들이 시온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리니"(니파이서서 26:29-31)

비이기심은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참된 동반자 정신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정의 참 본질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과 인간성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보상은 영혼의 자유로움과 거룩한 성품에 가깝게 되고, 영을 동반할 만큼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결케 될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방법은 헌신적인 봉사에 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합당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곳에서도, 헌신적인

봉사가 장려되지 않으면, 이기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간에게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 중에서도, 이기심은 확실히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없습니다. 훌륭한 재능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게 되고, 가난한 자의 필요 사항은 보상되지 못하고, 약한 자가 강화되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가르침 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자는 다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살펴본 이기심은 연민의 정과 동정심의 결여요, 형제애를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이고, 영혼의 고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대체로, 흥미있는 것도 많고, 매력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하늘에서 보호해 주시는 자유의지의 은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봉사하도록 허용합니다. 단지 흥미로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축제의 웃음 소리와 흥분 그리고 재미로 가득 찬 사업은 흥미있는 것이지만, 병이나

불구로 집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불구자, 집 없는 사람, 혼자 남아 집보는 아이들, 버림 받은 노인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적인 잡지, 화제거리가 실린 신문, 새롭고 재미있는 기사 거리들은 흥미롭고 매혹적인 것이지만, 경전은 중요합니다.

오락물과 텔레비전과 은퇴 후의 여가 생활로 여기 저기 놀러 다니는 것도 재미있으나, 헌신적인 행위를 위한 사람들의 요구는 중요합니다. “여기 저기 다니며 노는” 관심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행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향락과 편안함을 위한 것을 모아 들이고 소비하고 축적하는 것도 흥미있고 매혹적인 것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임이니 자료니 계획이니 하는 것도 모두 흥미있는 것이지만,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끊임없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연후에, 이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진대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전능하신 아버지의 표창을 받으려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가복음 8 : 34~37)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서 행하겠나이다”

린 에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부지런하고 충실하다면 주님께서는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나는 연차 대회에 처음 참석했었던 그때를 마치 어제인 것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난 그때 어린 소년이었으며, 나의 훌륭한 부모님께서는 나를 태버내클에 데리고 오셔서 내 생애에 일찍 특별하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곳 단상 왼쪽의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회중 찬송시 열심히 노래를 부르신 것과 딱딱한 나무 의자가 어린 나이의 나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태버내클 합창단이 앉아 있는

좌석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 대회 동안 편안하고 예약된 자리에 앉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빛나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얘기치 못한 부름에 몹시 겸손해졌으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나의 부름을 발표하셨을 때 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니파이의 말씀이 나에게 전에는 결코 느껴 보지 못했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파이일서 3 : 7)

나는 어떤 부름을 갖고 있는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건 구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부지런하고 충실하다면 주님께서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에 의해 지도자의 부름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신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의 지혜가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도록 하실 때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많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지받던 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에서 다시 맹세를 합니다. 이 신성한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기꺼이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필요하며, 또한 내가 항상 그것들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의 40년 동안이나 나를 도와 준 아홉 자녀의 어머니요 나의 훌륭한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나의 사랑과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또한 가정에서의 책임과 그녀 자신의 부름으로 인한 자신의 짐이 아주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부름받을 때 항상 지지해 주었으며 아주 큰 힘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로부터 항상 받았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부인과 남편들 그리고 25명(오늘



아침 8시 25분 현재)의 손자들에게 그들의 커다란 도움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신앙과 기도 및 우리의 생활에 그들이 가져다 준 모든 기쁨과 행복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김본 장로님, 카마고 장로님과 함께 브라질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는 부름과, 브라질의 따뜻하고 훌륭한 국민들과 함께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그곳에서 지난 48년이 넘게 교회의 성장에 여러 도로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며, 1940년의 200명도 채 안되는 회원에서, 오늘날 250,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발전한 성장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젊은 지도자(산토스 부장님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는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그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으며 보잘것 없는 소지품들을 갖고 거리로 내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충실히 봉사했으며 후에 아름다운 젊은 개종자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성약 아래 그들의 가족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직 30세가 안된 나이에 그는 그의 사업에서 성공적이며 스테이크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소렌슨 자매와 나는 최근 포르테자 새 선교부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옛날 선교사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선교부장은 자신이 선교부장으로 있는 동안 그의 선교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관한 수 많은 주례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 중의 대부분은 아주 영적인 것이었으며 주님을 섬기는 기회에 대한 선교사들의 감사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진실함에 대한 간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 중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큰 감명을 준 편지가 있습니다. 브라질 태생 선교사인 코스타



장로는 우리가 선교 사업을 마치기 전 그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님,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부장님의 외모나 부장님의 걸음걸이 같은 것들은 잊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장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간증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과 모든 지역의 회원에 대한 아주 큰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빨간, 폭신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통해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지지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희생과 자금 자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람들이 보다 독립 정신이 강하고 자립적이 될 때  
개인이나 교회 단위 조직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아주 훌륭한 대회입니다. 내가  
드리는 몇 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영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남 아메리카의 지역  
회장단은 그곳의 교회가 교회  
본부로부터 재정적인 면에 의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들  
총관리 역원들은 장차 필요 사항은 교회  
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금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원히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해당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남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가 좀더 자금  
자족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해 함께 상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회원들의  
참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극히 간소화된 건물이 교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원들이 노동력을 보다 많이 바쳐,  
건축에 요구되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보다 자금  
자족하게 되는 길을 추구해 나가는  
중에, 사람들은 희생의 원리를 생활의  
일부가 되게 했으며, 그들의 신앙을  
증가시켰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힘을 결코  
갖지 못한다. 이는 인간이 최초로  
지상에 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은 지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신앙 강좌, 6:7)

성도들이 완전히 자금 자족하게 되기  
위해 일하는 동안,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남  
아메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사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하지만  
놀라운 아이디어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회원들이 복음 선교사들을  
위해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 아메리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임무였으며,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함께 강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회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 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결과에  
대하여 어느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나는 선교부장과 만나서, 우리  
회원들이 선교사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토론했습니다. 나는 감독님들에게  
성찬식에서 시간을 내어 근본적인  
생각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이웃  
그리고 스테이크가 받게 될 축복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속한 와드에서, 우리는  
회원들의 희생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던  
결과를 보았습니다. 성찬식 참석 수는  
일주일에 80명 내지 90명에서 지금은  
150명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침례 수는  
한 달에 한두 명에서 거의 열두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내의  
전체 활동이 증가되었으며, 우리는 모든  
와드 내에서 친절과 선으로 가득한  
훌륭한 영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교회 회원인 두 어린  
아이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손을 들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부모는 현재 선교사 토론을 듣고  
있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곧 침례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감독은 스테이크 부장에게 그의  
와드에는 선교사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할 활동적인 회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현명한 스테이크  
부장은 감독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참여하도록 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감독이 크게 놀란 것은,  
활동이 저조한 많은 회원들이 기쁘게  
선교사들에게 점심 식사를 하러 그들의

집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선교사들과 나누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침례해 준 선교사들의 사진을 꺼내 오고는 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기대하지 못한 많은 축복을 교회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선교사들은 그들만이 지닌 특별한 영을 가정에 가져 오는 데, 그것은 회원과 선교사들에게 모두 축복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랑과 봉사의 표현으로 인해 활동이 저조한 많은 회원들이 다시 돌아와 우정을 나누며, 더욱 많은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수단을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원과 선교사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얻게 된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비활동 가족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완전한 활동을 하는 회원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안에는 훌륭한 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다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족의 일원과 후에는 그들의 이웃까지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가 나와 나의 동반자에게 와서 언제 우리가 그녀의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가족의 가난한 사정을 알고 있던 나는 지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 가족은 겸양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집의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우리와 같이 먹읍시다.’”

볼리바아에서는, 네 명의 어린 자녀들 둔 어느 젊은 어머니가 이와 같이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된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대접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음식은 그들에게 대접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음식이 충분치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회원들이 똑같이 느낄 것임을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네 자녀들이 선교사들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러 오는 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례가 되면, 두 명의 멋진 젊은이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우리 집에 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선교사 경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예절바르고, 친절하고 신사입니다. 한 시간 정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주님의 사업을 행하러 갑니다.”

미망인이 된 한 연로한 자매에게서 점심을 제공받은 두 선교사와 같은 아들을 둔 부모라면 어느 부모라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 방문하고 난 그들은 점심을 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꽃다발을 사 들고 그 자매 집에 들렀습니다. 그들이 꽃다발을 그녀에게 전하자, 그 자매는 놀란 표정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 있었던 때를 포함하여, 일생 동안 누구에게도 꽃을 받아 본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기쁨으로 빛났으며 장로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그들에게 알려



로버트 컨디, 태버네클 오르가니스트

주면서 친구의 가족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가족은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두 선교사가 행한 가장 훌륭한 가족 침례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충실한 어느 선교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급 자족의 노력은 우리가 한 달에 평균 사십 팔 달러의 선교사 비용을 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이 회원과 비회원의 관계를 개선시켰기 때문에, 우리 선교 사업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회원들은 재활동화되고 비회원들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영적으로 대접을 받았으며 선교사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선교부장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나는 페루 성도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엘마의 경험과 참으로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마에서, 다음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엘마는 마을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낮은 종이오니. 무엇 먹을 것 좀 주시지

않겠나이까? 하니,

“제가 엘마에게 이르기를, 나는 니파이인으로, 천사가 시현으로 당신을 내게 알려 주시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언자임을 아나이다. 이제 당신을 영접하겠오니, 내 집으로 함께 가시면 음식을 나누어 드리겠나이다. 나는 또한 당신께서 나와 나의 집에 은혜가 되심을 아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엘마를 자기 집에 영접하였으니 곧 앰올레크라 하는 자요, 엘마에게 떡과 고기를 내어 놓으매”(앨마서 8:19~21)

사람들이 보다 독립 정신이 강하고 자립적이 될 때 개인이나 교회 단위 조직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보다 자신감과 적극성과 확신을 느끼게 되어, 그들의 행동에서 그러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지난 3월에 참화를 가져 온 바위와 진흙 사태가 페루, 리마 동쪽의 산 속에 있는 여섯 개의 조그만 마을을 삼켜 버렸습니다. 이들 마을은 모두 리마 페루 산 루이스 스테이크 안에 있었습니다. 사태로 인해

25,0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말일성도 중에서도 열 여덟 가구의 가옥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98가구가 식량과 의복과 의약품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 스테이크 부장단의 한 분과 교회 회원 두 사람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 킬로미터나 허리까지 차는 진흙더미 속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하여 삼백 명 이상을 찾아 내어, 초시카 예배당에 있는 피난처로 데려 갔습니다.

다음 날, 스테이크 부장단은 열 한 명의 감독과 지부장의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 와드와 지부에 일하는 팀을 만들어 회원들의 집으로 가서 깨끗이 치우는 것을 돕도록 부탁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외부 스테이크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문제점을 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대표를 찾아가 그 지역 내의 다른 스테이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페루 성도들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한 예로, 이퀴토스 스테이크에서는 삼십 킬로그램씩 나가는 의복 상자를 열 세 상자나 보냈습니다. 기타 스테이크와 와드에서는 의복, 침구, 매트리스를 기증했습니다.

청녀에서는 누비 이불과 과자를 만들어 팔아 삼백 불 이상을 모았습니다. 리마에 있는 고등 학교의 상급생인 어느 제사는 모두 비회원인 급우, 스물 여덟 명을 이끌고 초시카로 가서 청소하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자매들에게 위생과 소독, 영양 및 “천막 안에서의 가정 생활 운영 방법”에 대한 공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테이크에서는 교회의 일반 복지 기금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와드와 지부로부터 모든 금식 헌금 적립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경비를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987년 3월 29일에 갖는 특별 금식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회원인 과다루페 자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예배당의 피난처가 된 작은 방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주께서 그녀가 피신하도록 도와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하여 지부와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레오노라 드 콘트레라스 자매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권을 갖고 있어 큰 힘이 되어 주는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난은 삼십 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그들이 일생 동안 일한 열매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페루 트루히요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들이 한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기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고, 교회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녀는 도움을 준 스테이크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다른 곳으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과 자립심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남 아메리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내가 그곳에서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땅에서의 첫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 아메리카 지역이 완전히 자립하게 되기까지는 요원한 단계이지만,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 있으며,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지도자와 다른 회원들에 대하여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베냐민 왕이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친 원리를 참으로 느끼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 2:17)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회원이 그 일을 돕기 위해 희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교회 내의 대부분의 답이 그러하듯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완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칠 수 있으며 십일조 결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교성 64:23)

금식 헌금에 대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좀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계란 한 개로 아침 식사를

하고 몇 백원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그 금액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나는 우리가 풍요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끼의 식사를 금식하고 절약한 금액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열배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4페이지)

모든 회원은 후한 금식 기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일반 선교사 기금에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금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의 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거리낌없이 후하게 헌금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받는 동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모든 회원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누구라도 신앙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겸손한 희생에서 주어지는 영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남

아메리카의 성도들이 궁핍한 형편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세주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누가복음 12:48) 그는 우리를 풍요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주는 찬송가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매일 주의 크신 은혜받고 살기에  
내 도움 필요로 한 모든 형제들과  
주의 주신 선물 나누리  
(찬송가, 21페이지:영문판 새찬송가)

우리가 이 대회를 떠날 때, 우리 각자가 총관리 역원의 메시지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좀더 자급 자족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를 마음 속에 품고 가길 간구합니다.

나는 이 대회 기간 동안 우리가 진리를 가르침받았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시며, 복음이 이 말일에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봉사의 기회”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희생이란 말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위대한 기회로 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많은 총관리  
역원들의 회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찬송가, 185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라는 위대한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희생이란 말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위대한 기회로 여기고  
싶습니다.

리차즈 자매와 나는 와싱턴 디 시에서  
십오 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로 다시 왔을 때 우리는  
마운트 올림프스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 년쯤 지나 이스트

밀크릭크 스테이크가 나누어졌는데 고든  
비 힝클리 장로님을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삼년 반 동안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후에 나는 복음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이십칠 년전 이 대회에서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과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님 그리고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첫번째 임무는 캐나다로부터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동해안의 아홉 개  
선교부를 오 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다음 임무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남  
아메리카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66년 5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남 아메리카에서의 첫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습니다. 린 에이  
소렌슨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곳에서의 성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킴블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당시  
상파울루에는 미합중국과 연관된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말일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는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어떤 복미 사람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부름을 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침은  
그 지역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런  
지도자의 부름을 주며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백  
개의 스테이크가 있지만 1966년 당시  
남미에는 하나의 스테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님과 함께 삼 년 동안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를 관리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내가 회상하기로는 그때  
멕시코에는 두 개의 스테이크가 있었는  
데 하나는 식민 지역에, 다른 하나는  
멕시코시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거의 백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 지역의 지도자와  
선교사들에 의해 발전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젊은 남녀와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가졌던 몇몇 훌륭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하신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회원이 선교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알기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처음 그 의무를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나는  
몬타나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밖에서 주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장을 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애야 아주 멋있구나. 네  
이름이 뭐지?”

“요셉 스미스 커디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커디!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나. 넌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훌륭한 선교사인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요.  
서너 달 동안 저는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었으며 약 한 달 전 쯤에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았어요. 그들은  
‘좋아, 부모님께 이야기해 볼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 ‘글쎄 만일  
우리도 함께 듣게 해준다면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선교사들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커디는 "그 모든 가족은 다음 토요일 침례받을 거예요. 저는 이미 훌륭한 선교사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단지 선교사 프로그램에서만만이 아니라 성전 사업에서나 계보 사업에서 우리가 가질 기회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세계 역사상 총만한 복음이 회복된 이 특별한 시기에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총만한 복음의 회복을 통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늘날 주님의 영이 세상에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회복으로 인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간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는 말씀을 받았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이 이 대회를 떠날 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물몬경을 계속 읽읍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대회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대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을 해주신 총관리 역원들과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음악을 들려준 합창단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물몬경의 표제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물몬경의 주요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의 영감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몬경에 실려 있는 모든 구절의 절반 이상이 우리의 주님께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약전서에서보다 더 자주 물몬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몬경에서는 백 개 이상의 다른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분의 신성을 묘사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물몬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속성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그분에 관한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씩 물몬경으로부터 짧게 인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

“세상의...생명이라...또한 생명도 끝이 없어...(모사이야서 16 : 9)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음을...보일 것이요...”(니파이서 27 : 23)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 : 9)

**그분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 “...저들 앞에 분이 되신 것이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니이 31 : 9, 10)



태버나클 오르간 파이프 둘레에 새겨진 조각 모습

**그분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

“...그러므로 주는 그의 구원을 받지 말라고는 아무에게도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니파이이서 26 : 24)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니파이이서 27 : 23)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모로나이서 7 : 12)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 “...그는 자비로... 충만하시니라.”(니파이이서 2 : 6)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 “...또한 병든 자와 각종 질병에 신음하는 자와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세로 고침을 받으매...”(니파이일서 11 : 31)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시도다...”(니파이이서 9 : 20)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 “...그가 하나님(아버지) 앞에 낮아짐을...보이며...”(니파이이서 31 : 7)

**그분은 충만한 기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 “...아버지께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시게 하신 것같이...”(니파이삼서 28 : 10)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 나와 저마다...(그에 의해) 심판받아”(모사이야서 16 : 10)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로우심이라”(모사이야서 29 : 12)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 “그분은 ‘오로지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로...건디시리라.’”(니파이일서 19 : 9)

**그분은 입법자이십니다 :** “...내가 율법을 내려 준 자요...”(니파이삼서 15 : 5)

**그분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다시 없느니라...”(모사이야서 5 : 8)

**그분은 빛이십니다 :**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참으로 끝없는 빛이라 결코 어두워지지 아니하겠고...”(모사이야서 16 : 9)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이라...”(니파이이서 26 : 24)

**그분은 증보자이십니다 :** “...인간은 만인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증보를 통하여...”(니파이이서 2 : 27)

**그분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 “...주님의 인자하신 자비의 뜻으로...”(니파이일서 8 : 8)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니파이일서 4 : 1)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니파이이서 27 : 23)

**그분은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순종함’”(니파이이서 31 : 7)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 “...그가 천지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모사이야서 4 : 9)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 “주는 태초로부터 모든 일을 아시었음에...”(니파이일서 9 : 6)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 “모든 인류는 쫓겨난 백성이요 타락한 백성이라. 이 구속주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니파이일서 10 : 6)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 “그분은 ‘...일어설 자 중에 첫째가 되시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루시리라.’”(니파이이서 2 : 8)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

“...주의 길은 영원토록 의로우심이라.”(니파이이서 1 : 19)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 “그분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니파이이서 29 : 7)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이서 25 : 20)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 “그분은 ‘유혹을 건디어 지지 아니하며...’”(모사이야서 15 : 5)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 “...진리의 하나님이라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심이니이다.”(이더서 3 : 12)

**그분은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 “...그가...모든 지혜를...가지셨음을 믿으며”(모사이야서 4 : 9)

내가 물론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신성에 관한 이러한 구절들과 그 외의 다른 특징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다음 찬송가의 작가와 같이 마음을 다해

제롬드 디 오펀리,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



이렇게 외칩니다.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빛나는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세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새 찬송가, 1985년, 86페이지)

일단 물몬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를 밟아 “그리스도께로 나아”(모로나아서 10:32)와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인 물몬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은 다만 첫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의 “중석”인 물몬경에 나와 있는 교훈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정사, 4:461 참조)  
아직도 우리가 이 책을 매일 읽고 항상 그 교훈대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겠습니까?

물몬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몬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물몬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원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많은 구절 중에서 몇 개의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서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먹여 주리니...”(앨마서 5:33-34)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가운데 서시어 팔을 벌려



(우리를) 맞으시려”(물몬서 6:17 참조)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오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연을 변호하시기”(야곱서 3:1 참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욘나이사  
26절)

모로나이는 야렛인의 문명에 관한  
기록을 끝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이를 구하라”(이더서 12:41)

또한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의 문명의  
종말에 관한 기록을 끝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한  
것이요…”(모로나이사 10:32)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됩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모사이야서 5:12 참조)  
간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저를 끝까지  
섬기기로”(모로나이사 6:3 참조)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니파이이사 25:26)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야곱서  
3:2) 받습니다. 니파이의 영혼이 그의  
죄악으로 인해 비탄에 젖어 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사…  
나를 보존하여 주셨느니라.”(니파이이사  
4:19~20)

우리는 엘마의 다음 권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엘마서 37:36~37)

힐라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그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한)…구령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힐라맨서 5:12)

니파이는 주께서 “내 육신을 불사를  
만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셨으며”(니파이이사 4:21)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불사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니파이이사 25:25 참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고통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엘마서 31:38 참조)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의 팔에 안겨”(물몬서  
5:11 참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니파이는 “…예수를 자랑하노니 예수는  
나의 영육을  
…구하셨음이라”(니파이이사 33:6)고  
말했으며, 리하이는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을  
보았느니라.”(니파이이사 1:15)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물몬경을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물몬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악마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전은 과거의 도전 못지  
않은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은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매일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겐 쓴

마지막 편지가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백성들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의 문명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수고를 그칠진대 정죄를  
받을 것인즉, 저들이 비록 강박할지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자.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를  
다하여 온갖 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모로나이사 9:6)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인 물몬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에겐  
보내는 편지를 다음의 말로  
끝맺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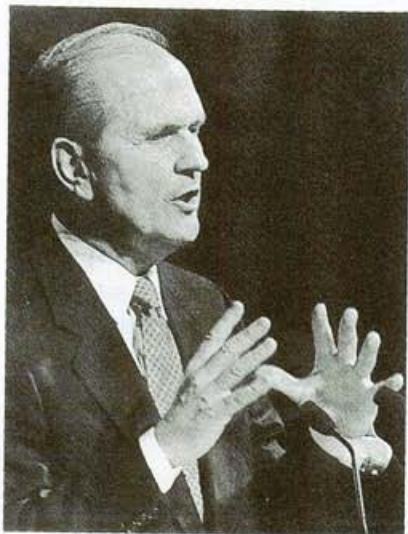
“그 보좌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세의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너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노라.”(모로나이사 9:25~26)

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는 영감받은 이 권고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주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차이가 생기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팀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다양성을 통하여 단합의 힘을 쌓으십시오.”



**벤**슨 대관장님과 자매님, 이 여성 대회에서 수천 명의 자매로부터 발산되는 사랑과 영을 두 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힐러리 부대관장님과 몬슨 부대관장님, 우리는 두 분과 두 자매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대관장단께서 참석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 대한 그분들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개회 기도회와 메시지 및 이 훌륭한 여성 합창단의 메시지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시 자매님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교회의 근본 단위인 가족을 강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특권에 대해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가족으로서 그분에게 돌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님은 인류가 평탄한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길은 오히려 우리가 모서리를 돌 때마다 그곳에 장애물과 웅덩이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 코스와 더 비슷합니다. 인생은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재빠르고 신속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경기장 즉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신앙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윈더 자매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윈더 자매님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나이 2:25)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즉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는 비이기적인 봉사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밤 남성 참석자로서 깊은 감사를 표시할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남성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애정도 표시합니다. 이 많은 청중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반자와 우리 어머니와 누이와 딸과 손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훌륭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동반자로서 함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에서 여러분의 훈계와 통찰력의 혜택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어머니 여러분과 어머니가 되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없으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전체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신권과 창조 및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성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였으며 “위대한 자존자...처음과 끝...영원히 광활한 넓음을 굽어 보며...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대군을 보”셨습니다.(교성 38:1; 교성 29:1; 39:1 참조)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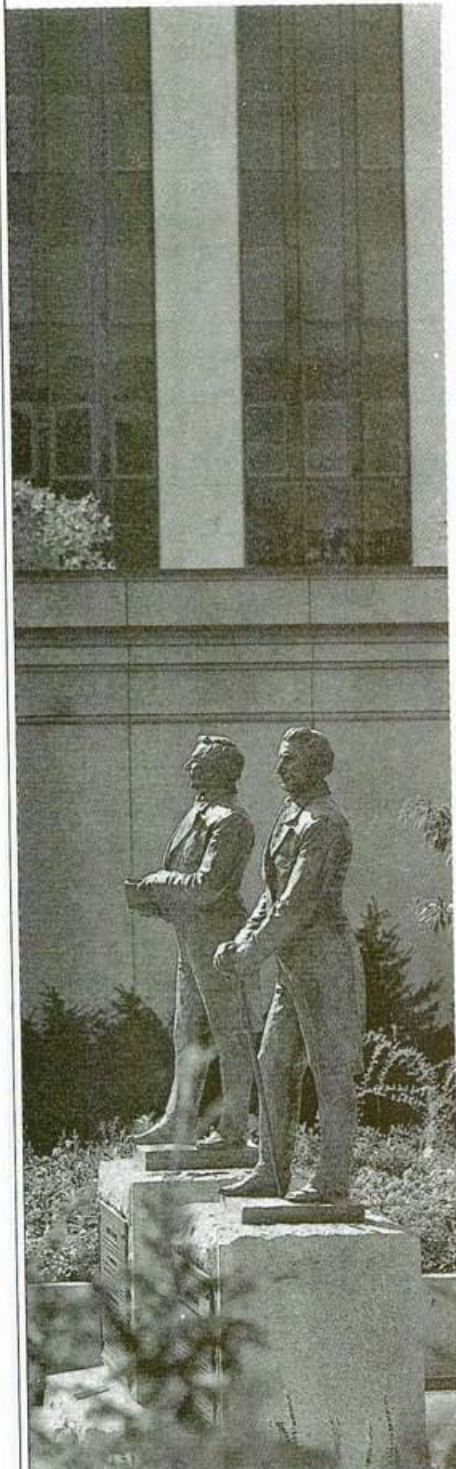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아브라함서 3:22-2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중의 하나로서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고 예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전 구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아브라함서 3:24)

그런 다음 “여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직하시며 형성하시니라.”(아브라함서 4:1)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실물 크기의 조상이 솔트레이크시의  
템플 스퀘어를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구가 창조되고  
나뉘어지고 아름답게 되고 수목과  
동물이 나와서 거하게 된 다음 그

창조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는  
사람-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내려가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더라.”(아브라함서 4 : 27; 창세기  
1 : 26 참조)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육신을  
제공하고 이 간절히 기다리는 영들이  
지상 생활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 창조 과정에서 신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요, 아담이 둘째며”(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154페이지)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느니라. 그가 첫 대관장의 직을  
얻었고, 그 열쇠를 쥐었으니, 이는  
대대로 계승되는 것이다. 그는...세상이  
형성되기 전, 천지 창조 때에 이를  
받았느니라.”(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권은...법칙으로서 바로  
이 법칙에 의하여 현재 세상이 존재하며  
또 과거에 존재했고 또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1년,  
130페이지)

그러므로 신권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신권의 의식과 성약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똑같이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에 의하여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미가엘로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첫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루어진  
창조의 권세와 영광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사슬에 있어서 마지막 고리가  
아직 빠져 있었습니다. 창조의 신권  
아아취에서 종적인 여성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목적과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즉 그녀의  
육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을 때  
아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임을 나는  
아노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한 자니,  
나는 여자라 칭하리라.”(모세서 3 : 23)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 : 22; 모세서  
3 : 22; 아브라함서 5 : 16 참조) 나에게  
재미있는 사실은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이  
우리의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다른  
동물에게는 열세 쌍의 갈비뼈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한 쌍이 부족한 열두 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뼈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옆구리로부터 나온 그 갈비뼈는 동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갈비뼈는  
지배나 굴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일하고 살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영원한 신권의  
권세에 의하여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함께 합쳐졌습니다. (창세기  
2 : 24-25; 모세서 3 : 25; 아브라함서  
5 : 18-19 참조) 이브는 필멸의 인간의  
육신을 짓고 조직하기 위하여  
동반자로서 왔습니다. 이브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계획이 결실을 보도록 생명을  
함께 창조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브는  
“모든 산 자의 어미”였습니다. (모세서  
4 : 26) 이브는 모든 여성의 맨  
처음이었었습니다.

이브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다섯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이브는 동반자가 될 뿐 아니라 일을  
했습니다. (모세서 5 : 1 참조)
2. 이브와 아담은 부모가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세서 5 : 2 참조)
3. 이브와 그녀의 동반자는 기도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모세서 5 : 4 참조)
4. 이브와 아담은 순종과 회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귀기울였습니다.  
(모세서 5 : 5-6 참조)
5. 이브와 그녀의 남편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서 5 : 12  
참조)

이 다섯 가지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우리는 현대의 상황에 적용되는 몇 가지



유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것을 살펴봅시다.

1. 이브는 동반자가 될 뿐 아니라 일을 했습니다. 아담이 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아내와 동반자로서 즉장인 신권 소유자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아내는 누구나 목적에 있어서 단합된 동반자로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명백하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11)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마 19:6; 막 10:8; 교성 49:16)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남자나 여자를 만들려면 남자와 여자가 다 있어야 합니다. 양성의 결합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은 함께 있는 온전함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을 발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려자의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공헌은 승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창조적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입니다. (교성 49:16)

그러므로 동반 관계를 유지하며 일하고 사랑하십시오. 동반자를 공경하십시오. 어느 편에서든 위치나 지위에 대하여 경쟁한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못하며, 경전 지식에 의하여 교화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 아담이 아버지가 되는 책임을 맡은 것처럼 이브도 어머니가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브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 다. 여러분도 공동 창조자로서 자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따뜻한 환영의 손길을 펴고 하나님께 보내실 그 자녀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회와 영적인 인도와 지혜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계명에 남편과 함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손에게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그런 풍요로움이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동반자가 없는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시간표는 여러분의 외로운 준비 시간이나 이



필멸의 생애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은 영원과 비교할 때 백만 분의 일 초반에 안됩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행하는 마음과 함담함은 틀림없이 그분이 알게 됩니다. 모성의 영적 보상은 모든 여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양육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공격당하기 쉬운 사람을 보호해 주고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자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압력을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너무 작습니다. 예산이 너무 딱딱합니다. 여러분에게 올부짓는 모든 사람을 도울 능력보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촌음을 아껴 쓰고 허송치”(찬송가, 192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십시오.

오랫 동안 넬슨 자매에게 힘이 되어 준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넬슨 자매의 우선 순위에 대한 관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기 때문이죠

우리는 슬프게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해요, 거미집아.

먼지야, 가서 자요

나는 우리 아기를 흔들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은 가만 있지 않아요

나는 넬슨 자매가 “초인적인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기쁩니다.

넬슨 자매는 단지 “달래 주는”

엄마였습니다. 넬슨 자매는 단지 자기

자신이 됨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올바른 때에는 끝내지 못한 일을 좀더 인내심을 갖고 참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지니 왔다 하는 그 순간 벌써 사라지네”(찬송가, 192장)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고귀하고 영원한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진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에 보좌와 왕국과 영토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봉사 불멸과 영생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75:5; 128:12, 13; 132:19, 24; 모세서 1:39 참조)

3. 이브와 그녀의 동반자는 기도로써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모세서 5:4)는 가운데 한 가지 선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기도 방식을 따를 때



템플 스캐어 방문자센터 및 기타 인근 빌딩에 설치된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대회 순서를 보고 있는 회원들

지혜와 개인적인 화평의 축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엘마서 37:37) 골방에서, 자기 나뭇의 곳에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의 소망을 모두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는 남편, 아들 딸, 형제와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 모든 사람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사랑스럽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무죄함이 느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그분의 권세에 그렇게 일치할 때 선을 위한 여러분의 영향력은 측량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죄와 유혹의 세상에서 기도의 권세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여성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과 개인적인 계시를 새겨 넣어 주실 것입니다.

4. 이브와 그 남편은 순종과 희생의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모세서 5:5)는

명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예배하고 희생을 바치라는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오셨을 때 그 최후적인 희생양이 되시어서 그 약속된 역할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를 위하여 더 위대한 운명과 더욱 숭고한 개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희생을 바치라는 계명을 받고 있으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바치라는 계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좀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할 때 가장 높은 차원의 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희생의 율법은 뭘 수 없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라는 계명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명과 또 다른 여러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단련받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좀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님처럼 됩니다.

나는 성결케 하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준 내 생애에서 만난 사랑하는 훌륭한 여성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결혼한 첫 해에 내가 의과 대학에 다닐 때 한동안 넬슨 자매가 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봉급을 받기도 전에 우리 돈으로 값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혈액 일 파인트(약 0.47리터)를 25분에 팔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아내가 낮에는 학교 교사로 밤에는 음악사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가서 각각 일 파인트의 피를 팔았습니다. 아내는 팔아서 바늘을 빼는 순간 나에게 “내 피를 판 돈에서 십일조를 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장모님이 내가 자기 딸을 두 직장에 보내고 또 피를 팔게 한다는 것을 알면 그당시 새 사위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순종은 나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넬슨 자매의 십일조에 대한 결심은 나 자신의 결심도 되었습니다.

의로운 딸이 되시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친에게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부친에 대하여 사랑에 찬 인내심을 품고 굳건하게 대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들이 아직 매우 어렸을 때 우리 부부는 그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의 암흑의 그림자가 우리의 즐거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나는 우리의 성공에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에 딸들에게 큰 소리로 합리화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리화는 순종을 정말로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다음 날이 주일인 것을 알면서 농담조로 “내일 우리가 평상시보다 두 시간 일찍 일어난다면 고기를 더 잡고 기상 시간이 될 때 딱 끝내도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나의 반려자와 딸들이 모두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일곱 살 된 우리 딸이 “아빠, 주일날에 잡은 고기를 잡수시겠어요?”라고 말할 때 냉랭한 침묵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안식일에 잡은 고기를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다음 날 아침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결심은 또 나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따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부친의 신앙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보다 더 커집니다.

5. 아담과 이브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와 여자 모두 것처럼 가치있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수 있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전세의 존재, 창조,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필멸의 생애의 이유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가르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결심이 분명히 실천되게 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함, 성도들을 온전케 함, 자기 가족을 구속함은 여러분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성약과 의식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승화시켜 주고 유용한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정직과 자립과 불필요한 부채를 피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환경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 분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십시오.

불결한 사회에 속한 여러분의 적들은 여성의 신성함과 모성의 성결함을 천하게 만듭니다. 부정에 의하여 병들고 성병에 의하여 얼룩진 세상은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이 필요합니다. 노름을 후원하고 외설물을 묵인하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정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은 소동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이 지금 여성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차이가 생기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팀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됩니다. ... 여러분의 다양성을 통하여 단합의 힘을 쌓으십시오.

원더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일찍 카밀라 킴블 자매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에 대하여 훌륭하고 당연한 찬사가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킴블 자매님의 위대한 용기의 모범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본받고 그녀에게 그런 힘과 안정을 준 물몬경으로부터 나오는 이 가르침에 그녀처럼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다.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히라맨서 5:12)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이 말일에 그분들이 회복하신 그의 교회에 바쳐지게 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며, 벤슨 대관장님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우리가 들보도록 맡겨졌습니다. 영원한 신권 원리와 율법과 권세가 우리의 동반 관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거룩한 운명에 관련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가족을 강화함

조안 비 독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여성으로서, 인간을 주님에게 인도하며 현세와 내세에서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양을 먹이라’는 책임을 완수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갈** 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방금 잠은 싱싱한 물고기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 : 15)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목적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우선 순위에 대해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우리도 대답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과 격려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인간을 주님에게 인도하며 현세와 내세에서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양을 먹이라’는 책임을 완수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의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먹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며 가족을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상기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파괴하려고 노려 온 가장 큰 목표가 가정과 가족이기 때문이며, 너무나 많은 양들이 우리를 벗어나 방황하거나 멀리 피임에 빠져 떠나 있으며 양떼를 삼키려는 이리떼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집을 비우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깨우쳐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커다란 집이지만,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아를 넓혀 영원한 가족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38 : 56)고 말해 줍니다.

전세에서의 하늘의 가족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족을 인도하는 데 따라야 할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가족에게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전에 배웠던 신성한 진리를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입니다. 합당한 가치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성공적으로 위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의 존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이 지상에 오는 영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만드는 상호부조회 자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자매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의 두 아들에게 숟가락, 냄비, 그릇 등에 남아 있는 사랑 조각을 긁어 먹게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연차 대회가 열리는 주말로서 가족이 대회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차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성의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아들이 필쩍 뛰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의 부스러기요? 야, 나한테는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신성이 많습니다. 분명 천사들이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상에 거하는데 필요한 사랑의 보살핌과 가르침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권고를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네 자녀를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니파이삼서 22 : 13)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양을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짧은 지상 생활을 통해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 몇 사람이 어떤 대도시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 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사무실 일과 수업 일정으로 인해 우리는 각기 다른 비행기로 가도록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한 공항에서 떠났으며 나와 나의 아들은 두 시간 쯤 떨어진 다른 공항에서 이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던 곳이 아닌 반대편으로 운전을 하는 일, 복잡한 고속도로,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비행기 이륙 시간까지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손에 지도를 들고 나의 아들은 렌트카를 몰았습니다. 나는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지도가 도로 표지판과 일치하도록 만들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되돌려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이와 비슷한 것인가 하고 나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지도를 따라 도로 표지판을 주시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많이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생을 통해 주님의 정하신 때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로 표지와 안내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 주는 살아 계신 예언자.
-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건.
-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신권.
-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의 생활을 마련해 주는 신성한 성약과 의식.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가정은 의로운 삶의 기초가 된다."고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일 보좌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바바라 비 윈더 회장; 제이 보좌 조안 비 독시 자매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 르웰린 알 맥케이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1년, 276페이지) 가정은 가족에게 영생에 대한 비전을 가르치는 곳이며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로 표지판을 따를 수 있게 돕는 곳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을 쌓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개인적인 발전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참된 개인의 가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확실한 관계에서 옵니다. 개인의 가치는 고유한 것이며 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춘의 꽃이 시들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궁핍케 하거나, 질병 또는 결함이 생기거나, 타월함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흐려지더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음, 아름다움, 치장, 소유, 권력, 명예, 성취 등 사람을 가치있게 하는 세상적인 거짓 풍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물론경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있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셀 스미스의 성역 초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3:7)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확실한 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애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어진 안내판과 도로 표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열렬한 기도, 성신의 인도, 매일 경전을 연구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 줍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

여성의 내적인 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롭게 생활하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가족은 수많은 면에서 강화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부모를 위한 노년의 모임에서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의로운 지도력을 행사하고 여러분의 동반자 즉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시온에 있는 어머니에게,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7년, 13페이지)

이 의로운 지도력은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기 위해 지상에 회복된 신권의 권능으로 행사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신권의 충만한 축복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신권을 소유한 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둔 여러 명의 어린 자녀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여 식구들을 잠깐 보고는 교회 일을 하러 다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로 확신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스스로 확신을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사하기에 합당한 것이 기쁘지 않은가?" 하는 확신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지지함으로써 그 가정과 가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가져 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전에서 자신과 조상을 위해 의식과 성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식과 성약은 현재와 내세에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닻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와 결속되어 있는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 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인도시키는 성전 의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존 에이 윗소 장로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상사에서 도움을 받는다."(조상 찾기, 솔트레이크시티 : 유타 계보 협회,



1937년, 22페이지)

내가 소녀였을 때 우리 또래의 한 그룹이 윗소 장로의 집에서 갖는 노년의 모임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열심히 조사한 가계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가계도를 펼쳐 보니 그것은 방 세 개의 길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우리도 조상을 찾아야겠다는 동기를 마음속에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신성한 사업에 평생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역사에 관한 일을 할 때 우리 삶에서 영적인 이해력이 커집니다.

시온의 자매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고 우리가 돌보도록 맡겨진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며,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려 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 준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훈련하고, 가르치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일을 존경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 : 38 참조)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부름을 성실히 이행할 때 이 약속은 실현됩니다."(벤슨, 시온의 어머니에게, 13페이지)

나는 이 말일에 어머니로, 아내와 딸로, 자매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무척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에게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그에게 인도하며 그의 어린 양과 양을 먹여 주어 그와 대면하게 되는 큰 날이 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복받은 자여, 너희가 수고하여 지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였도다."(엘머서 5 : 16)

나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우리가 현재와 내세에서 가족을 강화하는 우리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생의 여정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극복함

조이 에프 이반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참으로 자신의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우리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척 시대의 여성들이 그 많은 문제에 당면해서도 “모든 것 잘되리”라고 노래부를 수 있었던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와 염려에 당면해 있으면서 어떻게 계속 “모든 것 잘되리”라고 노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자매로서 낙담한 자들을 찾아내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내와 어머니들을 가르치며 모든 자매를 환영하고 청녀를 이끌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 즉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모든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호수로 갔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무엇이나 다 준비만 되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늘 믿어 왔었습니다. 그는 아홉 살 된 아들에게 인인용 돛단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는 혼자 배에 태워 호수로 내 보냈습니다. 그는 희색이 만연해서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가 입은 환한 색의 구명 조끼와 그의 모습은 수평선을 향해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이가 잘 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배를 타고 그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는 돌아오는 방법을 잊어버려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빠에게 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도 가르침을 잊거나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을 걷고 용기내자

하나님 보호하리라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86장)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방문은 십중팔구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과 작고 조용한 영감의 울성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참으로 자신의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우리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음을 거듭 확신시켜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자매들이 가난과 질병, 유아 사망율은 높고 생존율은 낮은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상이 문맹이며 이 가운데 7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깨끗한 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겨우 먹을 물만 길어 오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그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 자매들에게 인내할 용기를 주니까?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오시리라는 그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 찬송가에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날이 오리니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 불가피한 이별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아 왔으며 아니면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모사이야서 18:9)는 것과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 흘리”(고리와 성약 42:45)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 백베드 모이어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계단에서 그대의 작은 자취를  
그리워하노라.

우리 그대의 저녁 기도를 그리워하노라.  
우리 온종일 어느 곳에서나 그대  
그리워하노라.

(리처드 이반스 인용집, 리처드 엘 이반스,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사, 1971년, 113페이지)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은 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와 가족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차이점은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가족은

영원할 수 있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활의 실재성은 기다리는 인내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진실로 “복음이 지닌 평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109장) 여기에도 역시 자매들이 서로에게 또는 슬픔에 싸인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위안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랑의 사업의 일부가 됩니다.

교회 내의 독신 여성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독신 자매들은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조 조직 역원과 교사로 봉사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성전에 참여하며 계보 사업도 합니다. 그들은 자선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하여 결혼 생활이 깨어진 자매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전통적인 남성들의 사업 세계에서 여성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 할까요? 실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이성의 관례를 떠나 어떻게 가치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매들은 혼자서 부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은 수입에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까지 다해야 하는 그들의 과제는 과중한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립하려 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는 커다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편모는 편모이며 자녀들의 기쁨과 더불어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자매들에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자매들에게 다른 모든 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달리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즉 위를 쳐다 보고 배우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가족 또는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평가하고, 신앙을 갖고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고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관계를 진실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모든 자매는 그들을 돌보는 교회의 자매들과 가정 복음 교사 또는 감독으로부터 신권의 보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매들은 환영받고 함께 활동하며 봉사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동성 연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하지 말찌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임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계명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나 성적인 관계는 부부에게만 한하며 혼외의 성관계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지만,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육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들은 성악이나 결혼 서약에 불충실한 사람들이며 어떤 면에서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저녁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여 도움과 용서를 구하도록 권고합니다.

물론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악한 상태의 사람들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이는 저들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이었요.”(니파이삼서 6:18)

나의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얼마 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며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그녀는 용기를 얻어 감독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재판이 열렸고 그녀는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영적인 치료를 받고 침례를 받던

날 그녀는 감독에게 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감독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도와 준 상호부조회의 친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녀 또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 절망적인 때에 간증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서 결혼을 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임을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것인지를 말해 주세요.”

이 교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즉 어떤 면에서든 약간 빛나간 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사랑과 소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문을 당했거나 회원 자격 정지를 당했을 경우 그 고뇌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속임수와 죄의식과 비생산적인 생활로 인해 마약과 술로 뒤덮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어 있거나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잘되리”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초기에 도움을 구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추거나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공식적으로 교회와 관련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말일성도의 가치 기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분께 도움과 치료를 요청하십시오.

엘마가 신앙에 대해 가르친 바와 같이 믿고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은 짝이 터져나서 결실을 거두는 씨앗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엘마서 32:27-43)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전혀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터 브르겔이 그린 이카루스의 신화에 관한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 주는 이카루스는 그의 아버지가 제조한 반죽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 했다고 말해 줍니다. 그는 실제로 날았습니다.

그러나 날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쳐 태양 가까이까지 날아가 그만 밀랍 반죽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 바다에 빠졌습니다. 브르겔의 그림에는 그가 푸른 물 속으로 빠져 사라질 때 흰 다리만 보입니다. 근처에 있던 어부와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하며 놀라운 일 즉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항구에서 아름다운 배를 띄웁니다.

더블류 에이치 오든은 고통과 세상의 무관심에 관해 썼습니다.

고통에 관해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늙은 주인들이여, 그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인간의 입장에서,

누가 먹든가 창문을 열든가 느릿느릿 혼자서 산책을 할 때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났는가.

("뮤제 데 보 아르" 더블류 에이치 오든: 시 선집, 에드워드 멘델슨, 뉴욕: 랜덤사)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개인적인 고통과 같습니다. 세상은 보통의 일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바라 비 윈더, 본부상호부조의 회장이 대회 방문자를 껴안고 있다.

교회에서의 자매애의 결속으로 무엇인가 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아이 하나와 그 아이의 가족이 최근에 비극을 겪었습니다. 집이 불에 타 세상적인 소유물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은 여섯 자녀 가운데 다섯이 집에 남아 있었지만 불이 나자 침대의 아들 두 명이 혼란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린 아이들을 안아 들고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과 도움을 준 와드와 이웃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조용히 돌아서서 배를 띄우지 않았습니니다.

이 가족에게는 시련과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신권의 축복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확신과 함께 왔습니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충실하여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생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50:5) 그들에게는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교리와

성약 121:7)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상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자신에게 시련이 닥쳐 올 때 우리는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쬐고"(니파이이서 31:20) 위를 바라보며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뺨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고린도후서 4:8-9)

죽음과 역경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역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말하리라 모든 것 잘되리"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며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와 하나님의 신권에 의해 우리가 인도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생활에서 기쁨을 찾음

바바라 비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기쁨이란 행복일 뿐만이 아니라, 성신이 우리 내부에 나타내 주는 느낌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매 여러분, 우리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두 발전의 무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에서 영으로부터 위안을 느껴 왔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염려를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소리쳐 본 일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전세의 천국 회의 때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기쁘게 소리하였”(욥 38:7)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태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시편 16:11)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불순종과 죄와 고통의 위태로움도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은 알려졌고

우리는 장차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는 신성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기쁨으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니라”(니파이서 2:25)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몹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유혹은 무자비하고 많은 사람을 속이며 때로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까지도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가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표준 즉 덕성, 정직, 도덕, 예의, 근면, 몸과 마음의 청결 등은 이제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가치는 여전히 참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리를 위해 주신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뜻을 행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곧 벗어나 더 행복한 어떤 일을 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길러 출가시킨다면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복음을 가르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생일 파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생일이 가까와지기도 전에 나는 주의깊게 친구들에게 파티에 올 때는 동전을 하나씩 가져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즉시 나를 불러 앉히고 야단을 치시고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친구를 하나씩 찾아 다니며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교훈이었으나 다만 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생각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겨운 일이나 역경도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 계획은 “[우리들] 시험하여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3:25)

물론 경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영원한 기쁨을 느끼는 훌륭한 경험을 했던 백성들의 아름다운 예를 말해 줍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나파이인들 가운데 처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많은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떠날 무렵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훌륭한 신앙과 그의 말씀을 갈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 머무시며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나파이삼서 17:16~19 참조)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20절)

기쁨이란 행복일 뿐만 아니라, 성신이 우리 내부에 나타내 주는 느낌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신의 임재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쁨에 넘치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마른 땅을 적서 주듯이 우리도 자신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과 소망을 저장해야

합니다. 의와 영적인 자립의 저수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이 거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2. 우리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대한 구세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3. 그의 속죄의 희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4.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즐거운 마음을 키우게 되면 인간의 영이 성장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일 때 우리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품고자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 줍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운을 내어 즐거워하는 것은 낙담에 찬 현재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 그것은 구름이 빛을 가릴 때 우리를 비쳐 주는 햇빛과 같습니다.”(엔사인, 1986년 5월호, 66페이지) 모든 여성은 각자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이 기쁨의 영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게 합시다.

오래 전에 사 게 될 된 우리 아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 홀로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어머니가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홀로 데리고 가서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열두 살 된 딸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딸에게서 이 불치의 병을 평화롭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간호원에게 줄 것을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은 나의 걱정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어린 아들은 퇴원하여 훨씬 나아졌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런 병이 이 어린 소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손수 뜨개질한 것을 나에게 보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운을 내어 즐거운 마음”을 보여 준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범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았으며,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여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68:6)

나는 또한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의 심자가들 견디(는)...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 차리라.”(니파이서 9:18)

두번째로 우리에게 대한 구세주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알고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매 여러분, 오늘날 지상에 예언자가 계심을 아는 데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다스리고 지지하는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성으로 태어난 영광을 기뻐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서는 모두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존엄성과 역할의 가치를 이해하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가정을 사랑과 학문의 장소, 안식과 수양의 초소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엔사인, 1978년 5월호, 101페이지)

참으로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전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교성 6:23) 가져다 주는 작고 조용한 음성인 성신으로부터 확신을 받음으로써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킬 때 우리의 영적인 저수지는 더욱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고, 봉사하게 하고, 부름을

완수케 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랑스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더라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계명을 선택하지 않듯이 받아들일 부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을 조심하고 기운을 내어 기뻐하며 우리가 맺은 인약을 굳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5:13~14 참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야서 18:8~9)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주님께 가까운 곳에 있어 성스러운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각자 자기의 책임을 지고 은사와 재능을 함께 나누어 서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세번째, 속죄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침례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해줍니다.

기쁨은 베냐민 왕이 가르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간구한 뒤 겸손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저들에게 이른 대로 저들이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신앙으로 인함이라.”(모사이야서 4:3)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생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회개에는 (1) 죄에 대한 인식, (2) 죄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3)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결의까지가 포함된다.”(신앙개조, 100페이지)

그것에는 신중한 죄에 대한 고백과 가능한 한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네번째, 계명을 지키고 구세주를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은 이 지상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며, 평화롭게 살고, 자녀가 굶주리지 않게 하며 헐벗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해서는 안되며,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이아서 4:13~15 참조)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나니...그러나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29~30절)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그 위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평생 봉사하게 했으며,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릴 때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과부인 노파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온 그 어머니는 불편스러운 자신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나 출입할 때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긍정적인 경험을 했으면 하는 쪽에서 이웃에 사는 맹인에게 책을 읽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노파는 딸에게 계단 내려가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다리를 절뚝거리며 길을 건너 맹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은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는 노파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노파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같



초동협회 본부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일 보좌, 버지니아 비 캐는 자매; 드렌 제이 영 회장; 제이 보좌 미셸린 피 그레슬리 자매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을 자신과 자녀를 위한 “선교사 훈련원”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방황하는 사람과 함께 우정을 나눔으로써 이 위대한 선교사의 대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근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 자매들을 다시 구세주에게 데려올 때 아,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엘마서 31:35; 교리와 성약 18:15~16 참조)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에는 알콜 중독자, 마약 복용자, 이혼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천사들’이 다시 찾아 왔을 때 나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방문 교사가 방문하여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창문을 통해 슬며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들이 떠날 때까지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매는 현재 충만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의 저수지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오랜 동안 시련을 겪고 난 뒤, 온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붙인 뒤 길거리로 끌려 다니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간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쳐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즐거움의 소리니 하늘에서 들리는 자비의 소리요...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즐거움의 소리요,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니라.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교리와 성약 128:19, 22)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과 지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공과와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부모, 교사 및 교회 회원이 복음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것은 1987년 10월에 말씀된 것으로서 1988년 청소년 및 성인 공과를 위한 것이다.

## 1988년 복음 교리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알든 포터
3	제임즈 이 파우스트; 글렌 엘 페이스
4	더글라스 제이 마틴; 알렉산더 제이 모리슨
5	보이드 케이 패커
6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회): 엘 톰 페리
9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10	조셉 비 위스린
11	던 엘 라슨
13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더글라스 제이 마틴; 알렉산더 제이 모리슨; 린 에이 소렌슨
14	마빈 제이 애쉬튼; 엠 러셀 벨라드
15	하워드 더블류 헌터; 닐 에이 맥스웰
16	엘 알든 포터
17	고든 비 힝클리(신권회)
18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달린 에이치 옥스
1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20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엘 톰 페리; 본 제이 페더스토운
21	제임즈 이 파우스트
2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 주일학교 17 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엘 알든 포터
3	글렌 엘 페이스
6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10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달린 에이치 옥스
11	엠 러셀 벨라드

13	엘 알든 포터
14	데이비드 비 헤이트
15	글렌 엘 페이스
16	제임즈 이 파우스트
17	마빈 제이 애쉬튼
21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29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회)
3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조셉 비 위스린: 본 제이 페더스토운
34	제임즈 이 파우스트
37	고든 비 힝클리
39	하워드 더블류 헌터
40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41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로버트 엘 백맨

## 주일학교 16 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닐 에이 맥스웰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12	엘 알든 포터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달린 에이치 옥스
23	고든 비 힝클리(신권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26	글렌 엘 페이스; 본 제이 페더스토운
31	마빈 제이 애쉬튼
32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33	보이드 케이 패커
34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로버트 엘 백맨
35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36	데이비드 비 헤이트
38	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 주일학교 15 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	닐 에이 맥스웰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위스린
6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달린 에이치 옥스
14	던 엘 라슨; 본 제이 페더스토운
16	마빈 제이 애쉬튼
17	제임즈 이 파우스트
18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0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2	글렌 엘 페이스
24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28	러셀 엠 넬슨
3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8	엘 알든 포터
40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로버트 엘 백맨
42	엠 러셀 벨라드

## 주일학교 14 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달린 에이치 옥스
3	엘 알든 포터
26	고든 비 힝클리(신권회)
31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32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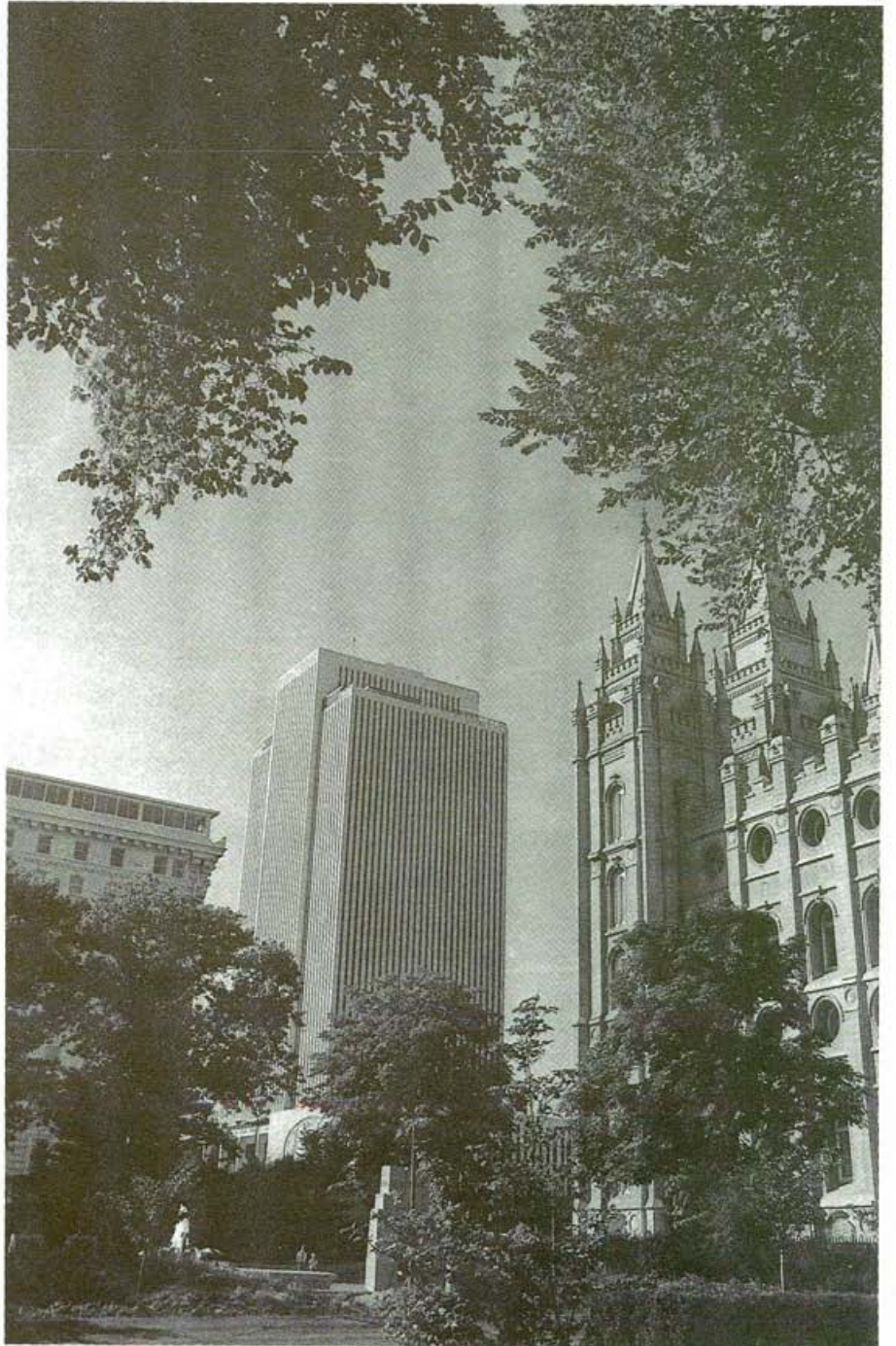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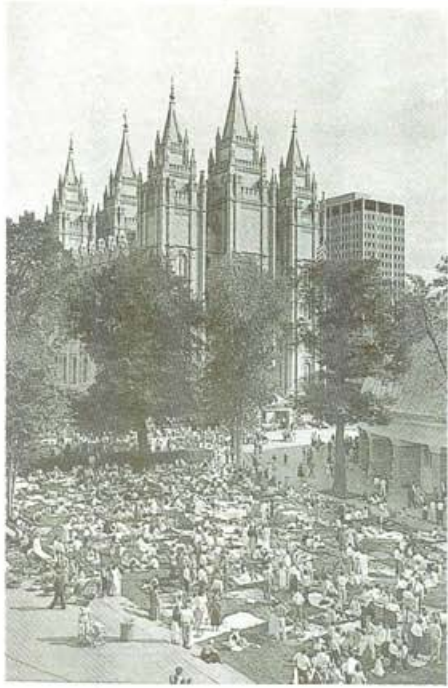
34	로버트 엘 백맨; 더글라스 제이 마틴: 알렉산더 제이 모리슨
35	엠 러셀 벨라드
37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 엘기세익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1988

공과	총관리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6	데이비드 비 헤이트
7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달린 에이치 옥스
10	닐 에이 맥스웰
11	보이드 케이 패커
13	던 엘 라슨
15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16	제임즈 이 파우스트
1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18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회)
21	러셀 엠 넬슨; 엘 알든 포터
23	고든 비 힝클리(신권회)
25	글렌 엘 페이스
26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29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회): 로버트 엘 백맨
31	마빈 제이 애쉬튼
33	엠 러셀 벨라드; 본 제이 페더스토운
35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37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 상호부조회 1988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1	달린 에이치 옥스	
2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데이비드 비 헤이트
3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5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위스린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신권회)
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7	닐 에이 맥스웰; 달린 에이치 옥스	
8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9	보이드 케이 패커	
12	마빈 제이 애쉬튼	토마스 에스 문슨 (일요일 오전)
17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19	하워드 더블류 헌터	
20	조셉 비 위스린	
20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21	고든 비 힝클리 (신권회)	



“오라, 주의 산에 오르자..그가  
주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매”

(니파이삼서 12:3)

